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 ◆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3:00~18:00
- ◆ 장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3층 세미나실
- ◆ 주관 및 주최 이상길 교수 10주기 추모 행사 추진위원회 · 한국청동기학회
- ◆ 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 일 시 : 2022년 4월 22일(금) 13:00~18:00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3층 세미나실
- 주관 및 주최
이상길 교수 10주기 추모 행사 추진위원회 · 한국청동기학회
- 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 학술대회 일정

| 구 분 | 시 간 | 내 용 |
|----------------|-------------|---|
| 개회식 | 13:00~13:20 | 환영사 윤호필(한국청동기학회장) |
| | | 축 사 박천수(경북대학교 박물관장) |
| | | 환영사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장) |
| 단상정리 및 휴식(10분) | | |
| 기조강연 | 13:30~14:00 | 우행 이상길교수 10주기에 부쳐 - 발표: 임학중(전김해박물관장) |
| 제1발표 | 14:00~14:30 |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 발표: 김권중(충부고고학연구소) |
| 제2발표 | 14:30~15:00 | 청동기시대 무덤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 발표: 윤호필(상주박물관) |
| 제3발표 | 15:00~15:30 | 청동기시대 儀禮 패러다임과 연구 방향성 - 발표: 이종철(전북대학교 박물관) |
| 제4발표 | 15:30~16:00 |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 발표: 정대봉(울산문화재연구원) |
| 단상정리 및 휴식(20분) | | |
| 종합토론 | 16:20~17:50 | 좌장: 박순발(충남대학교) 토론: 배진성(부산대학교), 송영진(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발표자전원 |
| 만찬 | 18:00~ | |

목 차

기조강연

- 우행 이상길교수 10주기에 부쳐 5
임학중 전김해박물관장

제1발표

-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21
김권중 중부고고학연구소

제2발표

- 청동기시대 무덤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45
윤호필 상주박물관

제3발표

- 청동기시대 儀禮 패러다임과 연구 방향성 73
이종철 전북대학교 박물관

제4발표

-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109
정대봉 울산문화재연구원

- 종합토론 139

- 배진성 부산대학교
송영진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기조강연

우행 이상길교수
10주기에 부쳐

임학종 전김해박물관장

우행 이상길 교수 10주기에 부쳐

임학중

1. 들어가며

비전공자이고 청동기학회의 회원도 아니면서 기조 강연이라는 표제로 발표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고 우행 이상길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생전 그와의 인연이나 추억을 회상하는 자리를 부탁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회 여러 연구자의 귀한 시간을 잡아먹는 자리이니 만치 가능하면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맺지 못한 인연 들

우행 이상길과의 인연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학부를 졸업하고 모교인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경상북도 상주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할 때입니다.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유적총람』 증보를 위한 조사였습니다. 낙동강의 동서를 기준으로 각각 계명대학교박물관과 경북대학교박물관이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였습니다만 서로는 현지에서 한 번도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조사원의 막내급이었지만, 우행은 학과의 1회 입학생으로 4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이미 조사원의 실제적인 리더였기도 하거니와, 서로 조사 일정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84년에 있었습니다. 상주 지표조사 후 학교박물관에서 임시 연구원으로 잠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은사님께서 신설되는 국립진주박물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이상길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가라는 하명이었습니다. 마침 우행은 국립경주박물관의 영덕 괴시동고분 발굴에 참가하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고, 우선 혼자 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당신은 학과 1회 졸업생으로 학교에 남기로 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박물관 동기가 될 인연은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

3. 대학원 동문

발표자는 1984년 6월 25일부터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준비팀으로 일하고 그해 11월 2일 개관 후 이듬해부터 정식 발령을 받아 국립박물관 식구가 되었습니다만, 한동안 우행과의 인연은 맺

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88년 발표자가 경북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서도 우행은 군 복무 중이어서 간헐적으로 소식만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1989년 우행이 제대한 후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행은 이미 대학원을 수료한 상태였고, 고고학 공부하는 후배들을 휘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광열, 최태선, 김길식, 박천수, 홍순광, 김영화, 김창억, 이재환, 유학생인 요시이 씨 등이 당시에 만난 학우들입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후배들에게 엄한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타 학교에서 진학한 발표자에게도 늘 호의적이었고, 인류학 전공의 박경용, 설병수, 박정석 학형과의 만남도 주선하였습니다. 특히 통영 옥지도 발굴현장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학교 후배들과 방문하여서는 소주잔을 꺾지 않고 한입에 털어 넣어버리는 그 주법과 함께 밤새도록 폭주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4. 진주에서

첫 만남 후 본격적인 인연은 우행이 모교를 떠나 경남대학교박물관 연구원으로 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자리는 후배에게 물린 후였습니다. 오늘 학회의 좌장을 맡으신 박순발 선생의 후임이었습니다. 1992년입니다. 이후 경남대학교박물관의 고고학 동아리인 ‘고인돌’ 팀과는 이 유적 저 현장을 다니면서 즐거웠습니다. 이때부터 발표자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보된 1997년까지에는 창원 덕천리, 산청 목곡리, 남강댐 수몰지구의 어은1지구, 하동 목도리의 발굴조사 현장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덕천리 유적은 우행이 경남대학교박물관에 부임한 직후인 199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발굴한 유적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고고학사에 길이 남을 조사였습니다. 이상길 하면 무엇보다 먼저 떠올리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고 한병삼 선생께서 현장을 보시고는 ‘상길이가 조선시대 건물지를 지석묘의 묘역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농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1996년 은사이신 석오 윤용진교수 정년퇴임논충에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구획묘’ 라는 지석묘의 새로운 패턴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유적은 육군정비창 건설에 따른 조사였는데, 당시만 하여도 무소불위이던 국방부를 상대로 유구의 현지보존을 주장하였고, 현재도 그 자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군 장성과의 살벌한 기 싸움을 목도하면서 이상길의 투사 기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산청 목곡리유적의 발굴이 있었습니다. 1994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의사인 지인의 차를 타고 권상열 선생과 거창으로 주말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국보 제105호인 산청 범학리 석탑 출토지인 범학리에서 부리 고개를 넘어 산청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경호강으로 흘러드는 곡간을 경지정리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일대를 둘러 보았습니다. 무문토기와 대가야계 가야토기가 즐비하였습니다. 이미 경지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부지 바로 옆의 경호강에 가까운 일대를 살살이 뒤졌으나 더 이상의 유물은 없었습니다.

다. 그러나 셋장에서 흘러내려 쌓인 층적토가 두터워서 그럴 것이고, 유적이 연장될 심증이 충분하였습니다. 후에 이 구역은 반드시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창으로의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마침 그 구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청에서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근거로 발굴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표조사는 이 자리에 계신 박순발 선생께서 하였습니다. 어떤 유적은 도로 건설 구역을 벗어난다고 하고, 곡간은 복토가 되니 발굴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겨우 몇 군데의 유적만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옆질러진 물인 셈이었습니다. 도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목곡리 유적 구간에 두 곳은 한정된 범위로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물증이 없는 유적이라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경상남도에 있던 대학박물관에서는 발굴조사를 두고 서로 하여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도청 담당자가 경상남도의 일이니 우리 도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과 처음 지표 조사한 경남대학교박물관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우행에게 나는 경남대학교박물관이 목곡리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굴에 착수하고 나니 난감하였습니다. 파도 파도 유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 경작 층에서 약 5m 아래에서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목곡리 유적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최종규 선생은 한 단어 지도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攻玉!’

남강댐 수몰지구의 발굴은 일종의 연합발굴이어서 전국 각 기관에서 조사에 참가하였습니다. 경남대학교박물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차에 걸쳐 어은1지구를 맡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국립진주박물관도 발굴하게 되었으나, 나와는 인연이 또 닿지 않았습니다. 연구관 승진 시험과 중앙박물관으로의 전보 등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도 넓은 부지이기도 하거니와 지점에 따라 깊이가 달라 기관마다 조사방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때 이상길 선생은 과감하게 트렌치를 넣어 표준 층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현 강변에 연해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고, 제방 頂部에는 주거지, 제방 내사면에 대규모 밭, 제방의 안쪽에 집락이 형성된 공간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제방 정부의 주거지 주변에 야외노지, 밭의 외곽에는 무덤이 만들어져 있음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집락은 여러 개의 환호로 구분되어 있음도 밝혀내었습니다. 공간배치가 밝혀짐으로써 이후 인근의 발굴단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조사를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하였음은 부인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계기로 청동기시대 촌락의 구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대규모 밭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구획과 농경구, 농경의례 등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동 목도유적의 발굴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하였습니다. 조사 인원이 부족하여 찢찢매고 있을 때 주말이면 1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적 현장의 층위나 해석 부분을 토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즈음 경남대학교 출신의 이현석, 윤호필, 윤정희, 김미영, 조현정, 김춘영, 홍성우, 조민주, 소배경, 이선미, 강영수, 강경연, 박은지, 이지은 등의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고고학에 대한 담

론과 지역 유적에 대한 애착 등을 술안주로 삼으며 정이 깊어갈 즈음에 나는 중앙박물관으로 전보되어 우행과는 별리하였습니다만, 주말이면 봉고차를 렌트하여 남강댐 수몰지구의 발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5. 김해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박물관 근무를 마치고 김해박물관으로 오면서 다시 우행을 자주 만났습니다. 내가 서울에 근무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행은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타계한 2012년까지 우리는 많은 일에 공감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재우 교수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과 위원,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도내의 여러 유적의 현상변경과 보존 등에 힘썼습니다. 원론을 주장하여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고학 유적에만 몰두하던 우리에게 타 분야의 문화재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문화 전반에 대한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한 밀양 금천리유적이 이 시기에 한 유일한 발굴이었습니다. 경남대학교박물관은 이미 조사한 여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의 미간으로 발굴조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유적의 발굴에서도 시공사와 문화재청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셈이지만, 어은1지구나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에서 제기한 청동기시대의 농경 중 논에 대한 개념을 나름 완성하는 계기가 된 유적이 되었습니다.

우행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글을 썼습니다. 초기 농경과 취락, 장신구와 식육, 지식묘와 수장의 출현, 청동기의 매납, 청동기시대 도시론 등 논문의 주제는 꾀직하였습니다. 나와는 함안 우거리 가야토기 생산시설, 창원 봉산리 2호 지식묘, 창녕 비봉리 등의 발굴현장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고고학 실습을 명분으로 현장에 학생들을 보내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원군이 오는 주말에 제발 비가 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다 보니 주변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온 둘이서 경상남도를 다 말아먹는다.’ ‘입 아무개는 김해에 가더니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전공하는 신석기 유적만 몇 년째 발굴하고 있다.’ 등이었습니다. ‘나는 함안에서 태어났고, 밀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상남도 사람이다.’가 우행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괴로웠습니다. 물론 비봉리를 몇 년 동안 발굴하지도 않았고, 누구보다도 더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마음의 상처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신석기 공부하는 형이 대형의 가야 봉토분 발굴하면 좋겠네? 전공자가 전공유적 발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행의 그 한 마디에 나는 모든 고민을 훌훌 털고 비봉리 발굴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봉리 발굴에서는 황상일 선생님, 이정근, 송영진 등 평생 학우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우행과 남재우 교수의 요청으로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의 대학원 고고학 수업을 몇 년간 하였습니다. 장관에게 결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근무 시간 외에 수업해야 하고 주 3시간 이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지만, 늘 즐겁게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고고학뿐 아니라 詩, 世態 등에 대한 번설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한 학기에는 밤늦은 시간에 통술집에서 늦도록 술을 마시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나는 일적불음이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행복하였습니다.

보고서 미발간에 따른 페널티로 발굴허가가 나지 않으니 우행은 사직단, 여단을 비롯한 유적 지표조사에 눈을 돌린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시작된 한국전쟁 전후의 보도연맹 관련이나 민간인 학살 관련 유해발굴에 몰두하였습니다. 수해로 노출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유골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유골을 모아 간단한 위령탑을 만드는 전시행정을 탓하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에는 별도의 발굴허가가 필요하지 않았고, 대신 유족회와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살지 현지에서 발굴 조사한 인골을 학교 박물관으로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이 일로 인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괴로워하는 우행에게 나는 늘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행은 공무원은 이런 일에 표면적으로 나서지 말라며 오히려 나를 걱정하였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산청 외공리와 원리, 진주 문산 진성고개 등에서 행한 발굴조사가 모두 같은 맥락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연유도 모르고 동족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살인한 죄인도 아니고, 일부 사상이 다른 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이유는 없었다. 그 생도 보상받지 못하였다. 가장이나 오빠, 형을 잃은 가족들은 실종자의 행방도 모른 채 살았다. 반공법에 따라 평생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어디에 가서 대놓고 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한 시대를 숨죽이며 살았다. 적어도 이제는 그 실상이라도 밝혀야 할 일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원혼을 풀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008년 8월 8일 남재우 교수와 함께 우행이 발굴하고 있던 ‘경산 코발트 광산 한국전쟁 전후 인골 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역수같이 내리는 우중이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킬링필드였습니다. 두 개의 굴과 한 개의 수직갱이 있었습니다. 1굴은 100여 미터, 2굴은 180여 미터나 되었습니다. 2굴은 130여 미터에서 Y자 모양으로 갈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텅스텐 채광하던 곳인데, 곳곳에는 갭목과 배수호가 나 있었고, 1굴의 안쪽에서는 자연동굴과 연결된 듯하였습니다. 자연동굴의 벌어진 틈에는 사다리 모양으로 버팀목과 나무다리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입구가 어딘지는 몰라도 수직에 가깝게 내려오는 자연동굴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설치한 채광의 시설들로 보였습니다. 두 굴 모두 상당히 안쪽에서 수직갱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만나는 지점에는 위에서 함몰된 많은 석괴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골이 가득하였습니다. 수평굴의 곳곳에도 인골이 깔려 있으나 주 처분장은 아마 수직갱도였던 것으로

로 보였습니다.

같은 해 8월 26일에는 산청 외공리 6.25 민간인 학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왕의 여항리 조사팀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학생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상념에 젖었습니다. 몇 시간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혹, 억울 이런 말 조각이나 떠올리면서 그냥 울음도 토하지 못할 답답함이 나를 엄습하였습니다. 서둘러 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과 주저앉아 통곡하고픈 갈등 속에서 그냥 상념에 젖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나 할까요? 조사원들 주려고 들고 간 포도알 하나하나에 이제는 좀 밝혀지기를 바라는 그 억울함이 가득 고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도연맹연루자였던 죄를 지은 수감자였던 간에 이렇게 처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한 줄로 꿰어앉은 채 총알을 아끼려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쏘 죽인 정황도 보였습니다. 간단한 구덩이를 파고는 돌무더기 몇 개로 덮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현대사의 참혹함과 질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과거사와 진실의 규명을 떠나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야 하고, 후손이나 가족들의 고통과 피해도 보상하여야 할 일이라고 공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행은 유적의 보존이나 발굴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제나 호랑이의 눈으로 보는 엄격함을 견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김해 수릉원 발굴이었습니다. ‘가야의 숲’을 조성한답시고 유적을 다 발굴하지도 않고 덮는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대중에게 실상을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신문이나 언론 보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고고학회 게시판에 이의 불합리함을 올린 글은 몇 해가 지나도록 조회 건수를 경신하지 못하는 기록으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는 둘이서 공동으로 작성한 글을 모 지역신문에 보낸 글이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아 여기에라도 실어 두고 싶습니다. 현직 김해관장이던 때라 이상길의 이름으로 난 글입니다. 원래 첨부된 현장의 경과가 소상하게 있습니다만, 당시의 관계자가 아직 현직에 계시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 주문만 넣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카키색 작업복에 짙은 동여맨 신발, 배낭을 메고 지도와 나침반을 양손에 든 사람. 70년대 무장공비가 아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고고학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문화재 현장의 풍경, 특히 김해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고고학은 이제 더는 낭만적인 학문이 아니다.

지금 김해 봉황동에서는 금관가야의 문화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는 ‘가야의 숲’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일대는 수로왕릉과 대성동고분군, 봉황대 등 가야 유적이 밀집한 곳으로, 운동장 역시 그 유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1970년대 초반 운동장을 만들 때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 운동장을 옅기고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괴된 유적

의 일부분이나마 조사하고, 깎여나간 언덕을 본래 모양으로 살려서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꾼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시굴조사를 해 보니 수백 년에 걸친 가야의 역사가 그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대부분이 무덤인 이 유적은 그동안 운동장의 함성과 발길질 아래에서 천오백 년의 세월 동안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이들을 거두어 줄 차례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인공의 산을 만들어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그 위에서 김해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쉬라고 한다. 그나마 올해 2월에 이미 사업이 발주되었고, 내년에는 이곳에서 세계민속축제인가를 개최한다고 하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해시에서 10월부터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니 조사를 맡은 기관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발굴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그냥 묻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해가 어떤 곳인가? 수로왕이 붉은색 보자기에 싸여 구지봉에 내려온 곳이다. 허황후가 머나먼 항해 끝에 님을 찾아온 곳이다. 수로왕이 성과 궁궐을 지었고, 가야의 왕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가야가 시작된 곳이다. 수로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토성이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新畚坪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김해는 가락국의 왕도였으며, 전 가야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김해에 대해, 왕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제 그 시작일 뿐인데, 김해는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한 남자가 몸이 썩뽕뽕하여 병원에 갔다. 이곳저곳을 진찰해 보지만 의사는 속 시원하게 답을 내지 못한다. 심각한 얼굴로 C/T나 MRI 촬영을 권유한다. 온갖 시달림 끝에 결과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의료보험도 되지 않으니 수십만 원을 내야 하고, 병원을 나서면서 억울함에 울어야 할지 건강하다니 웃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렇다고 항변할 수도 없다. 왜? 병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문화재 발굴이 그러하다. 유적이 중요하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아야 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어도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궁금해서 기웃거리려 보지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니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다. 뭔가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왜? 문화재나 발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문화재는 이제 학자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전문가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두기는 어렵다. 문화재는 우리 온 국민의 것이다. 김해의 문화재는 김해 시민들이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김해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파괴되어 없어지는 유적의 수도 똑같이 늘어간다.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김해 지도를 보면 ‘수로왕 때 쌓은 성(首露王時 所築土城)’ 이 그려져 있다. 천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조선시대의 김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김해는 어떠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청은 과연 가야의 유적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김해 시민들은 조상들의 유적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러니 금관가야의 유적을 김해 사람들이 다 망친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금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은 아니다. 우리는 것을 잠시 맡았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문화재로 인한 조그마한 불편은 참아야 한다. 그래서 김해시가 ‘가야의 숲 조성공사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28일) 공설운동장에서는 부채와 칠기, 칼 등이 출토된 오래된 무덤 하나를 공개한다고 한다. 1~2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니, 『삼국유사』의 기록대로라면 수로왕 당시이다. 더구나 범상치 않은 유물들로 보아 그 당시 최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 묻혔던 곳이다. 아홉 천장(九千) 중의 한 사람이거나, 허황후를 따라왔던 천부경 申輔나 종정감 趙匡의 무덤일 수도 있다. 거센 포크레인의 발톱 아래에서 살아남은 걸 보면 아무튼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모두 잠시 일손을 놓고 그 무덤을 보러 갑시다. 그러나 단순한 흥밋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김해 사람들의 조상 아닙니까?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참배합시다. 그리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학자는 학자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가서 그분께 약속합시다. 물려주신 모든 것을 잘 지켰다가 후손에게 물려주겠노라고. 저도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길, 김해신문, 2004년 10월)

이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공청회에서 발굴조사기관의 난립에 대하여서도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불합리와 졸속 발굴에 대해서는 온갖 총대를 메고 투쟁하였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위위원으로 활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전국의 학자들에게 전화하고, 찾아다니며 4대강 사업의 졸속을 저지하려고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였고, 선뜻 서명하여 주는 동료도 없었습니다. 얻은 것 하나 없이 허탈해하는 모습은 처연하였습니다. 공무원이어서 안 되고, 국립대학 교수여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단 두 분이 끝까지 서명하여 주셨다고 하였을 때는 거의 탈진한 채 나를 만나 하소연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있었던 김해 구산동 유적의 발굴 시에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위원이었습니다. 정정원, 임효택 선생님과 함께 전 과정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길 건너편 김해박물관에 있던 나도 늘 함께 현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드디어 2008년 1월에 1차 발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문토기 말기의 주거지와 점토대토기 혹은 야요이계토기의 문체와 지석묘의 시기, 양자의 상관관계 등이 연구성과 혹은 연구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작게는 무문토기시대의 난방시설인 ‘점토고래’의 제기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난감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늦게 시작한 평지의 지석묘 조사는 매장주체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350여 톤 이상이 되는 상석과 남아있는 묘역이 85m나 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국도 바로 옆에 5m 이상을 파 안전의 위험

이 있었고, 택지 조성의 공정도 급하였습니다. 우선 발굴을 종료하되 해당 구역은 모두 김해시에 기부한 후, 후일 매장주체부를 다시 조사하고, 묘역의 복원과 공원화, 국가 사적 지정 등의 순을 밝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유적은 우행이 처음 제기하였던 ‘구획묘’ 혹은 ‘묘역식’의 지식묘로, 나와는 늘 현장에서 이런 형식 지식묘의 하한이 더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지식묘의 조영 집단이 철기를 인지하였거나 가지고 있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사 중단 후 우선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15년여가 흐른 2021년 매장주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복원, 정비와 사적 지정 신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 시점마다 정정원 선생님께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는 경남고고학연구소의 김해 율하 발굴과 구산동 지식묘 발굴, 김해박물관의 봉산리 지식묘 발굴 등이 서로 겹쳐 사흘이 멀다고 만났습니다. 이해 봄 우행에게 보낸 이 메일이 있어 좋습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형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늘 감사하다고 하였지만, 내가 형에게 더 감사합니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형을 더 사랑합니다.

春雨細不滴，夜中微有聲，雪盡南溪漲，草芽多少生
圃隱의 ‘春興’을 다시 읽은 것이 아마 지난해 이맘때 같습니다.
어렵게 말하여 이때쯤 오는 비를 膏雨라 하여도 될 듯합니다.
풀싹이 더러 났을까? 라며 자적하던 圃隱의 싯구에는
제목처럼 春興이 아니라
무서운 경계심이 숨어있는 것 같아 새삼스럽습니다.

하루가 너무나 힘들어 단순한 춘곤증이 아니라 병이 아닌가도 걱정입니다만,
곧 있을 인사와 우리 기관의 변화 방향을 지나치게 걱정한 탓인가 자위합니다.
형도 너무 바쁘지만 말고, 여유를 가지며 생활하였으면 합니다.

내일이면 만나는데 왜 이리 기다려지는지?
아마도 내가 형을 사랑하고 있는가 봅니다.
방울지지 않는 봄비 한 자락과 구지봉 새싹의 생동감을 담아 보냅니다.

2008.3.19., 雲門 拜

6. 다시 진주에서

나는 2010년까지 김해박물관에 있다가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났지만, 병이 나 잠시 휴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진주박물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행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내가 병이 나서 앞가림하느라 신경을 써 주지 못하여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 깊은 회한에 빠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벗을 잃고 四十九日齋 때 추모사를 하였고, 1주기 때에도 추모사를 하였습니다. 3년 뒤 추모논집의 편집후기도 썼습니다. 황망하였지만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추모사를 하여야 하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의 두 글과, 우행을 생각하며 만든 흥도와 채도를 실습니다. 부디 영면하길 바랍니다.

牛行 李相吉 教授를 보내며

‘牧丹은 하필 뚝뚝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더이다.
당신은 그렇게 우리를 떠나고 싶었던 모양이외다.
新綠의 꿈은 어떡하고,
‘떨어져 누워 시드시는가?’
어디 그리 바빠 가시는가?
큰 나무 되어 쉴 그늘 만들자더니
九孔炭 煙氣처럼 慌忙히 타버리셨는가?

한갓 기러기 낱에도 앞뒤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순서도 모르시는가?
아!
어떻게 할까?
舞鶴山에서 춤을 추게 해줄까?
南海 바닷가의 모래알이 되게 해줄까?

진이와 민이가 눈에 밝히지도 않으시던가?
西安 旅行 다시 하자던 약속은 왜 지키지 않으시는가?
그날, 저녁 먹기로 한 시간은 잊어버리셨는가?
縣洞 고개 넘어 平居洞 오던 길에
餘航 貯水池 한 권이 그렇게도 좋으시던가?

大坪과 鳳山里, 茶戶里에서의 熱情은
그냥 내 가슴에 묻으라구요?
밀린 報告書의 무게가 그리도 무거우시던가?

달랑 한 줄

‘좀 더 眞率하게 살고 싶었다’ 구요?

몸뚱이 불태우던 날에도,
몇 줌 빼 묻던 날에도
그렇게 悽然히 비가 내리더니
저 밝은 世上으로 떠나는 오늘
이제야 五月의 햇살이 내리는구려.

내 목이 막혀 차마 알량한 이 노래 다 부르지 못하면
벗아!
相吉아!
벌떡 일어나
이 노래를 마저 불러주시게.
그리고 이제는
飛鳳里 배 타고 떠나시게.
琴川里 논둑 물 펴 담아
옥현들에서 쌀농사를 지으시게.
그러다 틈나면
德川里 고인돌 우에 올라가
못다 분 大笊이나 마저 부시게.

지금은 鬼神이 된 몸.
좁은 研究室에서 두 봉지나 넣어주던 커피도
이젠 더 마실 수 없구려.
영남식당 도다리 축국과 해물탕은
더 사주지 않아도 투정하지 않겠네.
貝塚 나돌며 黑曜石 줍던 弟子들은 내가 데리고 다님세.
카키색 점퍼에 地圖와 寫眞機를 메고 다니다가
派出所 잡혀 있던 일은
이제 그만하여도 되시겠네.

突帶文土器와 默谷里 玉,
區劃墓와 눈에 대한 글들은
모두 당신 생각이 옳다고 믿네.
餘航山에서 시작하여 慶山 텅스톤 鑛山을 거치시었던가?
文山과 外公里까지 갔었지 아마.
육이오 民間人 虐殺에 대한 認識에는 내가 同感해주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부족하시던가?

四大江 正義에 단 두 사람만 贊同하여 외로우셨는가?
모두 당신의 울곧음과 慧眼을 기억할 것이니 서러워 마시게.

우리 대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가?

- ‘형! 대나무는 늘 푸르러야 하잖아요?’
- ‘바람에 휘 때도 있지요.’
- ‘그렇지만 부러지지는 않잖아?’
- ‘대쪽처럼 쪼개지기도 하지.’

‘그래서 마디가 있는 거니 이쯤에서 매듭을 지으세.’

선문답이 너무 매몰차서 늘 한 것처럼 그렇게
쪼개지고 매듭지으셨는가?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소처럼 행하자’ 고 하여 놓고,
‘남에게는 부드럽게,
나에게는 엄하게’ 살자고 해놓고,
‘모든 것 받아들이는 큰 바다가 되자’ 고 해놓고.

구름에 띄우고, 물에 흘러보내니
그렇게 유유히 가시게만
여기 三江 掘門 뜰에 돌 하나 세워
해마다 우리는
당신을 記憶하려 함이니
모든 것 다 잊고
부디 편히 쉬소서.

이천 십이 년 윤삼월 스무엿새 雲門 曇掌

牛行 1週忌에 부쳐

어젯밤 예쁜 반달이 떴더군.
오는 듯 가버리는 봄처럼
자네가 떠난 지 벌써 일 년이 되었네.
우리는 오늘도 애증에 열을 내고
잇속과 손실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자네는 이제 편안하신가?

수백 개의 초록처럼
우리 모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네.

선생님 같은 중규 형은 여전히 모두에게 어려운 분이네.
나만큼 편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기는 하겠지만
자네가 가고 난 다음부터 너무 힘들어하시니 나도 뵈기가 쉽지 않네.
늘 발에 나가 전기톱 기계음으로 공황을 삭이신다고 하네.

자네들 후배는 여전히 학회를 주름잡고 다니고들 있네.
그렇지만 누구라도 큰 형인 자네의 부재를 아쉬워할 걸세.
언제나 엄하게 대했던 자네 제자들은
부모 잃은 고아마냥 아직은 측은해 보이네.
그래도 끼리끼리 모여서 열심히들 하여
자네가 그렇게 육을 먹었던 德川里와 黥谷里 보고서를 내었다네.
자네의 유고가 되고만 글이네.
은, 연, 현, 희 등은 학위 논문을 썼네. 축하해 주시게.
이제 남은 옥현과 대평, 금천리 등도 잘 정리될 터이니 그리 아시게.

나는 이 현장과 저 유적을 기웃거리려 보지만
그 어디에도 자네가 없어 신이 나지 않네.
도청 회의에 가도 자네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네.
내가 하는 일마다 언제나 진지한 동무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 편잔이 되기도 하였고,
뜬금없는 칭찬은 동의로 받아들여졌었네.
지지부진하던 흥도를 만들면서 자네 생각을 많이 하였네.
안료를 잘 찾아내고 발색이 좋게 하여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네.
어은 1지구 85호 주거지에서 나온 와인 잔은 그래서 두 점이나 만들었네.
그 잔으로 자네와 축배를 들고 싶었네.
자네가 그렇게도 이뻐하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네 이야기를 아직 하지 못하였네. 차마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네.
중학교 입학할 때 사준 콘사이즈와
중국과 몽골에 갔다 오면서 선물한 채도와 기념품은 아직도 가지고들 있네.

남재우 교수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일세.
창녕을 가든, 회의를 하든
그 빠른 말투 속에는 자네 없음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난다네.

자네가 가고 난 다음부터 퍼머먼트를 하였네.
 자네의 그 곱슬머리를 흉내내었는데 어쩐가?
 그동안 거의 두문불출하였네만
 무작정 이려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
 다시 열심히 살아감세. 약속한 대로 제자들도 가끔 둘러봄세.

사대강은 고집대로 다 되었네.
 북핵이니 진주의료원 사태니 세상 돌아가는 걸 봤다면
 또 육두문자가 나왔겠지만,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다행이네.
 오늘 여러 후배와 동학, 제자들이 모였네.
 다들 바쁘지만 마다하지 않고 걸음을 하였네.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네.
 차츰 자네를 잇을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늘 자네가 자리 잡고 있네.

덕천리와 목곡리 보고서,
 그리고 못난 홍도 책을 앞에 두고
 나하고 담배나 한 대 피웁세.
 내년에 또 봄세

2013.4.20. 雲門 書



가지무니토기 재현품



홍도 재현품(어은1지구 85호주거지 출토)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제1발표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김권중 중부고고학연구소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I. 머리말

취락은 인간의 생활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로 넓은 의미로는 가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거주형태 전반을 말한다(국립국어원 1999). 취락의 개념이 가옥의 집합체로 해석하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가옥뿐만 아니라 주거와 연관된 모든 유구들이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추연식 1997, 49쪽)으로 전환되었다.

고고학에서 취락은 인간의 남긴 물질문화의 총체적 산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락연구는 고고학연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취락자료의 증가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의 개별주거 연구에서 취락연구로 전환하여 유형별, 시기별, 지역별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이 제시되고 많은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취락자료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도 많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그간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보고 중요 연구성과와 전환점을 검토한다. 또한 여러 논쟁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흐름과 전환점

1.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시작과 방향

취락고고학이 미국에서 1950년대에 등장한 이래 국내에서는 ‘Settlement Archaeology’를 취락고고학으로 해석하면서 시작되었다(이송래 1989, 110p; 추연식 1994, 78p). 1970년대 전반 여주 혼암리, 1970년대 후반 부여 송국리와 1990년대 초 울산 검단리, 하남 미사리 등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취락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1980년대 이전에는 주거의 개별적 특성을 연구하는 ‘点’ 발굴에서 1980년대 후반 들어

‘面’ 발굴로 인해 취락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천안 백석동,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진주 대평리(옥방), 대구 동천동, 화천 용암리 등의 취락유적 조사로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김권구 2014).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4년 개최된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마을의 고고학’이란 주제(한국고고학회 1994)로 다루어 졌지만, 당시에는 선사시대 주거지 현황을 검토한 내용(이건무 1994)에 불과하였고, 취락고고학의 세계사적 연구경향을 소개(추연식 1994)하면서 취락고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日人학자의 연구(後藤直 1995)가 있었지만 취락의 입지유형에 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을 뿐이었다. 국내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안재호에 의해 시작되었다. 안재호(1996)는 혼암리, 관산리, 미사리, 송국리, 검단리 등을 대상으로 취락의 구조와 변천에 대해 검토하고, 취락의 변천을 가족 구성의 변화과정이며, 취락공동체의 성장과정으로 보는 사회적 계층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안재호의 연구는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선구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후 취락의 입지에 따라 농경의 형태를 분류하고 시기별 변화상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안재호 2000). 그의 연구는 ‘취락의 구조를 통한 집단의 성격과 취락간의 관계를 통한 사회의 복원’이 목적이었으며, 이후 일련의 논고(안재호 2001, 2004, 2006)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기 영남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주목되는 성과로 김권구(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권구는 생업과 사회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취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종 해외이론과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생업조직과 사회조직, 인구추정, 의례와 성, 분배와 소비, 저장과 교환 등 취락연구의 다양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후 보다 체계화된 청동기시대 취락고고학 연구(김범철 2005, 2006; 송만영 2001, 2006; 이형원 2009)로 이어졌다.

한편 이른 시기부터 환호취락에 관한 연구(정한덕 1995; 이성주 1998, 2007; 배덕환 2000; 김권구 2012)가 지속된 것도 특징이다. 검단리 환호를 비롯하여 여러 유적의 환호 조사를 계기로 이와 관련한 취락연구가 큰 틀을 이루게 되었다.

취락연구는 2000년대까지 송국리문화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취락 간의 위계 및 기능분화(김범철 2005; 이홍중 2007; 김장석 2007; 고민정 2010), 저장체계의 변화(김장석 2008), 취락 간의 갈등과 가구 간의 계층성(김범철 2006), 취락 내 의례와 상징체계(김종일 2004)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2010년대에는 송국리문화에 집중되었던 연구에서 2010년대 이후에 지역별로 점차 확대되었다.

취락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는 2007년 한국청동기학회의 창립이다. 청동기시대 전반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취락연구도 이를 계기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취락 관련 박사학위는 6건으로 주로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2010년 이후 12건이 작성되어 지역별, 시기별, 유형별로 취락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¹⁾.

2. 취락연구의 몇 가지 주요 흐름

청동기시대 취락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흐름을 보인 것은 취락의 구조론적 접근이었다. 주로 취락의 성격과 기능의 검토를 통한 내외적 위계의 파악이 주요내용으로, 집단의 성격과 취락 간의 관계를 통한 사회의 복원 추구(安在皓 1996), 취락의 구조 변화 추적(안재호 2001, 2004; 송만영 2001), 취락의 계층화(송만영 1997, 2001, 2006), 취락의 사회조직 연구(이형원 2009) 등이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재호(2004, 2006)는 송국리단계 유적의 범위와 유구의 조합상을 기준으로 각 취락을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분업체계를 상정, 송국리단계에 중핵취락이 탄생하고,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계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취락 간에 분업적 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취락 간 분업화 과정을 유력개인의 등장과 결부시켰고, 취락구조론을 통하여 국가로의 발전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송만영(2001, 2006)은 취락의 형성 과정과 구조를 중심으로 취락의 위계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였고, 송국리단계에 지역공동체(읍락)이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존연구와 달리 취락의 단기적이고 단절적인 모습이 아닌 분묘군-황석리지석묘군과 연계하여 취락의 장기지속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이형원(2009)은 취락 공간구조의 분석을 통한 사회조직과 집단 간의 관계, 주거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분묘, 환호, 농경지는 물론 하천 등 자연경관과의 관계, 취락 간 서열화를 연구

-
- 1) 金權九, 2003, 「青銅器時代 嶺南地域의 生業과 社會」,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申相孝, 2007, 「韓國 西南部地域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庄田愼矢, 2007, 「南韓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亨源, 2009, 「韓國 青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宋滿榮, 2010, 「韓半島 中部地域 聚落的 發展과 政治體의 成長-青銅器時代~漢城百濟期를 中心으로-」,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吳圭珍, 2011, 「曲橋川流域 驛三洞類型 聚落 研究-自然科學的 分析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奎正, 2013,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慶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公民규, 2013, 「青銅器時代 前期 錦江流域 聚落 研究」, 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羅建柱, 2013,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的 成長과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韓半島 中西部地方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許義行,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朴榮九, 2015,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宗哲, 2015, 「松菊里型文化的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김현준, 2017,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俞炳珠, 2019, 「嶺南地域 松菊里文化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高旻廷, 2020, 「南江流域 青銅器時代 聚落과 生業」,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權中, 2020, 「嶺西地域 青銅器時代 文化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하였다. 특히 취락과 분묘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취락의 구조론적 연구 대부분은 주거의 규모와 입지, 공간구조가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론을 통해 청동기시대 ‘도시론’ (이상길 2002)과 계층구조를 통한 ‘國’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을 주장(배진성 2006)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취락 구조론은 취락 간 네트워크 연구로 이어진다. 초기에는 취락 간 네트워크를 위계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김장석 2008; 이형원 2009). 2009년 청동기학회(취락분과) 주최로 지역별 취락 네트워크(한국청동기학회 2009)를 다루면서 취락 네트워크 연구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다수의 연구자가 네트워크 형태와 관계를 분석하고 모델화도 시도하였다(박영구 2013; 이형원 2014; 이종철 2015; 유병록 2019; 김권중 2020).

취락연구에서 생산과 소비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초기에는 취락의 입지조건을 통한 생업(김현준 1997), 영남지역 생업(김권구 2003; 김도현 2005)과 같이 자료의 부족으로 생업과 관련한 생산적측면에서 주로 검토되었다. 취락의 생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庄田愼矢(2007)는 토기와 옥 생산을 중심으로 하였고 농업생산과 석기 및 청동기생산도 대략적 검토하였다. 남강유역 중심취락(대평리유적)에서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수공업 생산체계의 특징의 검토(고민정 · Martin T Bale 2008)도 있었지만, 취락의 소비적 관점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하였다. 이후 제7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한국청동기학회 2013)에서 취락과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접근에 이르기 시작하였다. 간략하지만 영서지역 취락유형별 검토(김권중 2020)도 이루어졌다. 생산과 소비의 주요 논쟁은 전기에서 중기의 주거 변화(소형화)를 통한 가족 또는 세대(공동체) 단위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접근하는 것이었다(안재호 1996, 2006; 이홍중 2005). 한편 생산적 관점에서 가구고고학적 접근(김범철 2006, 2012)도 주목되는데 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가구 간 빈부차와 위계를 분석하거나, 분배와 소비의 양태에 대해서도 접근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도 주목된다. 기존 청동기시대 주거의 인구(수)를 다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인구변동에 따른 인구분산과 인구집중의 문제로 다루었다(김장석 2003, 2007; 황재훈 2009). 2010년대부터는 절대연대를 활용하여 인구변동에 관해 좀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였다(황재훈 2014; 황재훈 · 양혜민 2015; 김세진 2021; 오용제 · 매튜 콘테 2021).

2000년대부터 경관고고학(Landscape archaeology)적 측면도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접근은 이홍중(2003)에 의해 충남지역 송국리형 취락의 농경지 입지유형에 따라 농업경관을 검토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경관고고학의 본격적인 계기는 김종일(2005)에 의해서 학사적 배경과 이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서구이론 소개, 중기 환호취락을 경관고고학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다. 청동기시대 공간과 경관에 관한 단행본(김선우 2016)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경관고고학과 관련하여 자연과학적 분석방법을 이용

한 검토도 있었다.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고지형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이홍중·손준호 2012)이 적용되어 층적지 취락의 지형환경을 복원하고, 지리학과 자연과학(통계분석)에 의한 고고학적 접근으로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강동석 2018, 2020)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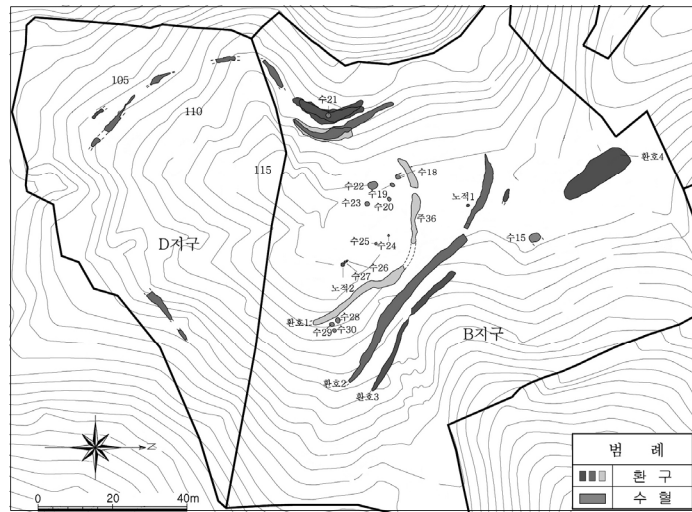
Ⅲ.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문제점과 논쟁

본장에서는 그간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논쟁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취락의 공간적 범위

취락의 공간적 범위는 일차적으로 거주역과 그 주변을 둘러싼 지형경관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자원의 개척영역(Site Exploitation Territory)을 포함(추연식 1997, pp.33~37)하게 되면 더 넓은 취락의 영역이 설정될 수 있다(공민규 2013)고 한다. 또한 단순한 공간 대신, 인간주체의 사회적·상징적 행위와 관련하여 의미화된 장소나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적 실체나 집이나 경작지와 같은 인공적 실체를 포함하는 가시적 경관을 고고학의 연구주제로 삼는 경관고고학의 관점(김종일 2006)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형원 2021)과 같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결국 공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취락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확인가능한 취락은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수렵이나 채집의 공간과 같이 취락에서 원거리를 둔 경우에는 취락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일정 거리를 둔 곳에 복수의 취락이 하나의 분묘군(적락동, 진동 등)이나 환구(동학산, 정문리 등)를 조성한 경우에는 취락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될까. 특히 가시적 범위에 있지 않다면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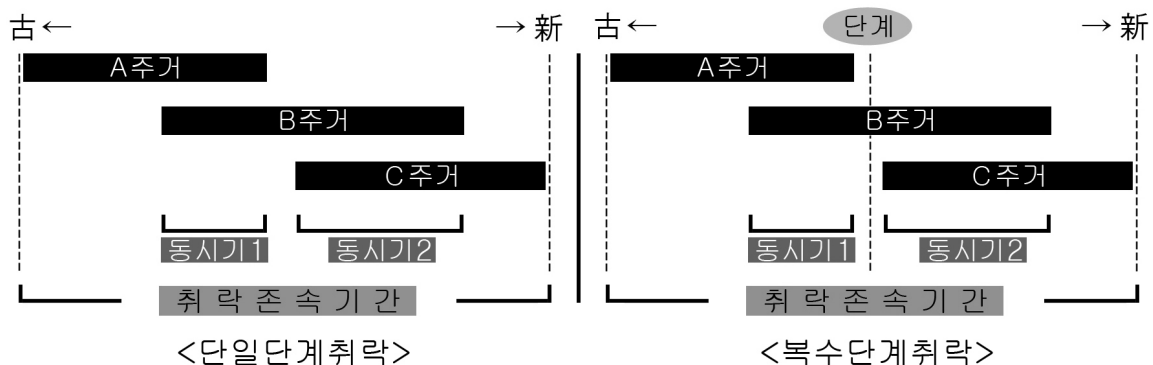
〈그림 1〉 화성 동학산유적 점토대토기단계의 환구

결국 취락의 고고학적 공간범위는 증명하기 어려운 관념적, 관계적 범위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경관적 해석과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좁게 본다면 일상적인 라이프사이클의 범위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2. 취락의 동시기(共時性)

취락연구에서 취락의 구조나 취락 간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기본전제인 취락의 동시기(共時性)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고(송만영 2001), 항상 지적되어 왔지만 취락자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개별주거와 취락의 존속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해석을 위한 목적론적 접근경향이 다반사였다. 취락자료에서 확인되는 주거의 배치는 일정한 시점의 분포상이기 보다는 여러 시간대의 분포 양상이 누적된 것에 가깝다(송만영 2010). 그러므로 실제보다 최대치로 설명되고 과장되게 해석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취락의 동시기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취락의 존속시기는 어느 지점에 최초의 주거가 조성된 이후 많은 주거가 存廢를 반복하고, 최후의 주거가 폐기되는 시점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할 것이다. 주거의 존속기간은 다양할 것이고 개별주거의 존속시기와 취락의 존속시기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취락은 더욱 그럴 것이다. 취락은 편년상의 구분 없이 한 단계에만 존속한 단일단계의 취락이 있고, 두 단계 이상 존속한 복수단계의 취락도 있을 것이다. 이때 취락의 동시기 해석은 차이가 있다.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단일단계 취락에서는 시간대가 다른 복수-동시기 1과 2가 존재하지만 취락의 동시기는 고고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단계가 구분되는 복수단계취락에서 두 동시기-1과 2는 고고학적으로 구분될 것이다. 만약 양 취락의 존속기간이 동일하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고고학적인 동시기의 해석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시기의 해석은 취락의 편년에 따라 유동적이게 되는 것이다. 취락이 장기지속적이라면 동시기의 구분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 취락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를 감안하면 동시기 해석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없이 존재하는 동시기와 고고학적 동시기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결국 세밀하고 정치한 편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기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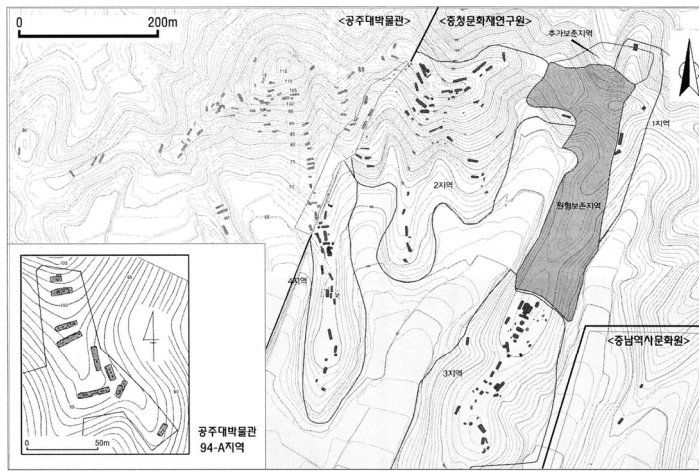
<그림 2> 취락의 존속기간과 동시기의 해석

3. 취락의 존속기간과 정주성, 장기지속성, 반복점유

취락의 편년작업으로 단계가 설정되면 취락의 존속기간에 대한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왔다. 취락의 존속기간에 따라 정주성과 장기지속성이 설명되고 반복점유의 문제가 개입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定住’의 사전적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자리를 잡고 삶’이란 의미이다(국립국어원 1999). 정주취락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김권구·공민규 2014)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정주의 개념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정주성을 장기지속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또한 반복점유도 장기지속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도 한다(공민규 2013). 정주성과 상반된 개념은 移動性일 것이다. 가령 반복점유가 이동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정주성과 장기지속성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장기지속성에 반복점유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취락일수록 장기지속성이 있는 취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취락의 장기지속성(장기존속)은 중심취락의 상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안재호 2009; 공민규 2013)로도 보기 때문에 장기지속성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대규모 취락은 다수의 중첩사례가 확인되고 취락의 사용이 단절적인지, 지속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편년상으로 복수의 단계가 설정된다면 구분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주성과 장기지속성, 반복점유의 상관관계는 개념의 정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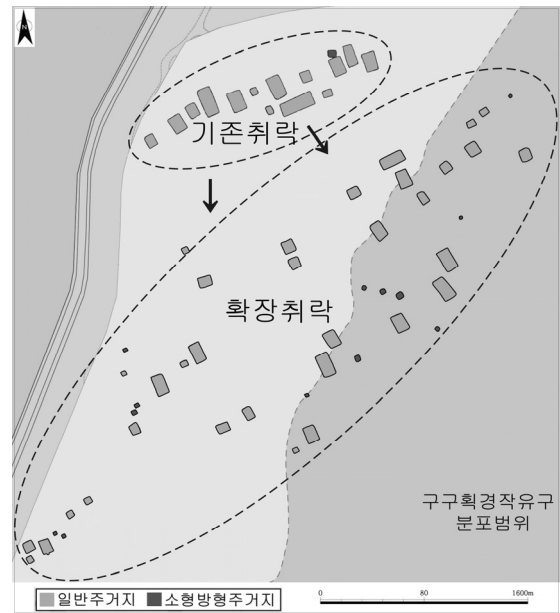
그러면 정주취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분묘의 존재는 정주성의 중요 속성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속성임에는 틀림없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령 아산만 일대 전기의 대표적인 대규모취락인 천안 백석동유적은 200여 기의 주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백석동취락에 대해 이동이 빈번한 화전농경을 주요 생계원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형원 2010)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취락이 이동이 빈번하였다는 견해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분묘의 경우 구조를 갖추고 지하나 지상에 매장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의 장례 방식이나 습속-예를 들면 水葬, 鳥葬, 樹上葬 등과 같은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묘를 정주취락의 절대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림 3> 천안 백석동취락 유구분포도(이형원 2009 인용)

또한 백석동취락에 대해 이동이 빈번한 화전농경을 주요 생계원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형원 2010)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취락이 이동이 빈번하였다는 견해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분묘의 경우 구조를 갖추고 지하나 지상에 매장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의 장례 방식이나 습속-예를 들면 水葬, 鳥葬, 樹上葬 등과 같은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묘를 정주취락의 절대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중도동유적의 조기(또는 전기전반)의 취락은 확장되었을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김권중 2020; 박영구 2022)하고, 이들 취락과 관련된 경작지-구구획경작유구가 넓게 분포한다. 그러나 중도동취락은 장기지속성이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묘의 존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묘도 정주성을 증명하는 척도이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작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분묘나 경작지뿐만 아니라 장기저장시설, 환호, 대규모 고상가옥, 의례시설, 각종 기념물의 사용기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4> 춘천 중도동취락 돌대문토기단계 유구분포도

4. 취락의 성격과 위계, 중심취락

취락연구에서 구조론적 접근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취락의 규모와 구성 또는 구조에 따라 기능과 성격이 결정되고 사회구조나 위계와 경관, 취락 간 관계까지도 검토되었다. 주로 취락의 규모에 따른 大小의 구분과 여러 요소들의 기능-주거, 분묘, 저장, 생산, 작업, 의례 등과 구성에 따라 취락의 성격이 결정되었다(이홍중 2005; 배덕환 2005; 이형원 2009; 송만영 2001; 이수홍 2012; 김권중 2020).

초기의 취락연구는 취락 내의 위계에 관해 초점을 두고 주거의 규모와 입지가 위계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상당수 제기되었다. 또한 취락은 여러 단위의 주거군이 결집하여 이루어지며 주거군 내에 위계뿐만 아니라 주거군 사이에서도 위계가 있다는 설명을 한다. 그러나 (초)대형주거의 입지상의 상대적 우월성을 제외하면 증명되지 못한다. 또한 유력 개인 내지 집단의 거처도 분명하지 않다. 주거군 사이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취락의 성격은 곧바로 취락의 위계 문제로 전환되는데 송만영(2006)은 취락의 위계는 일반적으로 취락의 기능 내지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계화가 발달한 취락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중심취락²⁾은 거점취락, 중핵취락과 상위취락, 대규모 또는 대형취락, 모촌취락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의미로 보인다. 이에 상대적인 용어는 일반취락, 하위취락, 주변취락, 위성취락, 배후취락 등이다. 취락의 위계를 대형취락-중형취락-소형

2) 본 글에서 편의상 중심취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심, 거점, 중핵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中心 : 사물의 한가운데가 되는 곳

據點 :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中核 : 사물의 중심에 있어 조직 형성에 중요한 부분

취락(송만영 2006), 최상위중심지-하위중심지-일반부락(김범철 2005), 거점취락-대취락-소취락(안재호 2006), 상위취락-중위취락-일반취락(이형원 2009)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안재호(2004)는 취락의 분업화에 주목하여 장의중심취락(오석리), 저장중심취락(대흥리), 경작중심취락(원북리) 등과 이들이 모여 있는 분업적 복합형 취락(관창리)을 유형화하여 취락의 발전과정과 위계관계를 논하였다. 김장석(2008)도 취락의 분화를 강조하지만, 소비전문유적, 저장전문유적, 일반유적으로 삼분하여 송국리와 같이 저장시설을 갖지 않는 소비전문유적을 최상위취락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청동기시대의 취락체계(강동석 2018 인용)

| 구분 | 안재호 | 김범철 | 김장석 | 이형원 | 송만영 | 이종철 |
|------|----------|--------|--------|----------|----------|------|
| 기준 | 기능 | 규모(면적) | 기능(저장) | 구성(기능공간) | 규모(주거지수) | 기능 |
| 취락체계 | 복합형취락 | 상위중심지 | 소비전문유적 | 상위취락 | 대형취락 | 거점취락 |
| | 묘사저장관리취락 | 하위중심지 | 저장전문유적 | 중위취락 | 중형취락 | |
| | 농업생산취락 | 일반부락 | 일반유적 | 일반취락 | 소형취락 | 일반유적 |

한편 연구자에 따라 중심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안재호(2009)는 거점취락의 조건을 대규모, 장기존속, 다양한 유구, 다종다양의 유물, 묘지나 제사유구, 구심적구조, 대형 고상창고, 물류 또는 수요의 중심지로 보고, 대규모, 장기존속, 다양한 유구의 3가지 요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대형의 고상창고는 후기-송국리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길(2011)은 중심취락(거점취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취락의 규모(인구집중), 방어시설(환호, 목책), 수장의 거관, 공방의 존재, 창고(저장시설), 신전(의례공간, 종교시설물), 장거리 교역과 시장, 지배자층의 거대분묘 등을 들었다.

공민규(2013)는 대규모 취락, 잉여생산물의 보관을 위한 굴립주건물의 축조, 대형 분묘를 포함한 위계화된 분묘(군), 교역과 교류의 중심지, 청동기 등 위세품의 존재, 수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력개인 또는 유력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존재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①취락의 장기존속성 ②취락의 광역성 ③동일한 단계에 해당되는 다수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복수 주거군의 존재 ④외래계문물의 존재 ⑤주변환경을 포함한 지리적 위치 등으로 요약된다. 셋 이상의 요소가 반영된 취락을 금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중심취락으로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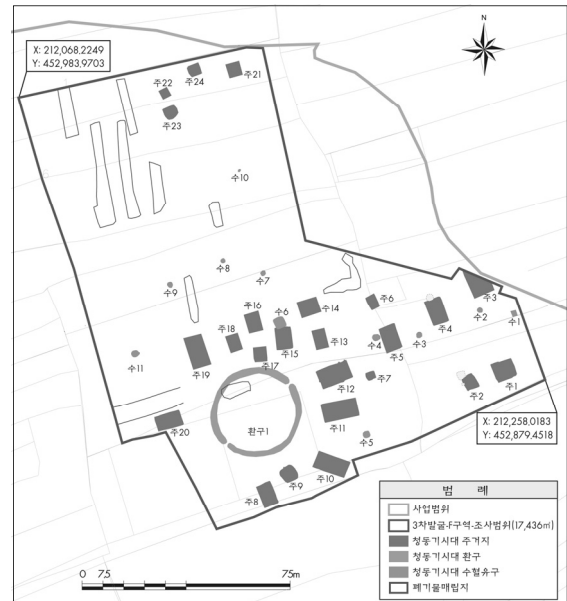
이형원(2009)은 주거공간을 비롯하여 저장공간, 분묘공간, 전업적 수공업 생산공간, 의례공간으로 이루어진 취락을 ‘상위취락’이라 표현한 바가 있으며, 가장 높은 위계의 대형취락, 최상위중심지, 거점취락, 상위취락 등이 중심취락을 구성하는 핵심 공간이 되며, 나머지는 주변취락에 해당할 것으로 보았다.

이수홍(2008) 유적의 규모나 주거지의 숫자보다는 대형굴립주, 무덤군, 위세품을 보유한 유

적에 환호를 추가하여 거점취락으로 보았다. 최근 중심취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환호 및 목책과 같은 대규모 기념물적 구축물이나 지식묘와 같은 분묘로서의 거석기념물, 그리고 공공의례 건물의 존재에 주목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이형원 2021).

이와 같이 중심취락을 구성하는 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용어는 물론 개념이나 기준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심취락의 개념이나 기준 설명에 집중되어 있어 이하 등급의 취락은 설명이 없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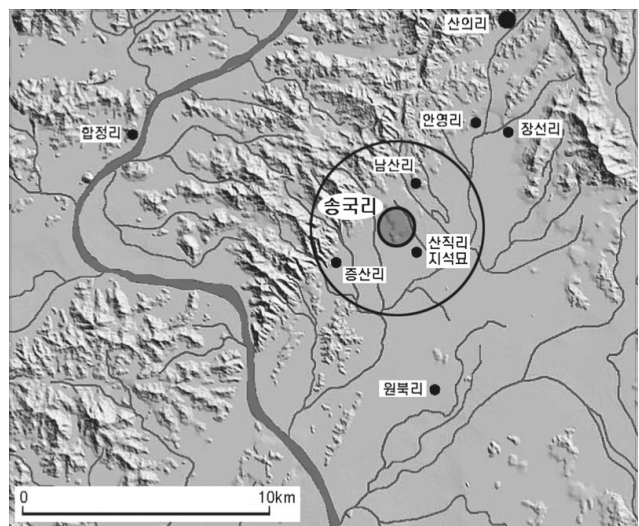
기존 중심취락의 기준은 대부분 송국리단계의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준을 적용한다면 구리 토평동취락의 성격은 모호해진다. 토평동취락(F지구)은 환구, 주거(23기), 수혈(11기)로 구성된 초기 후반 또는 전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이 시기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취락이다.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심취락이 아닌 특수취락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심취락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시기별로 중심취락의 기준은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5〉 구리 토평동취락 유구배치도

5. 취락 간 네트워크

취락 내부의 사회구조를 살피는 것과 취락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집단의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이형원 2021). 취락 간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일정한 공간적 분포범위에 취락의 존재가 확인되면 적정한 관계망(연계망)을 형성하였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중심취락을 설정하고 일반취락과의 위계에 따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송국리와 주변지역 저장전문유적과의 관계를 종속적 상하관계로 이해(김장석 2008)였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 견지에서 원거리 취락-원북리, 안영리 새터, 상의리 등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호혜적인 간접관계로 이해(이형원 2009, 2014)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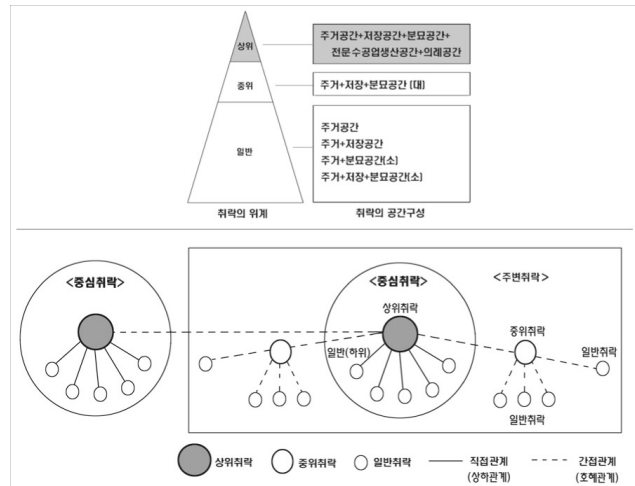
〈그림 6〉 부여 송국리 중심취락과 주변유적(이형원 2021 인용)

였다. 종속적 관계가 아닌 다양한 관계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종속적 관계는 물론, 호혜적인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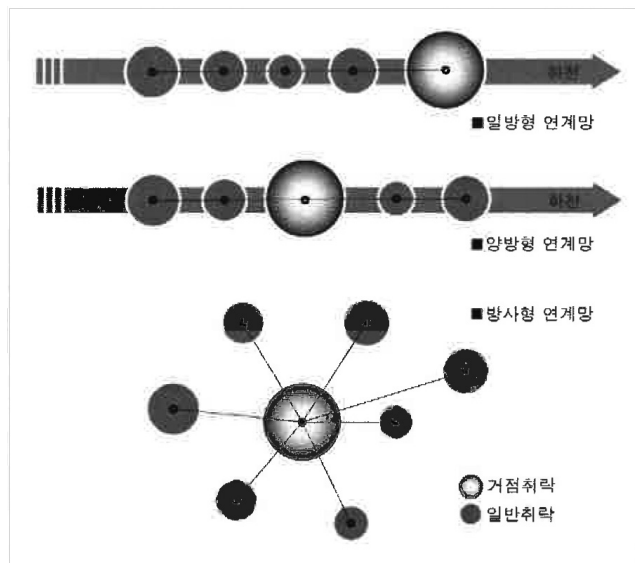
취락 간 네트워크의 설명을 위한 모델화의 대표적 연구자인 이형원(2009, 2014)은 취락의 위계를 상위, 중위, 일반취락으로 구분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취락들 간에는 긴밀한 교류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강한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공동의 의례행위가 송국리와 같은 중심취락에서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비록 구체적 검증이 부족한 추정의 차원이 강하지만, 취락 간 네트워크의 설명에 진일보한 결과이다.

또 다른 송국리형취락 연계망의 형태로 지역연계망을 모델화한 것이 있다. 송국리형취락 지역공동체의 연계망 형태를 일방형, 양방형, 방사형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이종철 2015). 다른 시기와 지역 또는 타유형에 일반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송국리형취락의 네트워크를 모델화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지역차원의 공간적 형태를 설명한 예(박영구 2013; 유병록 2019; 김권중 2020)가 있는데, 대부분 네트워크의 형태와 범위를 제시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가 편년상의 동시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적게는 100년에서 심지어 200년이 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취락의 존속기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어쨌든 취락 간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생산품의 분배나 재분배, 유통양상 분석을 통한 정치·경제적인 관계 추적(이형원 2010), 일본 고고학계에서 강조한 석



<그림 7> 청동기 중기 취락의 위계와 취락 간 관계 모식도 (이형원 2014 인용)



<그림 8> 송국리형취락의 지역연계망(이종철 2015 인용)

기의 산지추정과 유통망의 양상(이기성 2006), 농업 공동체적 결합 정도와 취락 간의 분업이나 기능분화(都出比呂志 1989)를 살펴보자는 견해와 같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6. 취락과 인구변동

취락의 인구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개별주거의 구성원(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취락자료가 증가하면서 다소 활발해졌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초기에는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수계별로 인구를 추정하여 시기별 변화를 검토한 바 있다(김권구 2003). 평균면적을 산출하여 추정거주인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1인당 면적을 3㎡와 5㎡를 적용하여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를 추정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이강승(2014)도 금강유역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의 방형계 주거와 중기의 원형집자리의 전체 인구 산출에 5㎡를 적용하여 인구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취락자료가 가진 한계로 인해 실체적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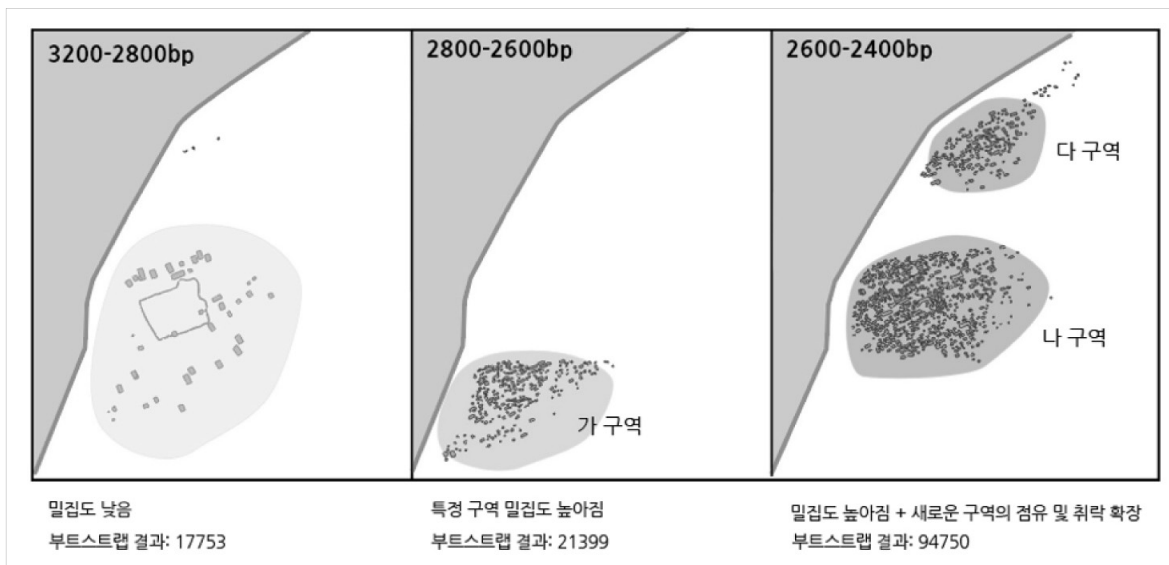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절대연대치를 활용한 방법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형식학적 방법론인 상대연대법과 교차편년에 의존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탄소연대측정치를 이용하여 인구변화의 추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다(김장석 2003, 2007; 황재훈 2009, 2014; 황재훈·양혜민 2015). 형식학적 방법론이 지닌 한계와 문제를 비판하고자 대안적으로 등장한 것인데, 개별 취락이 아닌 일정한 범위 내의 시기별 인구변동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특히 2021년 중부고고학회 주최로 인구변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기에 이르렀다(중부고고학회 2021).

이 방법론은 탄소연대측정치의 수에 기반하여 취락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샘플의 수가 인구규모를 반영한다는 대전제로 삼고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분포의 해석에 있어 특정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샘플링 바이어스(sampling bias-표본 편향)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리샘플링(bootstrap resampling)을 활용하여 인구 규모의 변화를 추정하였다(Kim 2016; 박지영 2017; 김세진 2021). 최근에는 방사성탄소연대의 확률밀도분포(SPD)³⁾를 이용하여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인구 변동양상을 검토하기도 하였다(오용제·매튜 콘테 2021).

이러한 방법론은 취락의 인구변동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론과는 다른 접근법이지만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인 김세진(2021)의 연구에서 보면, 중도동유적의 가구역은 예맥문화재연구원 조사구간인 C구역에 해당되고 절대연대는 2800-2600bp로 검출되었다. 이 측정치는 팔레오라보의 연대측정결과이다. 나·다구역 측정기관-라드피온, 지질자원연구원(에널리시스랩)의 절대연대치인 2600-2400bp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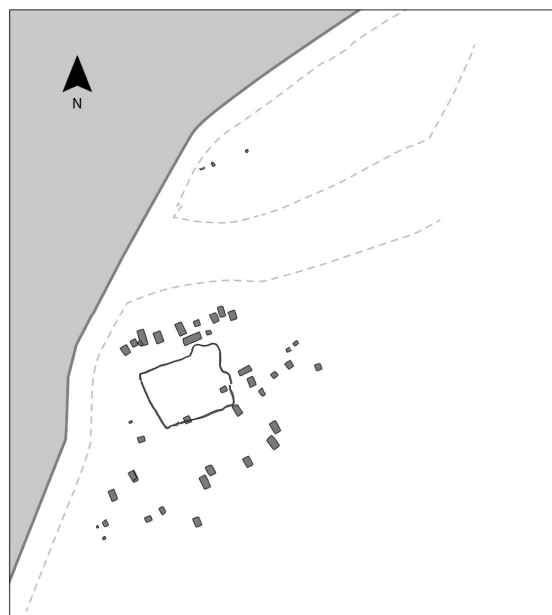
3) 탄소연대측정치를 보정해 모든 확률분포를 결합(Summed Probability Distribution) 결합하는 방법으로 Intcal20의 보정곡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대연대측정치(4)의 차이는 조사구역의 편의상 구분에 따른 현상일 뿐이다. 가구역과 나·다구역은 유구와 유물은 물론 고고학적인 정황상 동시기 취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른 기관들의 연대측정치와 차이를 보이는 팔레오라보의 연대측정치(4)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사를 담당한 예맥문화재연구원도 보고서상에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림 9〉 춘천 중도동 유적의 변화 과정 종합(김세진 2021 인용)

한편 절대연대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자는 이 측정치(2800-2600bp)를 중도동유적의 전기 부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듯하다. 더 나아가 환호의 축조시기를 2800bp 이후의 주거지들 중 다수가 환호 내부에 축조되거나, 환호를 파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대문토기단계로 추정(김세진 2021)하기에 이른다. 유적의 중복관계(층서관계), 출토유물, 환호의 연대를 부정하고, 해당지역의 고고학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절대연대측정치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괴리는 기존의 고고학적 연구와 C14연대가 정합성을 띠지 않는 것을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안재호 2020).



〈그림 10〉 3200-2800bp 주거지와 환호의 분포 (김세진 2021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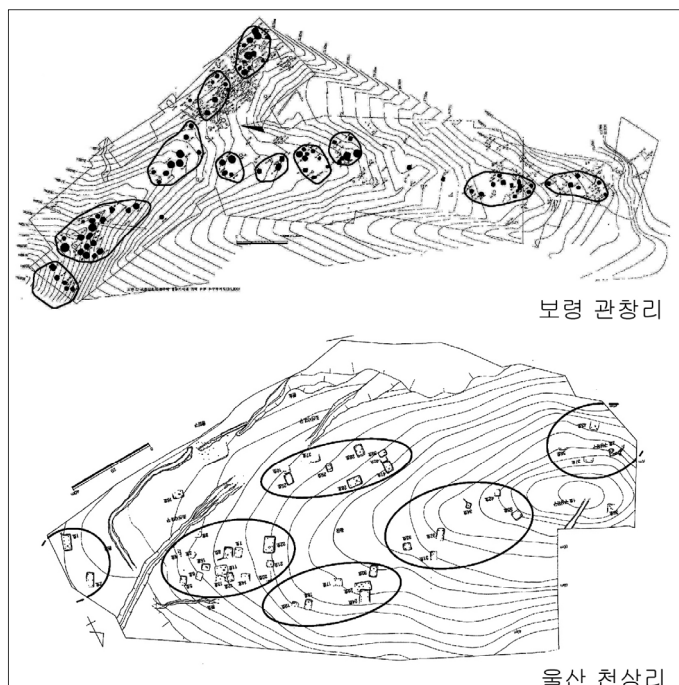
4) 최근(2022년 2월) 안재호가 팔레오라보에 중도유적 연대문제를 전달하였으나 현재 일본에는 시료가 남아있지 않아 재측정은 어렵고, 당시에 기계적오류의 가능성은 없다고 전달받았다.

취락을 유구와 유물의 형식편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절대연대에 의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학적 방법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자 배타적인 자료의 활용으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취락연구에서 편년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속성배열법이나 순서배열보충법과 같은 일련의 성과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를 드러낸다. 절대연대치를 이용하여 인구규모를 추산하는 방식은 인구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취락의 실제 인구수를 파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7. 취락과 세대, 가구, 가족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에서 취락 구성의 기초단위인 세대 또는 가구, 가족은 거의 동일한 의미(김범철 2006)로 사용되는 듯하다. 취락 내 단위집단을 가족공동체나 세대공동체, 규모에 따라서는 핵가족, 대가족, 확대가족, 소가족체, 대가족체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청동기시대 주거연구에서 전기에서 중기로의 가장 큰 변화는 대형에서 소형으로의 변화이고 이를 가족구성체의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안재호 1996; 이기성 2001; 김승욱 2006; 김현식 2006; 박성희 2015). 이러한 가족구성체는 경제학적 단위집단인 앵겔스의 이론을 차용하여 ‘世帶共同體’(都出比呂志 1989)로도 불린다. 세대공동체론을 고고학적으로 적극 활용한 안재호(1996, 2006)는 청동기시대의 가족체를 대가족체-세대공동체-핵가족체로 분화하며, 3-5동의 주거가 군집하는 것을 세대공동체로 해석하고, 이 변화과정을 위계화의 심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전기의 대형주거지도 세대공동체의 주거이며 전기에서 중기로의 변화는 가족체의 변화가 아닌 공동거주와 독립거주의 차이로 설명하였다(김승욱 2006). 김현식(2019)도 이를 찬동하여 변화요인을 농경사회의 사회조직과 노동의 전문화, 노동수요의 증가에 따른 협업체계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전기에서 중기로의 변화를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환’, ‘세대공동체 형성’ 등의 명제로 설명하는 것에 한계를 지적하고 가구고고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김범철(2012).

그런데 핵가족화된 개별 또는 공동거주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근접하여 군집된 양상을 세대공동체로 해석하지만



<그림 11> 세대공동체의 추정(김현식 2019 인용·수정)

뚜렷한 근거의 제시는 그다지 많지 않다. 주거가 세대 또는 가구와 일대일로 대응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세대공동체론적 관점에서 주거의 접근성에 따른 직관적인 판단이 아닌 그 이상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IV.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를 위한 몇 가지 제언

그간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의 접근(김장석 2007)과 각종 논쟁 검토(이형원 2010), 향후 과제의 제시(안재호 2014)가 있었다. 특히 김장석은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에서 논리적, 방법론적 재고가 필요하고, 취락을 하나의 고정적 실체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2014년 발간된 『한국청동기시대의 고고학3-취락』 편에서는 한국청동기시대 취락고고학연구의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해 10여 가지를 지적하였다(김권구·공민규 2014, 12p).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주취락의 개념과 기준 및 지역별·시대별 연구의 필요성
- 자원영역활용분석을 위한 자연과학분야의 활용
- 개별주거의 공간사용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한 토양분석
- 가구와 가구군의 성격과 변화양상
- 마을의 특성 연구와 기능분화에 대한 심층연구
- 생업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
- 실험고고학과 민족지고고학의 적극 활용
- 가구, 세대, 중심취락 또는 거점취락의 용어 통일
- 청동기시대 조기와 후기 취락 연구

이들 가운데 몇몇 과제는 이후의 연구와 자료의 증가로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진하다. 이에 덧붙여 몇 가지를 제기하고자 한다.

- 형식편년과 절대연대의 상보적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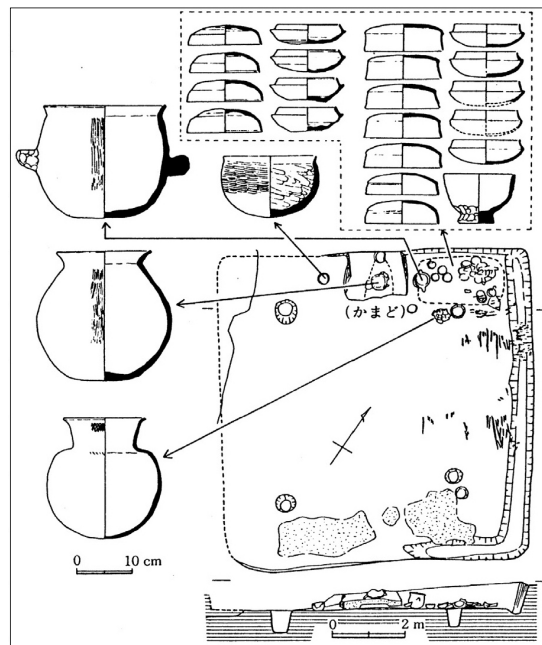
형식학적 편년과 절대연대의 활용은 양자의 방법론에 경도되거나 맹신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취락연구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형식학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다. 절대연대의 활용도 과학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하게 검증되지 못한 오류의 문제도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형식편년의 한계와 절대연대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취락의 폐기 또는 소멸 원인 규명

취락의 폐기 원인 규명은 취락의 소멸과 이주의 원인-자원고갈, 전쟁, 질병(전염병), 자연재해(홍수범람) 등을 포함한 각종 요인(push factor, pull factor)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이다. 그간 취락의 사용이 중단되어 폐기되는 원인에 관해 주거 차원의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취락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허의행 2013)는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편년작업을 통한 취락의 폐기 시점이 설명되었지만 개별주거의 폐기만큼 취락 전체의 폐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개별주거의 폐기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은 한계 때문에 취락의 폐기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별주거의 폐기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존 자료의 재분석도 필요하다. 최근의 팬데믹(pandemic) 상황과 같은 전염병이나 질병의 문제에 접근하거나, 가옥장, 화재 등 주거의 폐기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토대로 취락의 폐기 원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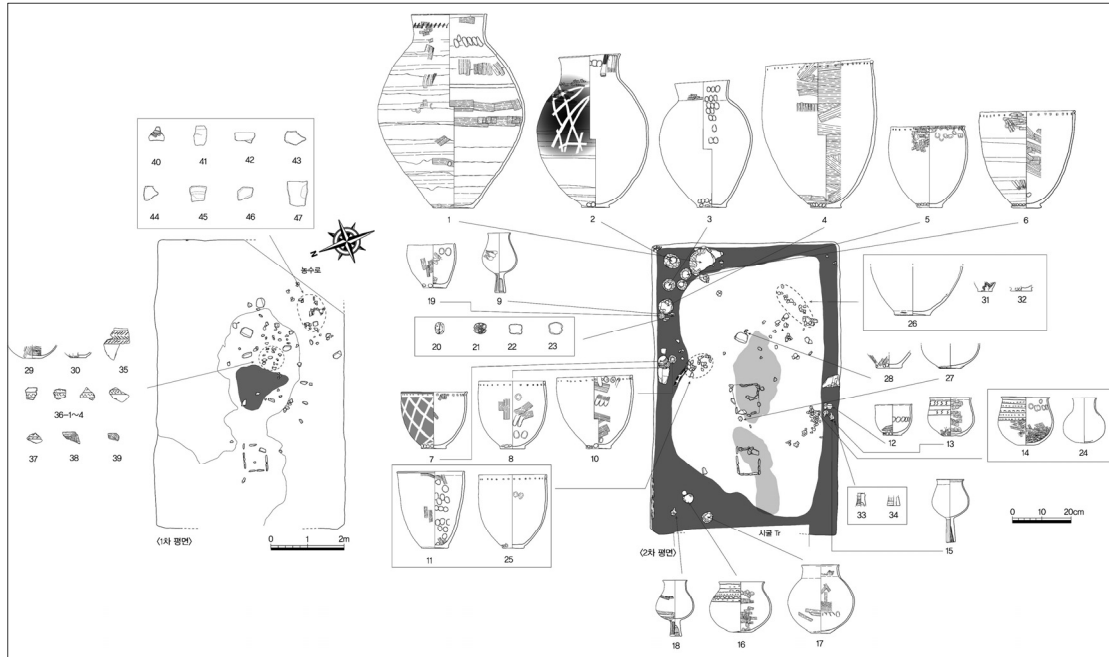
- 주거의 가족 구성원(수)과 취락의 인구에 대한 실체적 접근 필요

주거 내의 가족 구성을 세대공동체로 이해하는 관점(안재호 1996, 2006; 이형원 2007, 2009)이 주류였지만 주거 내의 공간구분을 기능적, 젠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견해(김종일 2008)도 등장하였다. 가족이나 세대 또는 가구의 구성원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추측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실제 취락의 인구(수)에 대한 접근이나 인구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실제와 동떨어진 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일본 福岡縣 野黑板유적의 주거지 사례⁵⁾와 같이 실제 거주인수를 밝히기 위한 작업도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도 영주 가흥동유적 1호 주거지<그림 13>의 예처럼 일본의 사례와 같은 자료가 많다. 청동기시대 인구수를 추정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福岡縣 野黑板유적의 주거와 토기 (都出比呂志 1989 인용)

5) 고분시대 후기(6세기 중엽)의 주거지를 분석한 것으로 주거지는 한 변이 4.5m로 면적은 20.25㎡이며, 내부에서 출토된 식기조합은 스에키 개배 4세트와 하지키 개배 5세트, 취사용기 용 2개(각 6리터)가 출토되었다. 이를 토대로 4~5인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都出比呂志 1989).



〈그림 13〉 영주 가흥리 1호 주거지 출토 토기류

- 민족지고고학 자료의 적극 활용

취락연구에서 민족지고고학 자료의 활용은 있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재의 소수부족이나 환경적, 기후적 차이가 많은 오지의 민족지 자료를 국내 청동기시대 취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한계를 드러낸 주거나 취락의 복원과 검증의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령 동남아시아 라오스 고산



〈그림 14〉 라오스 라후족 처녀들의 거처

지대의 소수민족인 라후족은 혼기에 다다른 처녀들의 거처(개인숙소)를 옥외에 별도로 두고 있다. 취락 내의 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거 내의 기능이나 젠더(김종일 2008)뿐만 아니라 ‘世帶’가 아닌 ‘世代’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취락에도 적용이 필요하다.

- 정주취락의 개념과 기준 정리

정주취락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김권구·공민규 2014)한

바와 같이 개념 정의와 판단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지속성과 반복점유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정주취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주거뿐만 아니라 분묘와 가경지의 존재는 물론 장기저장시설, 환호와 의례공간 등의 사용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된 것으로 주거의 사용기간 확인을 위한 연구(김준희 2021)는 초보적인 결과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 취락 네트워크 연구의 한계 극복

취락 간 관계를 주로 종속적인 관계로 해석한 것이 주를 이루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호혜적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좀더 다양한 관계-개방적, 폐쇄적, 독립적, 경쟁적, 배타적인 관계-와 같은 다양한 상호관계의 설명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 2009년 청동기학회(취락분과)에서의 검토 이후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가 있었지만 취락 간 네트워크의 진전된 종합적 검토는 없었다. 많은 연구자가 지역적 네트워크를 검토하였지만 광역적 검토도 필요하고, 이제는 한국의 지형구조에 적절한 ‘한국형 중심지이론’의 모색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또한 취락 간 계층구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계층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직적·수평적 상호관계성을 검토하는 헤테라키(heterarchy)⁶⁾의 접근(강동석 2018)은 더욱 필요하다.

- 인간과 취락의 라이프사이클 연구

취락연구의 궁극적 대상은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그려져야 하고, 그들의 실체, 행위, 관념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로서 취락이 다루어진다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취락의 라이프사이클을 형성-발전-쇠퇴-소멸의 과정으로 설명한다면 주로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고, 쇠퇴와 소멸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취락의 단계별 변동 원인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V. 맺음말

한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난 30년 가까이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취락의 구조와 성격, 사회조직과 위계, 네트워크, 경관, 인구변동, 생산과 소비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결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취락자료와 연구결과와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고고자료가 가진 한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방법론적으로나 해석상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몇몇 비

6) 계층성(hierarchy)과 상호관계성(network)의 대응관계로 구성된 ‘복합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Cumming 2016)하였다.

관적 견해와 방향의 제시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의 제시는 없었다. 발표자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적 수준임을 인정한다.

취락자료는 고고학에서 총합체적 성격을 띠지만 이를 고려한 종합적 분석과 연구는 미진하다. 취락자료를 고정적 실체로 보거나 단선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김장석 2007)과 같이 가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또한 이론적, 논리적 접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추상적, 피상적 접근보다 구체적, 실체적 접근은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축적된 취락자료도 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취락연구자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수의 취락연구자가 학위 취득과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고자료의 한계가 많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은 부진하다.

청동기시대 취락연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 이르렀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 중도동취락의 성격 구명은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중도동유적은 최근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대규모 주거지와 분묘를 비롯하여 경작지, 환호, 고상가옥, 수혈유구 등 기초자료가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부문별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중도동취락의 성격 구명에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청동기시대 취락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본문(각주1)에 별도로 기재하였다.

- 국내논문 -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 패턴과 복합화: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韓國考古學報』 109.

고민정·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고민정,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 54.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6.

_____, 2014, 「총설」,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聚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서경문화사.

김권구·공민규,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聚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서경문화사.

金範哲, 2005, 「錦江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중기 聚落分布類型 研究」, 『韓國考古學報』 57.

_____, 2006,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的 접근」, 『韓國上古史學報』 51.

_____, 2012, 「青銅器時代 家口變化의 社會經濟的 意味-中西部地域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76.

金度憲,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환경과 생업」,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第14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2005.

김선우, 2016, 『경관의 고고학』, 경희 고대사·고고학 연구총서2, 주류성.

- 김세진, 2021, 「북한강 유역 청동기시대 대형 취락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60.
-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51.
- _____,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연구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 17.
- _____,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67.
- _____, 2021, 「고고학에서의 인구연구」, 『인구변동의 고고학』, 2021년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國史館論叢』 104, 國史編纂委員會.
- _____, 2006, 「景觀考古學의 理論的特徵과 適用의 可能性」, 『韓國考古學報』 58.
- _____, 2008, 「전통과 변화: 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전망」, 『전통과 변화-서울경기 무문토기문화의 흐름』, 2008년도 서울경기고고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준희, 2021,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점유기간과 생계경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식, 2006, 「蔚山式 住居址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9, 「남한 청동기시대 토기와 주거지의 변천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준, 1997,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유형을 통해서 본 생업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性姬, 2015, 「南韓 靑銅器時代 住居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영구, 2022, 「춘천 중도동유적 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와 취락양상」, 『湖西考古學』 61.
- 박지영, 2017, 「백제의 확장과 주변부 취락 재조직: 방사성탄소연대와 GIS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裴德煥, 2000, 「嶺南地方 靑銅器時代 環濠聚落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南江·太和江流域의 靑銅器時代 據點聚落」, 『文物研究』 9.
- 裴眞晟, 2006, 「無文土器社會의 威勢品 副葬과 階層社會의 出現」,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松滿榮, 1997, 「中西部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崇實史學』 10.
- _____, 2001,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住居址를 통한 中期의 設定-」,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 紀念論叢刊行委員會.
- _____, 2000, 「韓國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_____, 2001, 「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 構造의 轉移」, 『嶺南考古學』 29.
- _____,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 _____, 2009, 「南韓 靑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_____, 2020, 「靑銅器時代 智佐里聚落의 形成過程과 社會相」, 『韓國靑銅器學報』 26.
- 요용제·매튜 콘데, 2021, 「¹⁴C dates as data-방사성탄소연대의 확률밀도분포를 통해 본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인구 변동 양상-」, 『인구변동의 고고학』, 2021년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강승, 2014, 「청동기시대 금강유역의 인구산출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40, 韓國古代學會.
- 李健茂, 1994, 「先史時代 住居址考古學現況」,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 이기성, 2006, 「석기 석재의 선택적 사용과 유통」, 『湖西考古學』 15.

- 이상길, 2002, 「우리는 왜 남강유역의 유적에 주목하는가?」,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
- _____, 2011, 「남한 무문토기시대 거점취락과 그 주변-想像의 都市와 그 實相」, 『고고학에서의 중심과 주변』, 第20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發表要旨.
- 李盛周, 1998, 「韓國의 環濠聚落」, 『環濠聚落과 農耕社會의 形成』,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 _____, 2007, 『靑銅器·初期鐵器時代』, 學研文化社.
- 李秀鴻, 2008, 「蔚山地域 靑銅器時代 聚落構造의 變化」, 『韓國靑銅器學報』2
- 李松來, 1989, 「국가의 정의와 고고학적 판단기준」, 『韓國上古史 연구현황과 과제』, 민음사.
- 李亨源, 2007, 「호서지역 가락동유형의 취락구조와 성격」, 『湖西考古學』17.
- _____, 2010,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쟁점」,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4, 「취락과 사회구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聚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서경문화사.
- _____, 2021, 「청동기시대 중심취락의 지역적 양상-송국리유형 시기의 대규모 기념물을 중심으로」 『湖西考古學』49.
- 이흥중, 2003, 「松菊里型 聚落의 景觀的 檢討」, 『湖西考古學』9.
- _____, 2005, 「寬倉里聚落의 景觀」,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문화사.
- _____, 2007, 「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 『湖西考古學』17.
- 이흥중·손준호, 2012, 「충적지 취락의 지형환경」, 『嶺南考古學』63.
- 鄭漢德, 1995, 「東아시아의 環濠聚落」,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 중부고고학회, 2021, 『인구변동의 고고학』, 2021년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 秋淵植, 1994, 「聚落考古學의 世界史的 研究傾向」,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 _____, 1997,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 학연문화사.
- 韓國考古學會, 1994,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 한국청동기학회, 2009,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제2회 워크숍 발표요지.
- _____, 2013,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활동』, 제7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요지.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湖西考古學』20.
- _____, 2014,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상호작용과 문화변동-한반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재훈·양혜민, 2015, 「¹⁴C연대 분석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시론」 『湖南考古學報』50.

-외국논문-

- 姜東錫, 2020, 『韓日初期複雜社會의 聚落體系의 比較:GISを用いた空間考古學的檢討』, 雄山閣.
- 後藤直, 1995, 「朝鮮半島原始時代の農耕集落立地」, 『第四紀研究』第33卷 第5号, 日本第四紀學會.
- 都出比呂志, 1989, 『日本農耕社會の成立過程』, 岩波書店.
- Cumming, G. S., 2016, Heterarchies: Reconciling Networks and Hierarchies, *Trends in Ecology&Evolution* 31(8).
- Kim, J., 2016, Demographic adynamics Inferred from Radiocarbon Dates versus Sampling Baises, paper presented at *C14 and Archaeology 8th International Symposium, Edinburgh*.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제2발표

청동기시대 무덤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윤호필 상주박물관

청동기시대 무덤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윤호필(상주박물관)

I. 머리말

‘무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즉, 죽음으로 인한 산 자(生者)와 죽은 자(死者)의 영원한 이별,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 공포 등이 무덤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패러다임’과 ‘무덤의 패러다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은 ‘정신문화’로서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생겨나지만, 무덤은 죽음의 정신문화가 실체가 있는 ‘물질문화’로 재해석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의 등장 시기는 차이가 있다. 즉, 무덤 조성은 죽음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 정립된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류 최초의 무덤은 구석기시대 중기부터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정착생활이 시작되는 신석기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신석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하지만, 보편적으로 조성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관념 정립과 함께 무덤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한데, 수렵·채집·어로 중심의 생계경제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¹⁾. 신석기시대의 무덤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토광묘이며, 전체적으로 무덤의 구조와 형태는 단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는 다양한 무덤의 조성 및 장법, 부장유물 등을 통해 볼 때 죽음에 대한 관념은 명확하게 확립되었으나 무덤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덤을 단지 시신을 처리하고 애도하는 공간으로만 인식하여 무덤의 형태나 구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무덤에 대한 인식은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청동기시대는 생계경제 방식이 취락 발달과 함께 농경 중심으로 변화한다. 도구는 금속기인 청동기가 사용되고 목·공구인 마제석기는 세분화와 다양화된다. 토기는 단순화된 무문토기가 발달하고 기종이 다양해진다. 이러한 물질상의 변화는 사회·경제·문화를 발달시켜 대규모 취락을 등장시키고 취락 간 상호 교류도 활발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발달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위계의 형성과 사회 구조화를 가속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죽음에 대한 관념과 무덤에 인식을 바꾸었다.

1) 수렵·채집·어로의 생계경제 방식은 장기간의 정착생활이 어려워 무덤 조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취락이나 무덤군도 확인되어 본격적인 무덤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무덤은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 통영 연대도유적 등이 있다. 무덤 종류는 토광묘, 동굴묘, 적석묘, 석곽묘, 옹관묘, 패각묘 등 다양하며, 장법도 신전장, 굴지장, 세골장, 화장, 합장 등이 확인되었다.

취락의 일반화는 무덤 조성의 일반화를 촉진하였으며, 인구증가는 대규모의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무덤의 일반화와 사회의 구조화는 무덤에 대한 인식체계를 변화시켜 무덤을 통해 죽음을 보다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무덤 축조과정과 구조가 정형화되면서 축조기술과 장송의례를 발달시켰다. 이는 이전 시대와 달리 무덤을 사자(死者)의 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생자(生者)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장자와 그 가족만이 겪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집단의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함께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신석기시대의 무덤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생겨났으며,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무덤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새롭게 나타난 청동기시대의 무덤 패러다임의 양상을 지금까지 조사되고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의 무덤관련 고고자료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는 확보되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와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모든 고고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이며, 기존의 무덤관련 연구성과와 주요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무덤연구의 흐름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무덤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무덤연구의 시기별 흐름²⁾

1. 근대 이전~일제강점기

1) 근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후기 문신인 이규보(李奎報)가 전주지방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1241년)』 권 23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이다³⁾. 글에는 고인돌을 묘사한 표현이 있는데, 고인돌을 ‘支石’이라 지칭하며 ‘옛날 성인(聖人)이 고여 놓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고인돌을 보고 ‘기적(奇跡)으로서 이상한 것’이라는 소감도 밝혔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고인돌의 형식은 지석을 갖춘 ‘기반식 고인돌’로 생각되며, 그 형태와 규모가 인간이 축조하였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크고 웅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속에서 전해진다’는 말로 볼 때 이규보가 고인

2) 청동기시대 무덤 발굴사 및 연구사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잘 정리한 바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였으며,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손진태(1948), 金貞姬(1988), 趙由典(1992), 李榮文(2002, 2012), 유태용(2003), 우장문(2004), 金圭鎬(2004), 윤호필(2013), 平郡達哉(2012), 甲元眞之(1980), 田村晃一(1988), 千葉基次(2006).

3) “明日將向金馬郡。求所謂支石者觀之。支石者。俗傳古聖人所支。果有奇跡之異常者。” (다음날 금마군(金馬郡)으로 향하려 할 때 이른바 ‘지석(고인돌)’이란 것을 구경하였다. 지석이란 것은 세속에서 전하기를, 옛날 성인(聖人)이 고여 놓은 것이라 하는데, 과연 기적(奇跡)으로서 이상한 것이 있었다.) (東國李相國集 卷二十三, 南行月日記)

돌을 구경하기 이전부터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사람들도 고인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나름의 다양한 해석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고려시대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후 조선시대에도 고인돌과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로 일부 전해지고 있었지만, 당시 학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9세기 말

이후 19세기 말에 외국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조선으로 파견된 외국 선교사나 외교관들에 의해 고인돌이 새롭게 인지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조선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조선의 여러 문화를 관찰하였는데, 이중 고인돌도 포함되었다⁴⁾. 가장 먼저 고인돌을 외국에 소개한 사람은 당시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副領事)였던 W.R. Carles이다. 그는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는 도중 관찰한 포천의 고인돌을 1883년 영국 런던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이란 글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후 여러 명의 외국인이 다양한 고인돌을 관찰하여 영국과 미국 소개하였으며, 나름의 해석을 통해 대형 석조물, 제단, 고분 등으로 파악하거나 풍수지리설, 구전설화 등과 함께 언급하면서 민속적인 관점에서도 보기도 하였다. 특히, 고인돌을 무덤과 제단으로 파악한 H.B. Hulbert(1906)와 Underwood(1910), 고인돌을 외국에 분포하는 돌멘(Dolmen)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한 Allen 등은 초기 고인돌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 생각된다.

3) 일제강점기

청동기시대 무덤연구가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사업의 하나인 ‘조선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조사된 고인돌 유적을 연구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무덤 조사⁵⁾와 연구⁶⁾도 고인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鳥居龍藏(1917)은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역을 답사하면서 한반도의 ‘dolmen(고인돌)’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한반도 고인돌에 대한 분포, 형식, 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鳥居龍藏, 1926). 고인돌 발굴조사 중에는 1927년에 처음 조사된 大邱 大鳳洞 고인돌을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최초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라는 점에서 발굴사에서 중요한 일로 볼 수 있으며, 명칭에 대해 ‘支石墓’라는 학술용어가 제창되었고, 그 정의도 행해졌다(藤田亮策 1937). 이 시기의 한국인 학자들은 고인돌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고인돌을 연구하였다. 손진태(1934)는 고인돌을 형태적으로 구분하고, 고인돌의 축조방법, 기능, 장법, 전설

4) 한국 고인돌을 외국에 소개한 사람은 W. R. Carles(1883), Isabella Lucy Bird(1893), W. Gowland(1895), Bourdarel(1902), H.B. Hulbert(1906) 등이 있다.

5) 조사된 고인돌유적은 은율 군량리, 사금동, 운산리 고인돌군, 안악 입리동 고인돌군, 운산리 고인돌군, 고흥 운대리 고인돌, 대구 대봉동 고인돌 등이 대표적이다.

6) 일제강점기에 고인돌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일본인 鳥居龍藏(1917, 1926), 藤田亮策(1941), 梅原末治(1972), 榎本杜人(1952, 1959), 小良顯夫(1986), 有光教一(1959) 등이 있다.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는 현재의 고인돌 연구방법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 고인돌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⁷⁾. 한홍수(1935)도 우리나라의 거석문화를 유럽의 거석문화와 같이 다양한 종류로 구분하고⁸⁾, 거석문화의 사상적인 특징들을 우리나라 거석물에도 적용하였다. 특히, 거석문화를 태양숭배사상의 표현으로 보고, 이를 황해도 안악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고인돌을 탁자식과 기반식으로 구분하고 고인들의 기능을 무덤으로 파악하였다. 고인돌 기원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있었는데, 梅原末治(1947)는⁹⁾ 조선 고대의 묘제를 설명하면서 지하의 석관묘가 地上化·巨大化되어 고인돌이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즉, 석관묘가 발전하여 고인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4) 근대 이전~일제강점기의 조사와 연구 특징

근대 이전은 고인돌을 연구하였다기보다는 고인돌의 존재를 소개하는 수준이지만, 당시에 민간에서는 고인돌의 존재가 널리 알려진 상태로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세기 말에 외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관찰한 고인돌을 나름의 해석과 함께 영국과 미국에 소개하였는데, 학술적인 연구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고인돌을 대형 석조기념물, 제단, 무덤 등으로 파악하거나 유럽에 분포하는 돌멘(Dolmen)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초기 고인돌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속적인 관점에서 풍수지리나 구전설화 등을 고인돌과 함께 소개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고인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의 무덤연구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학술적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일부이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고인돌의 기초자료(구조와 형태, 부장유물 등)를 확보한 것은 고인돌 연구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사와 연구가 한국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일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다. 고인돌에 대한 한국인 조사는 일부 학자에 의해 민속학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어 고인돌의 특징과 다양한 기능을 연구하여 중요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고인돌 조사와 연구의 첫걸음이 이루어진 때이다.

7) 손진태는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 역사학을 창도한 민속학자이지만, 민속조사를 위해 답사하던 중 많은 고인돌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고인돌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서양인들이 소개한 고인돌 자료의 원문을 소개하면서, 고인돌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고인돌을 형태에 따라 고인돌(支石墓)과 거석개분묘(巨石蓋墳墓)로 구분하였으며, 고인돌의 기능, 축조방법, 축조목적, 명칭, 전설 등을 검토하였다. 고인돌의 기능은 종교적 숭배물이나 제단, 주거형식, 고분의 석실 또는 석관이 노출된 것 등 세 가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상석을 피장자에 대한 공포를 억누르기 위한 것(死靈威壓), 피장자나 그 가족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威勢矜誇), 선조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제단(祭壇) 등으로 보았다. 고인돌의 기능은 사람 뼈가 출토되어 무덤으로 인식하였지만, 기념 고인돌(祭壇)과 무덤 고인돌로 분류하고 있다. 고인돌의 연대는 신석기시대로 파악하여 씨족사회의 가족 공동묘로 인식하였으며, 당시의 장법은 세골장(洗骨葬)으로 생각하였다.

8) 우리나라 거석문화를 선돌(單石, 立石), 고인돌(撐石, 支石, 卓石), 칠성바위(七星岩), 돌무덤(石像, 石籬) 등 네 종류로 나누었다.

9)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2. 1945년부터 197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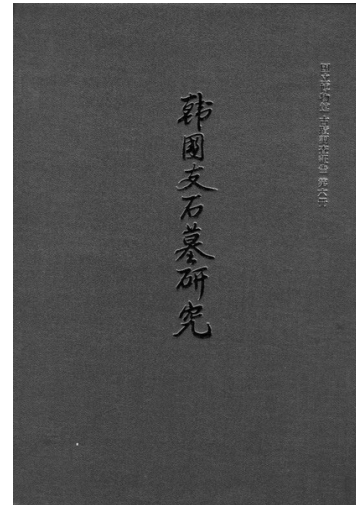
1) 1945년~1950년대

해방 이후 고인돌 연구는 남한보다는 북한 학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북한 학자로는 정백운과 도유호가 있다. 정백운(1957)은¹⁰⁾ 고인돌의 매장주체부 위치를 기준으로 형식을 북방형과 남방형으로 구분하고, 두 형식 간에 유물의 차이가 별로 없어 연대의 선후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인돌의 조성시기를 이전까지의 학설과 달리 청동기시대까지로 내려 보았다. 도유호(1959)는¹¹⁾ 고인돌의 형식을 전형(卓子式)과 변형(基盤式·蓋石式)로 나누고, 변형은 적석총(積石塚), 석상분(石箱墳), 전형 고인돌이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출토유물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래설을 제시하였으며, 조성시기를 청동기시대인 기원전 6~5세기를 파악하였다. 사회형태는 원시 공동체사회로 보았다.

이 시기는 고인돌을 구조와 형태에 따라 형식분류하여 구분하였으며, 조성시기를 청동기시대의 묘제로 인식하였다.

2)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고인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이다. 三上次男(1961)는¹²⁾ 만주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인돌과 석관묘를 검토하여 고인돌을 형식분류하였다.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누고 남방식을 다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북방식이 남방식보다 앞서며, 고인돌의 상한 연대를 B.C.3~2세기로, 하한연대를 A.D.3세기까지 보았다. 임병태(1964)에¹³⁾ 고인돌을 탁자식, 기반식, 무지석식으로 대별하고 석실의 위치와 수에 따라 이를 세분하였다. 북한학자인 황기덕(1965)¹⁴⁾은 고인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묘역이 형성된 침촌리 천진동과 긴동의 고인돌 석실과 유물을 통해 사회관계를 추정하였다. 김재원·윤무병(1967)은¹⁵⁾ 남한의 12개 지역에서 총 60여 기의 고인돌을 발굴조사하여, 이를 집대성한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와 연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고인돌의 형식을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누고, 남방식을 지석, 뚜껑돌, 적석의 유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그림 1> 한국지석묘연구

10) 정백운, 1957, 「조선 고대 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57-2.

11) 都看浩, 1959, 「朝鮮巨石文化研究」, 『문화유산』 1959-2.

12)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墳墓』, 吉川弘文館.

13) 林炳泰, 1964, 「青銅器時代와 그 文化」, 『三星文化文庫』89, p.165.

14) 황기덕, 1965, 「무덤을 통해 본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회관계」, 『고고민속』4.

15) 金載元·尹武炳, 1967,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세분하였다. 방선주(1968)는¹⁶⁾ 무덤연구에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고 고인돌 축조시의 제연(祭宴)과 세골장 풍습(洗骨葬風習)이 유행한 것으로 보고 남방기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인돌 이외에 석관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일본인 학자 三上次男에 의해 처음으로 형식분류가 이루어졌다¹⁷⁾.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한 벽에 1매의 판석을 세운 것, 여러 매의 판석을 잇대어 세운 것, 할석으로 쌓고도 판석을 세운 것, 쌓아서 축조한 것이다. 이 분류안은 현재에도 석관묘 분류의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다.

3)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조사와 연구 특징

1950년대는 해방 직후로 고인돌 연구는 북한 학계가 주도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고인돌의 형식분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시기, 전파양상, 고인돌 사회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고인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로 일본과 북한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는 형식분류, 축조시기, 전파양상, 사회성격 등 기존의 연구주제와 함께 무덤과 관련된 외국 이론을 소개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1967년에는 고인돌과 관련된 최대의 발굴성과와 연구성과가 집대성되어 김재원·윤무병에 의해 『韓國支石墓研究』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로서는 대규모 고인돌 조사 및 연구로서 12개 지역에 60여기를 조사한 성과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고인돌 이외에 석관묘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처음으로 형식분류가 이루어졌으며 석관묘 분류안이 기본 틀이 되었다.

4. 1970년~1980년대

1) 1970년대

이 시기는 국토종합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로 각 지역에서 댐이 축조되면서 많은 수몰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¹⁸⁾. 따라서 대규모 발굴이 많아지게 되어 고인돌 자료도 증가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임세권(1976)은¹⁹⁾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라 지상형(地上形, 卓子式)과 지하형(地下形, 碁盤式)으로 크게 나누고, 지하형을 들린형(支石式, 碁盤式), 농인형(無支石式, 蓋石式)으로 구분하였

16) 方善柱, 1968, 「韓國磨製石劍の研究」.

17)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古墳の研究』.

18) 대표적인 수몰지 발굴지역은 팔당·소양댐, 영산강 4개댐, 대청댐, 남강댐 등이 있다.

文化財管理局, 1974, 『八堂·昭陽댐 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書』.

全羅南道, 1976, 『榮山江 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書』.

忠南·忠北大學校 博物館, 1979, 『大清댐 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書』.

文化財研究所, 1994, 『晉陽 大坪理 遺蹟』.

19) 任世權, 1976, 「韓半島 고인돌의 妹合的 檢討」, 『白山學報』20.

다. 형식에서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최몽룡(1978)은²⁰⁾ 전남지방 고인들의 형식을 크게 남방식(碁盤式)과 개석식(蓋石式)으로 나누고, 축조구조에 따라 다섯 가지로 세분하였다. 또 전과경로는 남방식에서 개석식으로 변천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인들이 서해안을 따라 전과되었다고 보았다. 북한학자인 석광준(1979)은²¹⁾ 고인들의 형식을 오덕리형(五德里形, 卓子式), 침촌리형(沈村里形, 變形支石墓)으로 크게 나누고 유형에 따라 침촌리형을 5가지로, 오덕리형을 3가지로 세분하였다.

석관묘에 관한 연구는 최초의 석관묘 학위 논문(석사)인 「한국 석관묘의 연구」를 이종선(1977)²²⁾이 1977년에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한반도 석관묘를 거시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까지 확대하여 설명하였다. 분류는 단순형 석관묘와 결합형 석관묘로 대별하고, 벽면의 축조방법과 재질에 따라 각각 A·B·C 세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A형은 평면 형태가 제형 혹은 장방형이며 약 15cm 두께의 판석을 장벽에 3~4매, 단벽에 1~2매를 잇대어 세운 것, B형은 한 벽에 1매씩을 세운 것, C형은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판석을 평적하거나 활석 혹은 천석을 쌓아 올린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분류안 중 B형은 이후 자료의 증가에 따라 주 속성으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2) 1980년대

1980년대는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이나 토지 정리사업 등이 시작되어 대규모 유적조사가 많아지면서 무덤 관련 고고자료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형식분류와 편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고인들의 구조, 기원, 사회복원 등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용조(1980, 1981, 1888)는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고인들의 사회복원²³⁾, 상석의 운반²⁴⁾, 묻기방법과 장례의식²⁵⁾ 등을 검토하였다. 김병모(1981)는²⁶⁾ 고인들의 축조를 농경으로 인한 정착생활과 씨족생활의 일환으로 보았다. 지건길(1982)은²⁷⁾ 고인들을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대별하여 매장주체부의 축조방법에 따라 6가지로 나누고 이를 적석(積石)의 유무에 따라 세분하였다. 최몽룡(1981, 1982)은²⁸⁾ 고인돌 사회를 전문인이 출현하여 교역이 촉진된 사회로서 토착농경을 기반으로 계급이 발생한 족장사회로 보았다. 박희현(1984)은²⁹⁾ 고인돌 사회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로 파악하여, 상한 연대를 신석

20) 崔夢龍, 1978, 「全南地方 所在 支石墓의 型式과 分類」, 『歷史學報』78.

21) 석광준, 1979,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집』7.

22) 李鐘宣, 1977, 「韓國 石棺墓의 研究」, 『韓國考古學報』1.

23) 이용조, 1980, 「한국 고인돌사회와 그 의식」, 『東方學志』23·24집.

24) 이용조, 1981, 「양평 양덕리 고인돌문화」, 『한국의 선사문화』, 探求堂, pp.213-262.

25) 李隆助·禹鍾允, 1988, 「黃石里 고인돌 文化의 묻기방법에 관한 一考察」, 『博物館紀要』4輯, 檀國大學校博物館.

26) 金秉模, 1981, 「韓國 巨石文化의 源流에 관한 研究 (I)」, 『韓國考古學報』10·11合輯.

27) 池健吉, 1982, 「東北아시아 支石墓의 型式學的 考察」, 『韓國考古學報』12.

28) 崔夢龍, 1981,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의 發生」, 『韓國史研究』39, pp.1-14.

崔夢龍, 1982,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編年」, 『震檀學報』53·54, pp.1-10 .

29) 박희현, 1984, 「한국 고인돌 문화에 대한 고찰-상한연대를 중심으로-」, 『韓國史所究』46輯.

기시대 중기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남석(1985)은³⁰⁾ 청동기시대의 무덤을 E.R.Service의 사회발전단계를 적용하여 고인들을 청동기시대 전기로 보면서 그 사회는 부족사회이며,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파악하였다. 또한 고인들을 공동체적인 우의에 의해 연장자나 능력 있는 지도자의 무덤으로 생각하였다. 최성락(1989)은³¹⁾ 우리나라 최초로 상석운반과 관련된 실험고고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6.8t의 상석을 통나무와 밧줄을 이용하여 73명(실제 60명)이 끄는 실험을 한 것이다. 실험을 통해 한 사람당 100kg 이상을 끌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무덤자료의 증가로 인해 지역 단위별 고인돌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호남지방과 전남지방은 지건길³²⁾, 최몽룡³³⁾, 이영문³⁴⁾, 남한강과 금강유역은 이용조³⁵⁾·우종윤·우장문·하문식³⁶⁾, 제주도는 이청규³⁷⁾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석관묘 연구는 이남석(1985)³⁸⁾의 연구가 있다. 축조방식과 석재에 따라 세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I식은 네 벽에 각각 한 매의 판석을 세우고 개석과 바닥도 한 매의 판석을 깔고 덮은 것, II식은 판석 수 매를 세워서 벽면을 조성한 것, III식은 할석으로 쌓은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축조방법의 차이는 피장자의 성격보다는 지역에 따른 재료 선택과 발전에 기인한다고 파악하였다. 지건길(1983)은³⁹⁾ 축조방법을 기준으로 할석묘, 단판석식(각 벽이 판석 1매), 복판석식(각 벽이 여러 매) 분류하고 단판석묘→복판석묘→할석묘 순으로 전개한다고 추정하였다. 각 형식별 분포는 지역적 차이가 있다. 단판석식은 한강 이북지역, 복판석식은 남한강 이남지역, 할석묘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이는 호서지역 일대에서만 분포하기에 지역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관련 고고자료가 증가하면서 단판석식과 복판석식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1970년~1980년까지의 조사와 연구 특징

1970년부터 국토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의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굴조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고고자료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인돌의 경우도 많은 자료가 확보되었다. 고인돌 연구는 북한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연구주제는 대부분 형식분류, 축조구조, 전과경로 등이다. 형식분류는 이전에 비해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

30) 李南奭, 1985, 「청동기시대 한반도 사회발전단계 문제」, 『백제연구』6輯.

31) 崔盛洛·韓盛旭, 1989, 「支石墓 復元の 一例」, 『全南文化財』2輯.

32) 池健吉, 1991, 「湖南地方 고인돌 形式과 構造」, 『韓國考古學報』25輯.

33) 崔夢龍, 1991, 「湖南地方의 支石墓 社會」, 『韓國考古學報』25輯.

34) 李榮文, 1987, 「全南地方 支石墓의 性格」, 『韓國考古學報』20輯.

李榮文, 1988, 「全南地方 支石墓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35) 李隆助·禹鍾允, 1988, 「黃石里 고인돌 文化의 문기방법에 관한 一考察」, 『博物館紀要』4집, 檀國大學校博物館.

36) 河文植, 1988, 「錦江과 南漢江流域 고인돌 文化의 比較 研究」,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지식산업사.

37) 李清圭, 1985, 「濟州道 支石墓 研究」, 『耽羅文化』4輯.

李清圭·張齊根, 1991, 「濟州 고인돌 調查報告」, 濟州市.

38) 이남석, 1985, 「青銅器時代 韓半島 社會發展段階問題」, 『百濟文化』16.

39) 池健吉, 1983, 「墓制」II, 『韓國史論』13.

池健吉, 1997,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무덤」,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화 되었다. 1980년대는 국토종합개발사업에서 대규모 토지 정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유적조사는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고고자료도 발굴조사에 비례하여 점차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고자료의 증가는 연구주제가 다양화하는데 기여하여 기존의 형식분류와 편년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고인들의 구조, 기원, 사회복원, 상석운반, 장례의식, 농경과의 관계, 위계화의 진전과 사회구조화 등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나타난다. 특히, 사회발전단계에서의 고인들 사회를 연구하거나 실험고고학적 방법을 통해 상석운반을 연구한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무덤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역 단위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단위 지역별 고인들 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고인들 사회의 비교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석관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형식분류와 분포양상 등이 중심으로 고인들과 같은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1990년~2000년대

1) 1990년대

기존의 조사 및 연구성과를 총괄하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먼저 이영문은⁴⁰⁾ 전남지역의 고인들에 대해 분포, 형식분류, 출토유물의 성격, 고인들 문화의 지역성 등 전남지역의 고인들 사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조사 연구성과의 대부분 총괄한 것으로 고인들 연구의 획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고인들 형식 분류와 편년은 기존과 같이 한반도 전체를 다룬 것도 있지만⁴¹⁾, 호남이나 전남과 같은 지역별 연구가 심화되었다.⁴²⁾ 또한, 이 시기 비파형 동검의 출토가 이어졌다. 여수 적량동유적에서는 하나의 고인들군에서 비파형동검이 7점이나 출토되었으며, 대전 비래동 1호 고인들에서도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다.

1990년대 초 고인들 발굴의 최대 성과로 볼 수 있는 창원 덕천리유적이 조사되었다. 덕천리 1호 고인들은 대규모의 묘역을 갖추고 있는데, 규모는 장축 56m, 단축 17.5m이다. 이러한 거대한 묘역과 더불어 거대한 상석과 다단토광의 구조를 가진 매장주체부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들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되는 것이었다⁴³⁾. 따라서 개인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청동기시대 사회의 위계화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1993년에는 부여 송국리유적에서도 분묘 조사가 실시되어 기존에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석관묘를 포함하여 총 8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⁴⁴⁾ 이러한 무덤들의 성격에 대해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석관묘를 정점으로 한 지배자와 그 지배자집단의 구성원의 무덤 즉 송국리유적의 지배자집단의 무덤으로 상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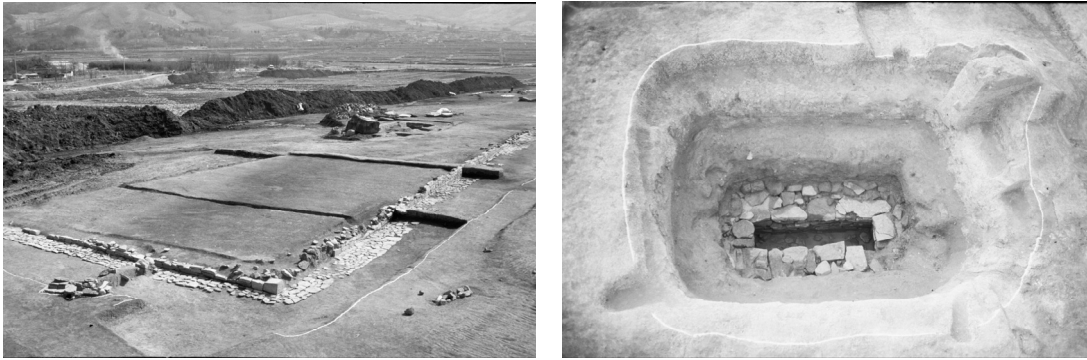
40)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41) 全榮來, 1991, 「韓半島 支石墓의 型式學的 展開」, 『九州考古學』第56號, 九州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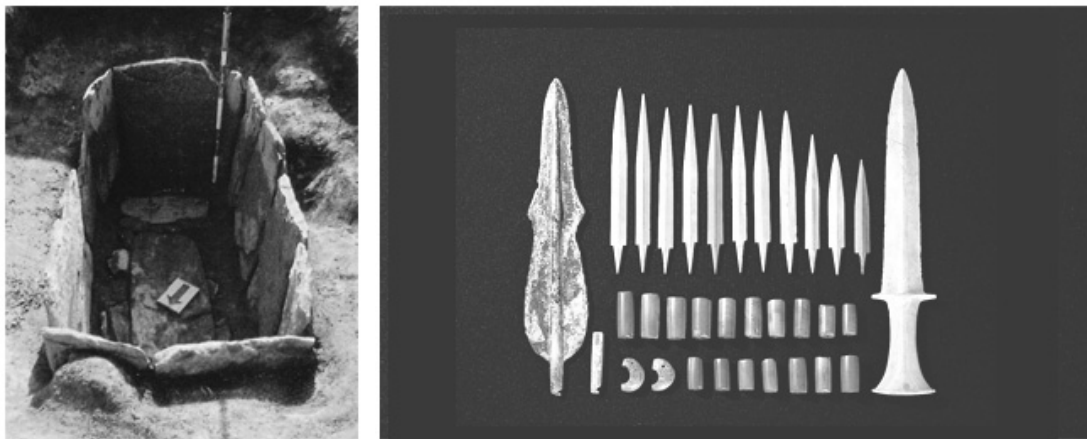
42) 池健吉, 1990, 「앞의 글」.

43) 李相吉, 1993, 「昌原 德川里遺蹟 發掘調査 報告」, 『三韓의 考古學』 第17會 韓國考古學全國大會, 한국고고학회.

44) 金吉植, 1998, 「부여 송국리 무문토기시대묘」, 『고고학지』 9, 한국고고미술연구소.



<그림 2> 창원 덕천리유적 1호 고인돌 및 매장주체부



<그림 3> 부여 송국리 석관묘 및 출토유물

2) 2000년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형 개발사업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재조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동기시대 무덤조사도 함께 증가하여 자료의 양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유적과 유구도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그 결과 증가된 묘제 자료에 대한 정리 작업과 그 양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여 다양한 논문과 함께 관련 학술대회가 많이 개최되었다(한국상고사학회 2003; 동북아고인돌연구소 2004, 2007; 한국고고학회 2006;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고인돌의 분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한반도 고인돌을 대상으로 한 연구(鄭漂德·李在賢 1998)와 전남지역의 고인돌을 대상으로 한 연구(趙鎭先 2004; 黃在燾 2006)로 나누어진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묘제인 주구묘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기적 변천이나 그 기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金權中 2008).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묘역시설의 존재(김해 구산동유적, 창원 덕천리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등), 매장주체부의 지하화(창원 덕천리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등), 분구형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무덤(마산 진동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초전동유적 등) 등 다양한 고인돌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중 묘역시설을 갖춘 고인돌과 관련하여, 이상길(1996)은 묘역시설을 가진 고인돌을 포함한 각종 묘제에 대해 그 기능적 측면, 즉 他者로부터의 구분 혹은 구획이라는 뜻을 강조하여 ‘구획묘(區劃墓)’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고, 다단토광, 다중개석, 적석, 봉토, 집석, 묘역 등의 요소를 갖춘 무덤을 ‘구획묘’라고 명명하였다(李相吉 2006). 이러한 묘역시설을 갖춘 무덤에 대해 고인돌의 형식 중 하나로 파악하여 ‘묘역식 고인돌’로 부르기도 하며, 지역명이나 구조를 토대로 ‘용담식 고인돌’ (金承玉 2006)나 ‘적석부가고인돌’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구획묘’나 ‘묘역식 고인돌’과 같이 고인돌의 한 형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인돌 구조에 따른 세부속성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호필(2009, 2010)의 연구에서 묘역시설이 고인돌의 모든 형식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별개의 형식이 아닌 고인돌의 구조적 속성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한편, 안재호(2009)는 주구묘도 ‘구획묘’의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논하였는데, 묘역의 구획방법에 따라 주구식, 부석식, 석축식, 집석식 구획묘로 분류하였다. 이에 전기후반의 늦은 단계에는 부석식·주구식 구획묘가 등장하고 중기에는 석축식·집석식 구획묘가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청동기시대를 계층사회 또는 복합사회로 인식하고, 이를 무덤자료와 출토유물을 통해 밝히려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호필(2000)은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무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무덤 및 무덤군의 위계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무덤 보다는 집단의 위계화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고고학회에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주제로 한국고고학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韓國考古學會 2006). 김승옥은 분묘자료를 통해 청동기시대 묘제를 네 개 시기로 구분했는데, 세대공동체 리더의 출현, 유력세대공동체의 등장, 유력세대공동체의 성장, 지역지배자와 족장사회의 등장 순으로 설명하였다(金承玉 2006). 배진성은 계층구조와 ‘國’의 형성에 대해 동검이나 석검이 출토된 무덤과 다른 부장품과의 세트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논하였다(裴眞晟 2006).

한편, 고인돌에 대한 지역별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석사·박사학위 논문들이 중심이 되었다. 전남지방, 전북지방, 여수반도, 도서지역, 영산강유역, 보성강유역, 서부경남, 영남지역, 포항지역, 금강유역, 한강유역, 북한강유역, 경기지역, 강화도지역, 강원도지역 등 각 지역별로 보다 세분된 연구가 전개되었다(平郡達哉 2004; 김진영 2001; 김진환 2012; 선재명 2001; 박덕재 2012; 김광명 2001; 이세주 2002; 김정현 2011; 이진택 2003; 김진 2005; 오대양 2006; 정연우 2000; 김규호 2001; 우장문 2004; 강동석 2002; 홍인국 2003; 김규호 2010)

다음 고인돌 축조의 실험고고학적 연구는 채석, 운반, 가공, 축조 등 일련의 축조과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축조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석의 운반과 관련된 연구와 실험만이 이루어졌다(이종철 2003; 지건길 1983; 최성락·한성욱 1989; 하문식

2007b; 하문식·김주용 2001). 그 중 최성락·한성욱의 연구는 실험고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후 진안 여의곡에서 상석 운반로로 판단되는 유구가 확인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석운반 실험은 채석 및 운반 기술(운반틀, 이동경로 등)을 통한 기술적 검토와 대규모의 인력동원이라는 사회·정치적인 맥락에서의 검토는 할 수 있지만(배덕환 외 2008; 이상균 1999, 2000; 이영문·김승근 1999; 조진선 2003, 2004b; 최몽룡 1973), 석재축조기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묘역시설, 묘광, 매장주체부)에 대한 구체적인 축조 복원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윤호필·장대훈(2009)의 고인돌 축조 복원 실험이나 석재가공 실험을 통해 축조과정을 연구하여 보다 구체적인 축조방법을 파악하였다.

한편 청동기시대 무덤자료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의례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李榮文 1993; 李相吉 2000), 매장주체부의 내외, 묘역시설 등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과 함께 이러한 유물의 출토위치 정황을 토대로 하여 청동기시대의 무덤축조·매장에 관한 여러 의례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영문(1993)은 전남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 출토 마제석검의 부장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고인돌 출토유물을 매장주체부 안에서 출토된 부장용과 매장주체부 주변이나 적석 사이에서 출토되는 의례용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이상길(2000)은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묘지의 선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의례행위를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부장풍습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제사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인 고고자료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조영제(1998)와 하인수(2000)는 인위적으로 석검이나 석촉을 파괴(破壞)시켜 여러 개로 깨진 유물을 피장자의 곁과 관외묘광 등의 공간에 매장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검(破劍)·과촉(破鏃)’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바가 있다. 김현(2005)은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의 변화를 논하면서 토기 부장위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밝혔다. 윤호필(2007)은 경기도지역의 고인돌 자료를 중심으로 고인돌의 축조단계별 장송의례 양상을 의례흔적, 유교장제, 민족지 사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이상길의 고인돌 장송의례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검토한 것이다. 平君達哉(2008)는 경남지역 출토 자료를 바탕으로 관외부장행위의 성격부여, 영남지역 분묘출토 마제석검의 성격부여를 시도하였다. 이후 유절병식석검(有節柄式石劍)의 편년과 분포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 말부터 고인돌에서의 매장의례의 공유가 존재했던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張龍俊·平君達哉 2009). 최종규는 경남지역 무덤에서 보이는 적색마연토기의 출토위치와 상태를 실마리로 묘광제(墓壙祭), 축관제, 입관제, 삼입제, 개석제라는 명칭을 쓰이며 묘지 축조에 따른 제사의 존재를 지적하였다(崔鍾圭 2010).

석관묘 연구는 두 번째 석사논문이 25년 만에 발표되었는데, 2001년 오규진⁴⁵⁾이 발표한

45) 오규진, 2001, 「중서부지역 석관묘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서부지역 석관묘 연구」이다. 형식분류는 이중선과 지건길의 분류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먼저 석재에 따라 판석식과 활석식으로 나누고, 판석식은 단판식과 복판식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벽석 축조방식은 횡치한 것, 종치한 것, 횡치와 종치의 혼합으로 구분하였으며, 바닥처리는 요갱의 유무, 수석, 토기로 한 벌 깎 것, 생토를 이용한 것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공반유구와 유물을 검토하여 개개 석관묘의 단계설정과 각 단계별 의미를 파악하였다. 김승욱(2001, 2003)⁴⁶⁾은 송국리문화권인 금강유역 석관묘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송국리형 묘제’와 연결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국리형 묘제를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가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석관묘의 분류는 묘광의 축조방식과 깊이에 따라 일단석관묘와 이단석관묘로 크게 나누었다. 일단석관묘는 개석으로 세분하는데, 단판으로 덮은 것, 판석재 개석 위에 활석재를 덮은 것, 활석재로만 덮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단석관묘는 2단으로 굴광을 하고 하단에 석관을 설치한 것으로, 그 상단은 흙으로 채운 것과 상단 상부에 부석한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송국리형 묘제의 개념으로 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진 2006; 김현 2005, 2006; 손준호 2009; 황재훈 2009).

5. 2010년~현재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반부터는 개발속도가 빨라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적조사도 개발사업과 맞물려 199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 수가 그 이전 시기의 조사된 전체 유적 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되었다. 따라서 고고자료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무덤자료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또한, 유적조사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고고자료의 증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구의 진행은 더딘 편이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자료와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자료들이 확인되면서 무덤연구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졌다. 따라서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2000년대에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이 더 세분되고 심화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먼저 고인들의 형식분류 및 변천 관련 연구는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초창기 무덤연구부터 시작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연구주제로 많은 연구와 함께 연구성과도 어느 정도 확립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많이 진행되었고 연구성과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관련 연구는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고인들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동기시대 초기 고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 중이다(배진성 2011; 이영문 2011). 이 시기 가장 많은 연구는 지역 단위 연구이다. 지역 단위

46) 김승욱,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45.

김승욱, 2003, 「금강 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 『韓國考古學報』49.

연구도 소단위권과 광역단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단위권은 주로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대구지역(허정화 2013; 김광명 2015; 이수홍 2017), 춘천지역(임성빈 2017; 송만영 2018), 경주지역(박영구 2017; 이수홍 2020), 함안지역(이동희 2021), 진안지역(이재열 2016), 여수지역(오세미 2018), 강화도지역(강동석 2020, 2021) 등으로 석사학위를 중심으로 정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광역단위권은 도 단위의 행정구역이나 하천중심의 유역권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이 주를 이루면 전국 각지에 대한 연구가 고루 이루어졌다. 영남지역(김정현 2012; 김광명 2017; 우명하 2013, 2016, 2017; 윤성현 2013; 이수홍 2020), 호남지역(이영문 2014; 최성훈 2015; 박덕재 2012; 강진표 2016), 호서지역(민은숙 2017), 도서지역(김진환 2012).

송국리형 묘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기존 연구성과에서 벗어나 다른 묘제들과의 관계나 기존의 연구성과를 재검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오대양 2021, 이명훈 2015). 고인들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인들의 제단기능(김광명; 서길한 2009; 최상태 2012), 상징적 의미(김성현 2015; 윤호필 2009, 2017), 고인들의 다양한 기능(이영문 2011, 2015; 이동희 2017, 표인주 2013) 등 이전 시기보다 연구의 다양성과 연구 주제가 많아졌다. 고인들의 축조와 의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윤호필(2013)은 고인들의 축조과정과 의례양상을 함께 검토하면서 외국의 민족지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성주(2012)는 고인들을 의례 기념물로 파악하여 개인묘의 발전과 함께 검토하였으며, 송호인(2020)은 묘역시설이 설치된 고인들을 재검토하여 의례와 상징 매체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 중 중요한 연구주제로 고인들 사회와 문화, 고인들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강동석(2011, 2018, 2019)은 GIS를 활용하여 고인들의 공간분석과 고인들사회의 네트워크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김선우(2011)도 주거지와 고인들의 공간분석을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고인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이나 위계화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김권구 2018; 김범철 2010a, 2010b, 2012).

석관묘 연구는 국내에서는 지역단위 연구로 김소담(2019)의 연구가 주목된다. 영남지역 석관묘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방선지(2017)는 금호강 상류역의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호서지역은 황재훈(2021)에 의해 일부 검토되었다.

II. 청동기시대 무덤연구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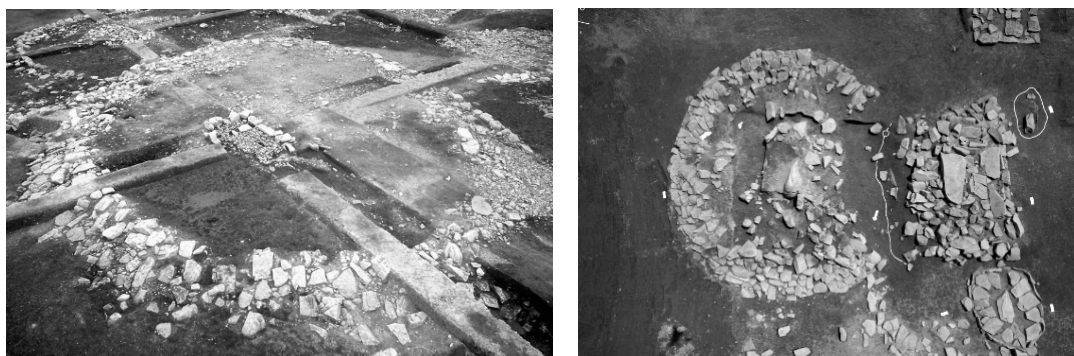
1. 형식분류의 문제

무덤의 형식분류는 대부분 외형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크게 나누고 구조에 따라 세분하는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무덤 중 외형적인 형태와 구조가 가장 다양하고 복잡

한 고인들의 경우 지역적 분포(北方式, 南方式), 조사지역(침촌리형-무지석식, 오덕리형-북방식), 외형적인 형태(탁자식, 기반식), 매장주체부의 위치(地上式, 地下式 또는 接地形, 離地形) 그리고 전형(북방식)과 변형(남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영문 1993:94).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안은 탁자식(북방식), 기반식(남방식), 개석식, 위석식의 4가지 분류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방법은 여러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고인들의 외형적인 형태나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무덤이 성격이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또한, 형식분류된 용어 자체는 외형적인 형태는 설명하고 있지만 각 형식의 특징이나 속성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무덤의 형식분류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형식분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무덤 형태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창원 진동리 유적에서 처음 확인된 ‘분구형태의 무덤’이다. 진동리유적은 대규모 무덤군으로 여러 개의 무덤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묘역시설을 갖춘 무덤과 석관묘가 확인되었다. 이 중 묘역시설을 갖춘 무덤은 크게 원형의 묘역과 장방형의 묘역을 설치하였는데, 원형의 묘역 중에서 일부가 분구형태로 조성된 것이다. 원형묘역은 먼저 흙을 반구형태로 쌓고 표면에 할석을 붙이고 중심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였다.

쟁점은 이러한 형태의 무덤을 고인돌로 분류할 것인지와 고인돌로 분류할 경우 기존의 분류법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식으로 구분할 것인지이다. 먼저 고인들의 가장 큰 기준은 상석의 유무인데, 진동리유적에서 원형묘역이 설치된 무덤에서는 상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된 진주 가호동유적에서 분구형태의 묘역을 가진 무덤 상부에서 상석이 확인되어 고인들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구형태의 묘역은 흙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할석으로 저분구형태로 조성한 고인돌은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유적이나 진안 여의곡유적 등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묘역의 형태도 고인들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에 상석의 존재와 비슷한 형태의 묘역이 확인됨으로 분구형태의 묘역을 갖춘 무덤도 고인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그림 4> 마산 진동유적 A군 1호(봉토형 묘역), 진주 가호동유적 3호(봉토형 묘역)

그럼, 분구형 묘역시설을 갖춘 고인돌을 어느 형식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

다. 기존의 분류형식으로는 지석이 없고 상석이 개석 역할을 하므로 개석식 고인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구의 묘역’ 형태는 일반적인 개석식 고인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와 구조이다. 특히, 개석식 고인돌의 경우는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설치되는 것이 기본구조인데, 분구형 고인돌은 분구형태의 묘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설치된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설치위치로 보면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형식분류안은 기존의 형식분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도 보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덤을 분류에 추가하였다. 이에 무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매장기능’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파악하여 피장자가 묻힐 위치를 가장 큰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장법의 문제(전통성)’ 이자 무덤의 중요기능인 ‘시신 보관방법의 문제(무덤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기본 전제로 하고, 나머지 제 속성들을 세분화하였다. 세부속성은 상석⇒묘역⇒매장주체부 순으로 분류하였다.

형식분류는 먼저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따라 지상식(I형)과 지하식(II형)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속성에 따라 세분한다. 지상식 고인돌(I형)은 탁자형 고인돌(IA형)과 위석형(類似石槨形) 고인돌(IB형)로 구분되며, 지하식 고인돌(II형)은 기반형 고인돌(IIA형)과 개석식 고인돌(IIB형)로 구분된다. 나머지는 매장주체부의 형태에 따라 석축석관(1형), 상형석관(2형), 목관(3형), 토광(4형)으로 나누어진다⁴⁷⁾.

〈표 1〉 지석묘의 형식분류

| 매장주체부의 위치⇒ | 지상식지석묘(I형) | | 지하식지석묘(II형) | |
|-----------------------|-----------------|-----------------|------------------|------------------|
| 지석묘의 형태 (지석의 유무) ⇒ | 탁자형지석묘 (IA형) | 위석형지석묘 (IB형) | 기반형지석묘 (IIA형) | 개석형지석묘 (IIB형) |
| 묘역의 유무⇒ | 묘역 설치(a형) | 묘역 미설치(b형) | 묘역 설치(a형) | 묘역 미설치(b형) |
| 매장주체부의 형태⇒ | 석축석관 (1형) | 상형석관 (2형) | 목관 (3형) | 토광 (4형) |

둘째는 묘역시설을 갖춘 무덤을 새로운 형식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분류 안에 포함할 것인지 이다. 이 쟁점은 초기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고인돌에서 묘역이 확인되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 이상길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었다. 기존에는 積石附加支石墓(노혁진 1986), 돌간무덤(하문식 1990), 積石(이영문 1993), 敷石墓(문화재연구소 1994) 등으로 알려졌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이후 창원 덕천리유적이 조사되면서 거대 묘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자료들의 나타나면서 이상길(1996)에 의해 ‘구획묘(區劃墓)’ 용어로 새롭

47) 매장주체부는 분류된 4가지 외에 ‘판석과 목재’가 혼합된 형태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아직 출토예가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류기준에서는 제외하였다. 진주 평거 3-1지구유적, 김해 울하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게 정립되었다. 구획묘는 ‘구분 또는 구획’의 의미가 크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이며, 구획묘 자체를 고인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후 구획묘를 보완하는 여러 논문에서 구획묘의 개념을 ‘다단묘광, 다중개석, 적석, 봉토, 증석, 묘역시설 등의 요소를 갖춘 분묘’로 확대하였다(이상길 2006). 이후에도 大平里型石棺(이주헌 2000), 周溝石棺墓(하인수 2000), 龍潭式支石·墓·域式支石墓(김승욱 2006), 周溝墓(김권중, 2007), 菴石墓(경남발전연구원 2008)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획묘를 비롯한 묘역이 설치된 무덤들은 기존의 무덤들과 묘역을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며, 구조가 복잡한 고인들의 경우에도 구별하기 어렵다. 다만 묘역이 설치된 무덤이 가지는 특성이 일반 무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묘역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묘역이 모든 형식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양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윤호필 2009).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되고 묘역의 기능과 의미가 추가되었지만 이를 형식분류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향후 새로운 발굴성과와 함께 양자 간의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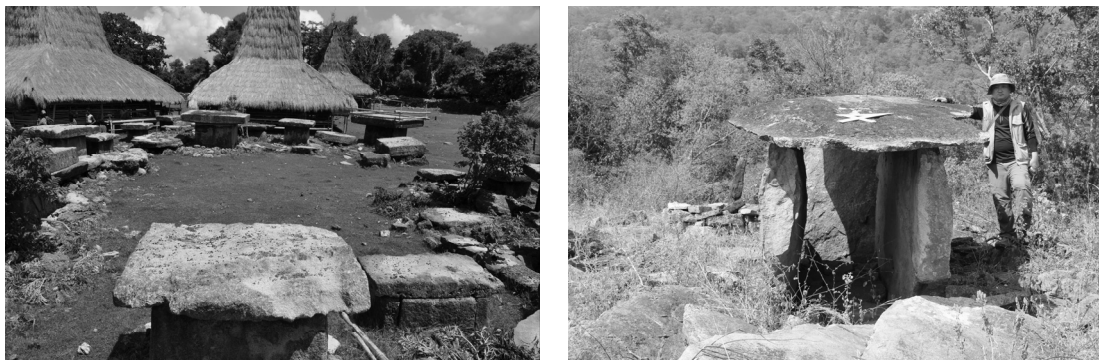
2. 고인들의 축조시기 문제

한반도에 고인들이 처음 축조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고,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 또한, 고인들의 하한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연구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축조시기의 문제는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따라 하한이 달라지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무덤의 기원에 관한 초창기 연구들로서 크게 4가지 정도이다. 첫째, 유럽 거석묘의 전파설. 둘째, 지석묘의 밀집도와 수량으로 인한 한반도 자생설(梅原末治 1946; 三上次男 1961). 셋째, 중국 동북지역의 석관묘를 기원으로 하는 북방기원설(金元龍 1974·1986; 金貞姬 1988). 넷째, 동남아시아로부터 도작문화와 함께 기반식지석묘가 전래되었다는 남방기원설(八幡一郎 1952; 도유호 1959, 1960; 金秉模 1981) 등이 있다. 이들 기원론은 이후 추가적인 논의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다만, 자생설과 북방기원설은 석관묘와 관련된 것으로 지석묘의 매장주체부와 관련성이 깊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무덤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초창기 연구들이 한정된 자료와 연구성과를 통해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자료 확보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석문화와 관련된 해외자료를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무적인 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 해외 거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사와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유학한 학자

를 중심으로 한국 거석문화와의 비교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해외 연구지역은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지역의 인도네시아와 인도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중국지역은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고인돌과 석관묘와 관련된 연구들이 현지조사와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관한 연구는 華玉冰(2011), 오강원(2011, 2012, 2017, 2019), 오대양(2014, 2019), 유태용(2011)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은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미야모토 가즈오 2011).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의 거석문화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가종수 교수(가종수 2009, 2012, 2013)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거석문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거석문화 관련 연구는 이동희(2011), 임영진외(2011), 조진선(2013) 등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도지역은 이 지역에서 유학한 이헌재(2011, 2014, 2016, 2017, 2018, 2019)가 주도적으로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으며,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서는 현지조사와 함께 학술대회도 개최하여 양 지역 거석문화를 비교·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4). 이러한 해외 조사 및 연구 활동은 한국의 청동기시대 무덤의 기원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거석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청동기시대 무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림 5〉 인도네시아 솜바섬 고인돌(우), 인도 와라뚜라유적 고인돌(좌)

3. 송국리형 묘제와 고인돌과의 관계

송국리문화의 중심지인 금강중하류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의 세트를 송국리형 묘제라고 하며, 송국리문화의 대표 묘제로 인식되고 있다(김승욱 2001). 또한, 송국리문화권 전반에서 확인되어 송국리형 주거지의 분포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욱 2006). 그러나 관련 자료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양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석관묘의 구조에서도 여러 매의 판석을 잇대어 세워 축조한 것 뿐만 아니라 가로로 세우거나 양자를 혼합하여 축조한 것도 확인된다. 또한, 석관의 재료에서도 할석과 판석을 혼합한 형태 등도 확인되어 보다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졌다(오규진 2001). 옹관묘의 경우도 새롭게

횡치 옹관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옹관의 설치방법도 다양해졌다(孫峻鎬 2009). 즉, 각 무덤의 축조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전형적인 세트관계 외에도 보다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 역시 송국리형 주거지의 분포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전형적인 묘제의 특정 요소가 탈락하거나 변형하거나 송국리형 묘제의 영향력이 없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렇게 송국리형 문화권에 속하지만 송국리형 묘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국리문화는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문화요소로서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무덤이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고인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고인돌은 송국리형 묘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인돌 축조가 활발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송국리형문화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송국리형 묘제와 고인돌을 배타적 관계로 보았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금강중하류역의 송국리형 묘제와 고인돌과의 관계이다. 양자의 축조집단이 다르다는 견해(김승욱 2001)와 축조집단은 모두 송국리집단으로 동일하지만 묘제 자체가 배타성을 갖는다는 견해(손준호 2009)로 구분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견해 모두 고인돌과 송국리형 묘제를 배타적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송국리형 묘제와 고인돌은 상호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송국리형 문화양상이 떨어지는 경기남부지역, 전남 남해안지역, 영남지역 등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고인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송국리형 묘제의 존재는 알았지만 송국리문화단계 이전부터 존속된 무덤문화인 고인돌 문화가 더 우세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취락과 농경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는 송국리형 문화이지만 무덤문화는 이전의 전통이 지속되어 보다 발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취락과 무덤관련 자료는 증가하였지만, 송국리형 묘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확립과 고인돌과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4. 향후 무덤연구의 방향성

앞서 무덤연구의 시기별 흐름과 중요한 연구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무덤연구는 초창기에는 고인돌과 석관묘를 중심으로 무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검토하여 초석을 다졌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폭발적인 자료증가에 힘입어 다양한 무덤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사된 무덤 자료들이 하나 둘 정리되면서 종합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형식분류와 편년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통해 고인돌 전반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고인돌의 구조, 기원, 사회복원, 상석운반, 장례의식, 농경과의 관계, 위계화의 진전과 사회구조화 등 다방면에서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도 깊은 연구나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적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이 확인되고 무덤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방향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

- ① 고인돌과 관련된 합리적인 용어 정립 필요
 - 고인돌 형식, 고인돌 속성 명칭 등
- ② 고인돌의 기능에 따른 성격 규명이 필요
 - 가장 기본적인 매장기능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거석기념물, 제단, 묘표석, 교통로 표지석, 취락의 경계, 가매장 시설 등
- ③ 고인돌 형식분류에 대한 개념 확립과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외형적 형태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기능과 특징이 포함된 분류안이 필요함
- ④ 고인돌의 출토유물(부장유물, 의례유물)에 대한 의미와 성격을 새롭게 검토
 - 부장유물과 부장위치에 따른 성격과 의미
 - 의례유물은 장송의례 과정 복원과 각각의 의미를 검토함
- ⑤ 고인돌의 형식편년 방법과 합리적인 연대 설정 문제이다.
- ⑥ 고인돌의 축조방법 및 석재가공에 대한 실험고고학적 연구 필요
 - 축조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험고고학이 필요함
 - 상석채석 및 운반과정에 대한 실험고고학 필요
 - 상석의 무게측정, 노동력 복원
- ⑦ 거석기념물로서 사회구조와 신앙에 대한 복원 문제 검토
 - 거석문화의 관점에서 고인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거석문화와의 비교연구 필요
- ⑧ 고인돌 보존과 활용 문제
 - 세계유산적 가치 창출, 체계적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

Ⅲ. 맺음말

우리나라의 무덤연구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100년이 넘는 기간이다. 초창기 무덤연구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무덤’이라는 인식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하나의 계통으로 파악하고 형식분류를 통해 그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무덤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전국 각지의 고인돌을 조사하여 『韓國支石墓研究』라는 하나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현재의 관점으로는 미비할 수

있겠지만, 고인돌에 대한 기록과 검토 해석은 향후 무덤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1980년대부터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사유적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덤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자료가 축적되더라도 발굴조사의 질과 연구자의 관점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현재는 관련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따라서 자료의 관리부터 분석과 해석까지 다양한 기법들도 필요할 것이다.

본 발표문은 한국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향후의 연구방향도 현재 진행형이다. 자료의 축적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이고, 아는 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굴조사 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약 3,500개소 정도이며, 이 중 무덤유적은 약 900여개소이다. 전체 청동기시대 유적의 1/3이 조금 안되는 수이지만 단일 유구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무덤유적은 청동기시대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유적과는 청동기시대 문화를 밝혀낼 수 있는 유구이다. 특히, 청동기시대인들의 세계관과 내세관 등의 다양한 사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한 발굴조사와 자료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새롭게 나타날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가중수, 2009, 「지금도 살아있는 지식묘 사회 숨바شم」,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바شم의 지식묘 사회』, 북코리아.
- _____, 2012, 「동인도네시아 사부 섬의 지식묘 :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라진 거석문화의 전통」, 주류성출판사.
- _____, 2013,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의 지식묘 : 20세기까지 유지해온 '살아있는 거석문화」, 주류성출판사.
- 甲元眞之, 1980, 「朝鮮支石墓의 再檢討」, 『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放』.
- 강동석, 2002, 「강화 북부지역 지식묘사회의 취락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GIS를 활용한 지식묘 공간분포패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 : 고창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中央考古研究』 제8호, 中央文化財研究院.
- _____, 2018, 「지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9, 「지식묘사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검토」,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0, 「강화도 지식묘 축조의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韓國考古學會.
- _____, 2021, 「강화도 지식묘 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 재고: 지식묘, 주거지, 경관 해석을 중심으로」, 중부고고학회.
- 강진표, 2016, 「전남지역 묘역지식묘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 경남발전연구원, 2008, 『馬山 鎮東遺蹟』 I.
- 김광명, 2001, 「대구 경산지역 지식묘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5, 「大邱地域 靑銅器時代 巨石記念物과 무덤」, 영남문화재연구원.
- _____, 2017, 「洛東江 中·上流域 지식묘의 특징」, 영남문화재연구원.
- 김광명·서길한, 2009, 「영남지역의 제단식 지식묘 연구」, 『科技考古研究』 제15호, 아주대학교 박물관.

- 김권구, 2018,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계층관계와 암각화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퇴계연구소
- 김권중, 2007, 「강원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인돌」, 『아시아 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김길식, 1998, 「부여 송국리 무문토기시대묘」, 『고고학지』 9,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김범철, 2010, 「湖西地域 지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제68호,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0, 「湖西地域 支石墓의 시·공간적 특징」, 『韓國考古學報』 74,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2, 「巨石記念物과 社會政治的 發達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 : 남한지역 지석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화를 위하여」, 韓國上古史學會.
- 金秉模, 1981, 「韓國 巨石文化의 源流에 관한 研究 (I)」, 『韓國考古學報』 10·11合輯, 韓國考古學會.
- 김성현, 2015, 「동북아시아 대형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 김소담, 2019,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석관묘의 시·공간적 전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욱, 2006, 「墓域式(龍潭式) 支石墓의 展開過程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53,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5,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3, 「금강 상류 무문토기시대 무덤의 형식과 변천」, 『韓國考古學報』 49.
- _____, 2006, 「墓域式(龍潭式) 支石墓의 展開過程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53, 韓國上古史學會.
- 金載元·尹武炳, 1967,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 김정현, 2011, 「영남지방 지석묘 문화의 지역색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8, 「韓半島における支石墓研究の最近動向とその成果」, 『アジアの巨石文化-ドルメン支石墓考-』, 六興出版.
- _____, 1988, 「東北아시아 支石墓 研究」, 『崇實史學』 5.
- 김진, 2005, 「금강상류 청동기시대 묘제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일고찰」,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1, 「여수반도 지석묘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 2005, 「경남지역 무문토기시대 무덤에 대한 연구-전,중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혁진, 1986, 「적석부가지석묘의 형식과 분포-북한강유역의 예를 중심으로」, 『한림대학논문집』 4 인문·사회과학편, 한림대학교.
- 도유호, 1959, 「朝鮮巨石文化研究の研究」, 『문화유산』 1959-2.
- 藤田亮策, 1937, 「第五 大邱大鳳町支石墓調査」,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調査研究會.
-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 文化財管理局, 1974, 『八堂·昭陽댐 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 報告書』.
- 文化財研究所, 1994, 『晉陽 大坪理 遺蹟』.
- 미야모토 가즈오, 2011, 「규슈(九州)지역의 지석묘」, 『한국의 고고학』 통권 제18호, 주류성출판사.
- 민은숙, 2017, 「금강유역 및 충남서해안지역 지석묘의 일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덕재, 2012, 「보성강유역 지석묘문화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구, 201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변천」, 영남문화재단연구원
- 박희현, 1984, 「한국 고인돌 문화에 대한 고찰-상한연대를 중심으로-」, 『韓國史所究』 46輯.
- 방선주, 1968, 「韓國磨製石劍の研究」.
- 방선지, 2017, 「금호강 상류역 청동기시대 무덤」, 『영남문화재단연구』 제30집 영남문화재단연구원.
- 배진성, 2006, 「무문토기사회의 위세품 부장과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 배진성, 2011, 「墳墓 築造 社會의 開始」, 『韓國考古學報』 80, 韓國考古學會.

- 백종오·오대양, 2014, 「遼東地域 支石墓의 研究成果 檢討」, 東아시아古代學會.
- 樞本杜人, 1952, 「大邱大鳳町支石墓群について」, 『考古學雜誌』 38-4.
- _____, 1959, 「朝鮮先史墳墓의 變化過程とその編年」, 『考古學雜誌』 43-2.
-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古墳の研究』, 吉川弘文館.
- 석광준, 1979,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집』 7.
- 선재명, 2001, 「영산강유역의 지석묘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준호, 2009, 「湖西地域 靑銅器時代 墓制의 性格」, 『先史와 古代』 통권 제 31호, 韓國古代學會.
- 손진태, 1934, 「朝鮮 Dolmen考」, 『開闢』 1, 開闢社.
- _____, 1948, 「朝鮮 돌멘에 關한 調査 研究」, 『韓國 民族文化의 研究』.
- 송만영, 2018, 「춘천 지역 지석묘 구조 변화와 지석묘군의 조성 과정」,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송호인, 2020, 「墓域附加支石墓 : 청동기시대의 의례·상징 매체」,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강원, 2011, 「中國 考古學界의 大石蓋墓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와 새로운 提案」, 『고조선단국학』 제25호, 고조선단국학회.
- _____, 2012a, 「東洲河 流域~蘇子河 下流域의 支石墓와 梁貊」, 東아시아古代學會.
- _____, 2012b, 「遼東 南部 地域 支石墓의 立地와 長軸 方向 設定 背景과 패턴」, 『동아시아문화연구』 제 51집, 한양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c, 「遼東 南部 地域 支石墓의 무덤 배치 유형 분류와 조성 맥락」, 국민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2d, 「靑銅器文明 周邊 集團의 墓制와 君長社會 : 遼東과 吉林地域의 支石墓와 社會, 湖西考古學會.
- _____, 2019, 「동북아시아 지석묘의 표상 : 전통과 변형」, 釜山考古學會.
- 오규진, 2001, 「중서부지역 석관묘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대양, 2006, 「한강분류 유역의 고인돌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9, 「요동~서북한지역 고인돌 축조집단의 성격과 그 주변」, 湖南文化財研究院.
- _____, 2021, 「금강하류지역 석관묘제의 구조와 성격 : 청동기시대 묘제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예비적 검토」, 『선사와 고대』 제66호, 한국고대사학회.
- 오세미, 2018, 「여수지역 지석묘의 전개과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 우명하, 2013, 「嶺南地域 墓域支石墓의 展開」, 영남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6,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嶺南考古學會.
- _____, 2017, 「금호강하류역 지석묘의 변천과 성격」, 영남문화재연구원.
- 우장문, 2004,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有光教一, 1959, 『朝鮮磨製石劍の研究』.
- 유태용,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 _____, 2011, 「遼東地方의 '大石蓋墓'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국학』 제24호, 고조선단국학회.
- 윤성현, 2013, 「경남지역 묘역식 지석묘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윤호필, 2000, 「銅劍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에 關한 研究」, 慶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7, 「경기도 고인돌의 장송의례」 『경기도 고인돌 연구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고인돌 조사보고서 발간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경기도박물관.
- _____, 2009, 「靑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關한 研究-機能과 意味를 중심으로-」, 『慶南研究』 創刊號,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0,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변천과 성격」, 『한일고고학의 신전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 _____, 2013,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7,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축조배경과 상징성」, 한국청동기학회.

- 윤호필·장대훈, 2009, 「석제가공기술을 통한 청동기시대 무덤 축조과정 연구」, 『韓國考古學報』 70, 韓國考古學會.
- 이남석, 1985, 「청동기시대 한반도 사회발전단계 문제」, 『백제연구』 6輯 .
- 이동희, 2011, 「인도네시아 슴바섬과 한국 지석묘 사회의 비교 연구」, 『湖南考古學報』 38,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7, 「지석묘의 재활용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會.
- _____, 2021 「함안지역의 지석묘 사회」, 『史林』 제 67호, 首善史學會.
- 이명훈, 2015, 「송국리묘제 검토」, 『한국고고학보』 제97집, 한국고고학회.
- 이상길 2006, 「구획묘와 그 사회」, 『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요지.
- _____, 1993, 「昌原 德川里遺隨 發掘調査 報告」 『三韓과 考古學』 第17會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 _____, 1996, 「靑銅器時代 무덤에 대한 일시각」, 『碩晤 尹容鎭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 _____,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성주, 2012, 「儀禮,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 湖西考古學會
- 이세주, 2002, 「영남지역의 지석묘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홍, 2017,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에서의 무덤 축조 변화 : 월배지역 적석유구와 적석주거지를 검토하여」, 영남문화재연구원.
- _____, 2020, 「경주 지역 지석묘 문화의 특징과 종말기의 양상」,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 2020, 「영남지역 지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한국상고사학회.
- 이영문, 1987, 「全南地方 支石墓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20輯.
- _____, 1988, 「全南地方 支石墓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社.
- _____, 2011,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 가매장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韓國靑銅器學報』 제8호,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11,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 가매장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韓國靑銅器學報』 제8호,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14, 「화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특징」, 鄉土文化開發協議會.
- _____, 2015, 「靑銅器時代 小形石室의 特徵과 意味」, 韓國文化史學會.
- _____,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용조, 1980, 「한국 고인돌 사회와 그 의식」, 『東方學志』 23·24집.
- _____, 1981, 「양평 양덕리 고인돌문화」, 『한국의 선사문화』, 探求堂, pp 213-262.
- 이용조·우종윤, 1988, 「黃石里 고인돌 文化의 문기방법에 관한 一考察」, 『博物館紀要』 4輯, 樓國大博物館.
- 이재열, 2016, 「鎭安地域 靑銅器時代 支石墓 社會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종선, 1977, 「韓國 石棺墓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1.
- 이주현, 2000, 「大平里型 石棺墓考」, 『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20周年紀念論叢』,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 이진택, 2003, 「포항지역의 고인돌에 관한 일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청규, 1985, 「濟州道 支石墓 研究」, 『耽羅羅文』 4輯.
- 이청규·장제근, 1991, 「濟州 고인돌 調査報告」, 濟州市.
- 이현재, 2011, 「남인도 거석문화의 현황과 성격 : 비누콘다(Vinukonda)와 콤뎀(Cumbum)지역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통권 제35호, 韓國古代學會.
- _____, 2014, 「남인도 치투르(Chittoor)지역의 지석묘 조사 연구. 1, 에구바카나탈라 체르브(Eguvakanatala

- Cheruvu)와 사라칼루(Sarakallu)마을의 지석묘를 중심으로」,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_____, 2016, 「남인도 Hire Benkal의 암채화와 지석묘」, 한국암각화학회.
- _____, 2017, 「남인도 Tavanampalle와 Mallayapally 마을의 지석묘와 암채화」, 한국암각화학회.
- _____, 2018, 「인도 암각화 유적의 성격과 특징」, 한국암각화학회.
- _____, 2019, 「요단강 유역 지석묘의 성격과 특징」, 한국성서고고학회.
- 임병태, 1964, 「靑銅器時代와 그 文化」, 『三星文化文庫』 89, p.165.
- _____, 1964, 「韓國 支石墓의 形式 및 年代問題」, 『史叢』 9, 高麗大學校 史學會.
- 임성빈, 2017, 「춘천 중도 적석총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임세권, 1976, 「韓半島 고인들의 妹合的 檢討」, 『白山學報』 20.
- 임영진외, 2011,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파세마고원의 거석유적」, 『湖南考古學報』 제38집.
- 藏田亮策, 1941, 「朝鮮の石器時代」, 『東洋史講座』 18.
- 전영래, 1991, 「韓半島 支石墓의 型式學的 展開」, 『九州考古學』 第56號, 九州考古學會.
- 田村晃一, 1988, 「東北アジアの支石墓」, 『アジアの巨石文化-ドルメン・支石墓考-』, 六興出版.
- 정백운, 1957, 「조선 고대 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57-2.
- 鳥居龍藏, 1917, 「平安南道 黃海道 古蹟調査報告」,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_____, 1926, 「朝鮮의 돌널(Les Dolmens de la coree)」, 『東洋文庫歐文紀要』 第1卷.
- 趙由典, 1992, 「第3章 靑銅器時代」, 『韓國先史考古學史』, 도서출판 가치.
- 조진선, 2004a, 「전남지방 지석묘와 보존현황」, 『세계거석문화와 고인돌-그 보존과 활용-』,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_____, 2004b,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43.
- _____, 2013, 「인도네시아 지석묘의 기원 : 중국 절강성 지석묘와 비교」, 『韓國上古史學會』.
- 池健吉, 1982, 「東北아시아 支石墓의 型式學的 考察」, 『韓國考古學報』 12.
- _____, 1983, 「墓制」 II, 『韓國史論』 13.
- _____, 1991, 「湖南地方 고인돌 形式과 構造」, 『韓國考古學報』 25輯.
- _____, 1997,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무덤」,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千葉基次, 2006, 「支石墓研究-支石墓と撐石墓-」, 『釜山史學』 第30輯, 釜山大學校 史學會.
- 최몽룡, 1973, 「원시채석문제에 대한 소고」, 『고고미술』 119.
- _____, 1981,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的 發生」, 『韓國史研究』 39, pp.1-14.
- _____, 1982,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編年」, 『震檀學報』 53·54, pp.1-10 .
- _____, 1978, 「全南地方 所在 支石墓의 型式과 分類」, 『歷史學報』 78.
- _____, 1991, 「湖南地方의 支石墓 社會」, 『韓國考古學報』 25輯.
- 최상태, 2012, 「청동기시대 제단유구에 대한 시론 : 영남지역 중심으로」, 경주문화원
- 崔盛洛·韓盛旭, 1989, 「支石墓 復元의 一例」, 『全南文化財』 2輯.
- 최성훈, 2015, 「전남 동남부지역 지석묘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5, 「전남 동남부지역 지석묘사회 변천과정」, 한국청동기학회.
- 崔鍾圭, 2010, 「龜山洞遺蹟 A2-1호 支石墓에서의 聯想」, 『金海 龜山洞 遺蹟 X-考察編』, 경남고고학연구소.
- 평군달재, 2004, 「전남지역 지석묘 사회 전개과정에 대한 일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인주, 2013, 「지석묘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하문식, 1990, 「한국 청동기시대 묘제에 관한 연구-고인돌과 돌간무덤을 중심으로」, 『박물관기요』 6, 단국대중앙박물관.
- _____, 1988, 「錦江과 南漢江流域 고인돌 文化의 比較 研究」,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지식산업사.

- 하문식·김주용, 2001, 「고인들의 덮개돌 운반에 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회』 34, 한국상고사학회.
- 한홍수, 1935, 「朝鮮의 巨石文化 研究」, 『震檀學報』 3, 震檀學會.
- 허정화, 2013, 「대구지역 지석묘사회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홍인국, 2003, 「강화 북부지역 족장사회의 실체」,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화옥빙,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 황기덕, 1965, 「무덤을 통해 본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회관계」, 『고고민속』 4.
- 황재훈, 2006, 「全南地域 支石墓의 形式分類와 變遷」, 『韓國上古史學報』 53,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2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과 전개」, 湖西考古學會.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제3발표

청동기시대 儀禮 패러다임과 연구 방향성

이종철 전북대학교 박물관

청동기시대 儀禮 패러다임과 연구 방향성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본 학술대회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를 모토로 故이상길 교수의 10주기를 의미 있게 추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새로운 유구와 유물의 발견을 통해 연구의 전환기를 만들었거나 새로운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으로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이룬 분야를 살펴보고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발표자에게 부여된 항목은 의례 연구이다. 의례는 사전적 의미로 ‘형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나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의례의 결과로 남은 것이지만, 의식(儀式)과 관련된 흔적에는 그 의식의 내용, 목적, 대상, 방법 등을 살필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위에 수반된 물질적 자료가 남아 있는 한, 일차적으로 의례 연구의 대상(이상길 2000: 2)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청동기시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의례들이 대부분 편린으로 발견되고 있는 점은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의례 관련 유물이나 유구는 전체 의례 과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시 행해졌던 의례의 전체 또는 의식의 절차를 복원해낼 수 없는 점은 가장 큰 한계인 것이다. 게다가 추정이나 가정의 연장으로 복원된 해석 역시 일반화를 기대할 수 없는 점도 의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의례 관련 고고학 자료를 ‘A는 B일 것 같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면서 공간성과 시간성을 확장해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해 가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득력 있는 해석과 논리적 전개는 의례를 복원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과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청동기시대의 의례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발굴조사 현장에서의 정확한 기록과 조사자의 객관적인 1차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례 연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고학적 증거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모든 행위를 종교적인 활동으로 분류해버리는 오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콜린 렌프류·폴 반 2004: 416)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발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청동기시대 의례 연구 성과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의례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다만 청동기시대 의례를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보완해가도록 하겠다.

II. 청동기시대의 의례 패러다임

1. 의례의 인식과 구성요소

의례는 청동기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멀게는 구석기시대 네안데르탈인의 매장에서 죽은 이를 위한 헌화의례로부터 가깝게는 현대의 대통령 취임식이나 기제사(忌祭祀) 등 다양한 의식들에서 목도할 수 있는 전세기적(全世紀的) 유산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형태와 체계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 의례(儀禮)는 ‘형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나 의식’이다. 사전적 관점에서 「형식·절차」와 「행사·의식」이라는 키워드는 의례를 규정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행사나 의식으로 추정되거나 그에 귀속될 만한 제요소는 의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의례의 한 분야인 「제의(祭儀)」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다. 따라서 의례에 포함되는 여러 범주가 상정될 수 있음과 그 범위 결정의 모호성은 고고학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경계일 수 있다.

본디 ‘의례’는 중국 노나라 엄중(淹中)에서 하간헌왕(河間獻王)이 얻었다고 전해지는 『고문의례(古文儀禮)』와 노나라 공왕(共王)이 공씨(孔氏) 집에서 찾았다는 『금문의례(今文儀禮)』에서 비롯되었다. 『고문의례』는 없어진 지가 오래되어 목차와 내용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금문의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당나라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서록(經典釋文敍錄)』에는 ‘정현(鄭玄: 後漢代)이 『의례』 17권(금문의례를 말함)을 주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의례’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금례(今禮)’라고만 하였다. 의례라는 이름으로 책명(『儀禮』)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당나라 때 원도(元度)인데 『구경자양(九經字樣)』에서 이다. 『주례(周禮)』, 『예기(禮記)』와 함께 3례라 칭하고 『의례』라는 명칭을 썼던 것이다. 『의례』는 사관례(士冠禮)·사혼례(士婚禮)·사상견례(士相見禮)·향음주례(鄉飲酒禮)·향사례(鄉射禮)·연례(燕禮)·대사의(大射儀)·빙례(聘禮)·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근례(覲禮)·상복(喪服)·사우례(士虞禮)·특생饋식(特性饋食)·소뢰饋식(少牢饋食)·유사철(有司徹) 등의 내용으로, 의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편 의례(儀禮)는 의식(儀式)과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靑木保 1994). 의례는 인간의 형식적인 행동 일반을 의미하는 광의적 용어이면서도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형식적인 행동을 좁은 의미의 의례, 사회적 성격이 강한 형식적인 행동을 의식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인류학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예를 들면 사제가 이리 걸느냐 저리 걸느냐, 막대기를 오른손에 들었느냐 왼손에 들었느냐 등의 행위를 의식(로저 키징(전경수 譯) 1990: 442)으로 보고 있어 개념적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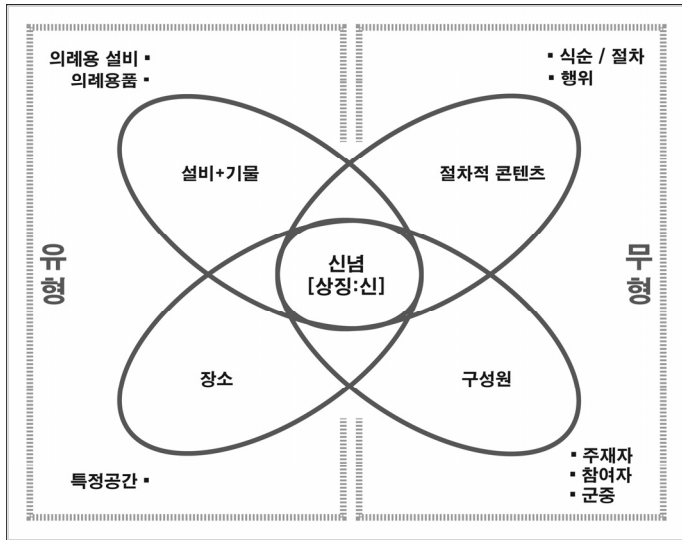
의례는 매우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신앙적·종교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절차적·의식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체계적이거나 비체계적인 일상의 의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한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분야이다. 이는 의례의 기준이나 표준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그동안 고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자의 관점에서 의례를 해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콜린 렌프류와 폴 반(2004: 416-417)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의례 지표(콜린 렌프류·폴 반, 2004) 개요

| 4대 구성요소 | 내용 | 사례 |
|-------------|------------------------|------------------------------------|
| 주의 집중 | 특별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 동굴, 작은 숲, 샘, 산꼭대기 |
| | 특별한 건축물 | 신전, 교회 |
| | 특수설비와 기구들 | 제단, 성로(聖爐), 등잔, 징, 종, 향로, 의례용 그릇 등 |
| | 중복되는 상징물들(redundancy) | |
| 경계지대(현세-내세) | 공공연한 전시 행위-감추어진 배타적 비의 | 건축에 반영 |
| | 청결과 오염의 개념들 | 연못, 물웅덩이, 신성구역 등 |
| 신의 임재 | 신의 존재 또는 상징 | 예배상, 신의 표상 |
| | 신과 관련한 도상 | 특정 동물(실재 또는 가공) |
| | 의례 상징 | 장례의식과 통과의례의 상징 |
| 참례와 봉헌 | 기도, 찬미의 몸짓 등 특수한 동작 | 장식, 형상미술, 도상에 반영 |
| | 종교적 체험을 위한 방책들 | 춤, 음악, 마약, 고통 가하기 |
| | 희생 | 사람이나 동물의 희생 |
| | 봉헌(바치거나 태우거나 버리는 행위) | 음식이나 음료 등 |
| | 막대한 부의 투입 | 봉헌물, 봉헌 기구들, 구조물, 관련 설비 |

청동기시대에는 지식묘를 대상으로 의례 연구가 활성화되어 왔지만, 정작 의례의 세부 구성이나 주요요소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다. 대부분 의례의 성격이나 구분/분류에 집중한 탓에 본질적인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중에 윤호필(2011)은 의례의 구성요소를 장소(祭場), 의식(儀式), 공헌(供獻)으로 구분한 바 있다. 앞에서 제시한 콜린 렌프류와 폴 반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구성요소의 추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례는 신념체계라 하여도 과연이 아니다. 그리고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형의



〈그림 1〉 의례의 구성과 세부 요소

체계와 유형의 체계가 적절하게 복합되어 있다. 전자와 후자가 적절하게 구성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이 적거나 많거나 하면서 완성된 체계를 갖추었을 것이다. 따라서 의례는 물질문화로만 표현될 수 없음도, 물질문화로써 의례를 온전히 복원할 수 없음도 상기시켜준다.

순자(荀子)의 예론(禮論)에 의하면(김학주 2001: 556), ‘예(禮)는 너무 긴 것은 자르고 너무 짧은 것은 이어주며,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 주고 부족

함이 있는 것은 보태 주어 사랑과 존경의 형식적인 수식을 다해 의로움을 행하여 기르고 완성케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형식과 절차를 통해 의로움을 완성하는 아름다움이 예라는 것이다. 유형과 무형의 체계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신념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인류학에서 보는 집합적 감정(collective sentiment)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강화하는 기능(로저 키징(전경수 譯) 1990: 442)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는 의례의 구성을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고, 세부 요소를 ①장소, ②설비와 기물, ③절차적 콘텐츠, ④구성원, ⑤신념(상징:神)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이들 중 장소와 설비+기물은 유형에, 절차적 콘텐츠와 구성원은 무형에 해당한다. 5가지 요소들은 각 경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특히 신념(상징:神)은 모든 의례의 핵심이자 정점으로서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신념은 유형(상징물, 신상, 도상 등)과 무형(神 등)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 성격으로 두었다. 고고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무형을 굳이 구분해 두려고 하는 것은 물질만으로는 의례의 진면목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물질을 바탕으로 각 경계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해석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내포되어 있다.

의례나 제사와 같은 정신세계를 복원하는 과정은 고고학적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내재된 행위의 유형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신화학, 인류학, 민속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분야와 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조현중 2014: 9)과 맥을 같이한다.

2. 청동기시대 의례 연구 약사(略史)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되어 온 청동기시대 의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의례의 개념보다는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농경문청동기와 같은 이형(異形)의 청동유물이다. 한병삼(1971)은 Y자형 입대목과 얹어 있는 새, 따비와 꿩이 등으로 농사짓는 인물과 토기 등이 보이는 수확 장면으로 구성된 농경문청동기를 소개하였다. 그는 이 농경문청동기가 제사 지내는 시기와 신을 부르는 새가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기록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낼 때 대목(大木)에 걸었던 의기(儀器)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기적 성격의 청동기들과 문양의 성격을 김원용(1986)¹⁾은 무사적(巫師的) 기능을 가지는 종교적 의식의 물건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이진무(1992b)로 이어져 청동의기(靑銅儀器)들이 농경·수렵의례에 사용되었던 샤먼의 무구(巫具)로서 종교적인 제의를 주재하는 주재자가 의기와 무구를 바탕으로 피치자(被治者)에게 강제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풍부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유형과 무형의 요소들을 조합한 연구의 진전을 이끌었다. 상대적으로 단선적 해석에서 복합적 해석으로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의례와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고전적인 대상이 암화(岩畵)/암각화(岩刻畵)이다. 고령 양전동에서 발견된 동심원+田자형+장방형 문양의 암화(岩畵)를 두고 태양신을 신앙했던 당시 양전동 선사인들의 제단(祭壇)이었을 것이라는 이은창(1971)의 해석은 대표적이다. 유형보다는 무형적 속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에서 장소+설비(바위면 조각)가 어우러져 신념에 이르는 확장성을 볼 수 있다.

고령 양전동 암각화를 발견한 이은창(1971)으로부터 비롯된²⁾ 암각화 연구는 문명대(1973), 김원용(1980), 임세권(1984), 황용훈(1987)의 연구를 거쳐 박정근, 정동찬, 전호태 등 많은 연구자들과 한국암각화학회(1999년 발족)의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암각화 연구는 대부분 제작 기법과 편년의 연구, 성격·신앙·제의 및 예술적 측면의 연구, 암각화의 원류 및 지역 비교의 연구 등에 집중되었고,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상길 2000: 126-128)을 두었다. 앞으로는 암각화의 구도와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개인이나 집단[구성원]을 상정해갈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행해졌을 어떠한 의례적 콘텐츠(제사, 춤 등 집단적 행위 등) 및 신념(神象, 神, 祈願 등)의 설정이 논리적으로 강화된다면 더욱 발전되고 풍성한 의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암각화를 통해 이와 같은 재구성/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여수 오림동 지식묘에서 발견된 암각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제석검 또는 그 상징성을 숭배하는 지식묘 집단의 신앙체계를

1) 김원용의 1986년 논문인 「예술과 신앙」은 『韓國史論』 13(國史編纂委員會)에 수록된 글로서 제3판에 해당한다. 초판(1983년)과 중판(1984년)을 얻지 못하여 부득이 3판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암각화의 처음 발견은 1970년 울산 천전리(川前里)에서이나 1973년에 문명대에 의해 보고(『文化財』 7, 문화재관리국)되었음을 밝혀둔다.

엿볼 수 있기(전남대학교박물관 1992) 때문이다. 마제석검이라는 개별 기물(器物)을 매개로 구성원(기원하는 인물)의 행위와 기원을 명확하게 묘사함으로써 상징(신적 존재, 신념 등)하는 바가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조선시대 의례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식순이나 절차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석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의례의 개념은 신앙이나 예술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김원용(1986)의 「예술과 신앙」이다. 물론 출토유물을 미술품으로서의 예술적 성격과 신앙과의 연계성을 골자로 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무산 호곡동 5기층에서 출토된 2점의 사람 모양 좌상을 서포항 4기층(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출토된 여성상(女性像)과 전주어 여신상으로 추정하였다거나, 호곡동 출토 돼지 모양 토우들을 당시 주민들이 돼지의 증식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쓰기 위해 제작했을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보면, 그 추론은 단편적이지만 연상작용에 의한 해석의 확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물과 신념이 연계되는 해석인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유물이나 유구를 의례적·종교적 성격의 것으로 해석하던 방식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의례의 개념과 유형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상길(2000: 60-64)은 특정 유물이나 유구에서 의례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물의 존재 양상(①~③)과 흔적(④~⑬)에 천착하여 13가지 의례행위를 제시하였다. ①의 외의 장소나 위치에서 유물의 출토, ②한 개체분의 유물이 일부만 존재, ③한 개체의 유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분적으로 출토, ④토기의 저부나 동체부에 구멍을 뚫는 행위(천공), ⑤토기를 무작위로 깨뜨리는 행위(파쇄), ⑥토기의 특정 부위만을 취하는 행위(선별파쇄), ⑦실용의 토기나 석기를 그대로 이용(轉用), ⑧토기나 석기를 깨서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轉用 재가공), ⑨소형 모조품이나 이형(異形), 토제품의 이용, ⑩단도마연토기의 이용(專用), ⑪각종 석기를 깨는 행위(파절), ⑫자연석(川石)의 이용(搬入轉用), ⑬옥(玉)의 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길의 방법론은 장소, 기물, 콘텐츠(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행위(콘텐츠)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무형의 행위를 유물에 남아 있는 흔적에서 찾아낸 것은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의례 고고학의 접근과 연구의 밀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유물에 가해진 이러한 행위의 결과와 배경은 순자의 예론 중 「상례」(김학주 2001: 56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순자는 기원전 4세기 후반(323년)~기원전 3세기대 인물로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전환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상장례에 사용하는 명기(明器)에 대한 설명³⁾ 가운데 질그릇은 못 쓰게(흙집, 파쇄 등) 한다거나[陶器不成物], 대나무나 갈대 그릇

3) ①독과 술통은 비워서 채우지 않거나, ②침대 없이 대자리만 깔거나, ③나무그릇에는 조각을 하지 않거나, ⑥수레는 무덤 속에 묻지만 말은 되가져 간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은 걸만 좋게 하고 내부는 쓸 수 없게 한다거나[薄器不成內]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장자가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무덤으로 이사하는 것을 본뜬 것이지만, 명기는 모양만 갖추 뿐 쓸 수 없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슬픔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기원전 4~3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상장례 시 기물을 훼손(毀棄)하는 습속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의례유물의 특징과 유적에서 출토되는 위치 분석을 통해 지식묘와 관련한 장송의례를 복원하였다. 초기 지식묘 연구에서 지식묘 주위로 출토되던 다량의 토기편들을 무덤 조성 시에 거행한 의례 때 사용하고 버린 토기 파편이라는 해석(김재원·윤무병 1967)에 견주어 보면 큰 연구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경취락에서 공간의 개념을 의례와 연계하여 발전시킨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취락 내에서는 생활의례, 취락과 하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에서는 농경의례, 하천에서는 수변의례, 묘역에서는 장송의례, 야산의 어딘가에서는 청동기의 매납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 연구는 유병록(2002), 윤호필(2012, 2014) 등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윤호필의 의례 연구는 절차적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더 세분된 의례 과정을 제시하였다. 각 과정에 대한 의례/의식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의례/의식의 연속성 차원에서 살펴볼 만하다. 또 취락의 공간 개념은 최종규(2005), 이형원(2009), 이종철(2015a) 등으로 이어져 청동기시대 취락 공간의 기획성(또는 취락 설계)이 좀 더 시각화될 수 있었다.

제사/의례와 관련한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2014)에서 조현중(2014: 10-12)은 청동기시대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제사/의례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환호(화성 동학산, 합천 영창리, 진주 대평리)나 환구(부천 고강동, 안성 반제리)의 제사적 성격, 농경사회에서 중요시 되었을 수 변제사(안동 저전리, 산청 목곡리, 고창 황산), 신전의 출현(사천 이금동), 제사유적으로서의 암각화(반구대, 천전리, 양전동, 오림동)와 매납유구(영암 엄길리 지식묘: 토기/ 안동 지례동, 순천 쌍암교: 석기/ 고흥 소록도, 마산 가포동: 청동기+석기/ 청도 예전동, 합천 영창리, 산청 백운리, 함평 당하산, 완주 상림리: 청동기)의 성격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사유적은 생활제사, 생산제사, 분묘제사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규정(2014)은 청동기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의례와 관계되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취락의례의 양상을 살핀 바 있다. 가옥의 축조와 폐기 시에 수행되는 주거의례, 농경과 관련한 수변의례, 바다와 관련한 해안의례, 그리고 매납행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의례 연구는 유물이나 유구 또는 유적의 양상을 살펴 어떤 성격/종류의 의례/제사인지를 고찰하는데 집중하였다. 유물이나 유구의 특성을 살펴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의례/제사를 상정하는 방식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특정 유구를 역사 기록에 견주어 그 연원과 전개 과정을 추론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종철(2014a: 61-62)은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기록된 마한의 소도(蘇塗) 기사에 묘사된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에 주목하여 입대목(立大木) 의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표 2> 청동기시대 의례/제사 유구·유물 현황(이종철 2014b에 추가)

| 연번 | 유적명 | 조사 내용 | 형태 및 성격 |
|----|------------|-------------------|-------------------|
| 1 | 구리 토평동 | 환구 | 제장 |
| 2 | 부천 고강동 | 적석유구+환구 | 제장 |
| 3 | 화성 쌍송리 | 환구, 내부에 주공多 | 제장 |
| 4 | 화성 정문리 | 3중환구 | 제장 |
| 5 | 평택 용이동 | 환구, 내부에 주공多 | 제장 |
| 6 | 안성 반제리 | 환구 | 제장 |
| 7 | 보령 관창리 | 토기가마군, 동지주건물 | 토기생산 제사 |
| 8 | 부여 송국리 | 대형 굴립주건물, 울책, 목주열 | 신전/제전, 선상열주 |
| 9 | 공주 신영리 | 동지주건물 | 저장공 밀집 구역에 조성 |
| 10 | 완주 구암리 | 환구, 수혈유구 | 제장 |
| 11 | 전주 평화동 대정Ⅳ | 입목수혈 | 입대목 제의 |
| 12 | 진안 여의곡 | 집석유구, 토기파편, 입목수혈 | 파쇄행위, 입대목 제의, 운반로 |
| 13 | 광주 지석동 대촌 | 환상수혈유구(8+1개) | 방형의 수혈이 환상으로 배치 |
| 14 | 나주 운곡동 | 암각화: 격자세선문 | 제장 |
| 15 | 남원 대곡리 | 암각화: 방패형, 성혈 | 제장 |
| 16 | 고흥 한천리 | 입목수혈 | 입대목 제의 |
| 17 | 여수 돌산 세구지 | 파의식 관련 암괴 | 제사유구 |
| 18 | 여수 오림동 | 암각화: 마제석검, 인물 | 제장 |
| 19 | 춘천 천전리 | 6호 주구묘 내 탄화곡물+석도 | 석도+곡물 봉헌: 농경의례 |
| 20 | 강릉 방동리 | 환구 | 제장 |
| 21 | 고령 양전동 | 암각화: 동심원, 가면, 기하문 | 제장 |
| 22 | 합천 영창 | 수혈, 토기가마 | 세형동검, 탄화물 |
| 23 | 산청 묵곡리 | 구상유구 및 수혈 | 구하도 주변 구에 파기 |
| 24 | 산청 백운리 | 매납유구 | 청동기 매납 |
| 25 | 진주 대평리 어은1 | 집석유구 | 주거군, 집석유구, 경작지 |
| 26 | 진주 대평리 | 매부리 또는 돼지 모양 석기 | 돼지 공헌 |
| 27 | 창원 남산 | 환호 내 석기와 토기 폐기 등 | 취락의례: 제장 |
| 28 | 창원 상남동 | 구상유구, 환호, 다량의 토기편 | 취락의례: 제장 |
| 29 | 창원 토월동 | 제사유구, 환호, 다량의 토기편 | 취락의례: 제장 |
| 30 | 김해 율하리 | 입목수혈 | 입대목 제의 |
| 31 | 마산 가포동 | 매납유구 | 청동기와 석기를 매납 |
| 32 | 사천 이금동 | 초대형 굴립주건물 | 신전/제전 |
| 33 | 대구 동천동 | 집석유구, 집수지 | 수변제사 |
| 34 | 대구 진천동 | 입석, 석축 기단 | 제장 |
| 35 | 대구 매호동 | 타원형구덩이+적색마연토기 | 주거의례 |
| 36 | 청도 사천리 | 유물산포지, 농어구 출토 | 취락의례 |
| 37 | 청도 예전리 | 매납유구 | 비파형동검 매납 |
| 38 | 울산 대곡리 | 암각화: 바다동물과 육지동물 | 제장 |
| 39 | 울산 천전리 | 암각화: 동물, 기하학무늬 | 제장 |
| 40 | 울산 연암동 | 2중환구+수혈유구 | 제장 |
| 41 | 포항 인비동 | 암각화: 석검과 석촉 | 제장 |

입대목 의례가 마한의 문화요소이지만,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 단계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진안 여의곡 유적의 수혈유구를 통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김해 율하리 유적의 수혈유구를 추가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입대목+광장(공터)의 설정과 입대목 제의의 존재로 발전하였다(2014b: 110-113). 청동기시대의 원초적인 입대목 제의의 설정은 중국 귀주성 묘족의 동고축제[鼓藏祝祭 Guzang Festival]와 운남성 장족묘족자치주 화산절(花山節)의 화간(花杆) 등과 같은 민족지자료를 통하여 문화적 일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2015b).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입대목 제의의 전개 양상을 더욱 발전시켰고, 솟대와 관련성을 이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소도의 입대목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018c). 이렇게 수립된 청동기시대 입대목 제의는 청동기시대 후기인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까지 전승되었음을 전주 평화동 대정Ⅳ 유적을 통해 제시하였고, 그 고고학적 의의와 중요성을 피력하였다(2021). 이로써 완전하지는 않지만, 입대목 제의는 청동기시대 중기(송국리형문화 단계: 여의곡·율하리 등)—청동기시대 후기(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 전주 대정Ⅳ)—□—원삼국시대(명천동 등)에 이르는 시간축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부여 송국리와 사천 이금동 유적의 고상가옥을 통해 청동기시대에 신전(神殿)/제전(祭殿)이 존재했을 가능성(안재호 2009, 이종철 2014b 등), 부여 송국리의 54지구를 관통하는 대규모 목주열을 의례나 제의와 관련되는 종교적인 건조물로 보는 견해(정치영 2012, 이종철 2018a, 이형원 2018b)가 제시되었다. 발표자(2019)는 송국리 선상열주(松菊里 線狀列柱, Songgukri Alignments)로 명명한 대규모 목주열에 대해 그 시간성과 제의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학회 차원에서 또 연구자들의 연속적인 연구에서 의례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적 조사에서도 우후죽순식으로 의례/제사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모든 고고학적 사례를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청동기시대의 의례/제사 유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 의례 연구의 새로운 모색

유형과 무형의 한계뿐만 아니라 유물과 유적의 해석에 대한 의례 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여러 차례 의례와 제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4년에 호남고고학회는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를 주제로 제사고고학의 개념과 분류 및 연구사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취락과 분묘에서 수행되었던 의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국립광주박물관은 「도작농경사회의 제사와 의례」를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제사와 의례 연구 성과를 비교 검토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마련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백제학회에서 「마한의 소도와 의례공간」을 주제로 청동기시대~마한 시기까지의 의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갖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개별적인 의례 관련 논문들이 제시되어 청동기시대인들의 정신세계와 사회·문화적 의식(儀式)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집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와 맥을 같이하는 주요 의례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구 성과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낮게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님을 밝혀둔다. 논의의 대상은 발표자가 제시한 의례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장소(공간) 관점의 의례

① 암각화/암화

암각화/암화는 커다란 바위에 그림을 새기거나 그려 넣음으로써 완성된 바위그림이다. 우리나라는 바위에 그림을 새기는 암각화가 절대적이다. 큰 바위면은 그림의 배경지(背景紙)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위치나 입지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암각화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울산 대곡리와 천전리 암각화처럼 당시의 사실적인 내용이 표현되어 있거나 고령 양전동·영주 가흥동·남원 대곡리 등 도식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암각화는 주거 지역과 동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거나 폐쇄된 인상을 주는 곳이 많고, 매우 협소한 공간 때문에 대중이 모여 집단적인 제의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암각화의 입지는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외딴 봉우리가 선택되는 것이 특징이다(이상길 2000: 143-144).

암각화가 존재하는 장소는 종교·신앙적인 공간으로서 마한의 소도와 같은 공간일 것이라는 견해(최광식 1995)에 비추어 보면, 암각화와 면하는 특정 장소에는 집체적인 모종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림들이 의미하는 특정의 전달체계를 감안하면 암각화를 기획했던 개인이나 집단 및 그들의 도구체계, 일련의 의식적 콘텐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나 신념이 복합되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각 행위는 모종의 목표나 신념에 수반되는 하나의 의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목적이자 목표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암각을 위해서는 구도 계획, 밑그림 그리기, 암각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각은 독립적인 암각 의례 또는 암각 의식으로도 볼 수 있고, 메인 행사를 위한 식전행사 또는 무대 배경 설치 과정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암각의례/의식을 통해 의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암각화가 갖는 공간적 의미는 제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대구 진천동이나 김해 봉황대와 같이 제단으로서의 기능(이상길 2000: 149)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례/의식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무형적 요소/경계가 너무 많거나 넓다는데 한계가 아닐 수 없는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② 가옥장(家屋葬)

가옥장은 말 그대로 살던 집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주거지 발굴에서 온전한 형태의 인골이 출토되었을 때 인골의 상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인 해석은 죽은이에 대한 매장지로 귀결된다. 죽은이가 전염병 등 질병에 의해 사망했든, 고려장 풍습과 같이 노쇠하여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든, 싸움이나 전쟁 등으로 사망했든 결국 집에서 죽음과 매장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 시점에 추모와 관련되는 별도의 의식이나 의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의식/의례는 장소가 집이라는 점에서 무덤을 대상으로 하는 장송의례와 대비된다.

가옥장은 춘천 교동 유적을 통해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동 유적은 굴집 또는 혈거(穴居) 성격의 동굴집으로, 세 사람이 등간격을 이루어 방사상(放射狀)으로 매장된 매우 독특한 매장 유적이다(김원용 1963, 1986). 다만 고고학적 사례가 적기 때문에 1회성에 그친 특별한 매장이었는지 아니면 당시에 존재했던 장법(葬法)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청동기시대의 가옥장은 최근 김천 지좌리 59호·122호 주거지가 제시되었다(안재호 2020: 45-46). 주거지 내부의 토기나 유물의 출토상태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유적 일원에서 무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가옥묘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화재 주거지로서 잡석들과 유물이 혼재하면서 온전한 토기가 깨진 채로 산재하는 점, 다량의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된 점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인골이나 죽은이의 위치 및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옥장으로 해석된 것은 아니지만, 춘천 거두2지구 유적에서 조사된 화재 주거지 가운데 북지구 10호와 15호도 가옥장과 유사한 해석으로 제시된 바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418-420). 인위적으로 화재를 낸 뒤 인위적으로 매몰시키고 상부 전체를 황색점토로 덮어 마감한 흔적에 근거하여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주거 폐기의 결과로 본 것이다. 특히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예전(滅傳)>에 기록된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곧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집을 짓고 산다(多所忌諱 疾病死亡 輒捐棄舊宅 更作新居)」를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 고고학적으로 주목해야 할 기록이다. 질병이나 질병에 의해 죽음을 맞은 특정 주거의 폐기(김권중 등 2019: 28)일 수도 있고, 가옥장과 연관될 수도 있다. 관련되는 기록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滅)는 꺼리는 것이 많다고 하였으니 ‘귀신이 붙어서 재수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에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이 붙어 꺼려지는 주검을 옛집에 두고 폐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가옥장 의례/의식은 남겨진 의례의 흔적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죽은이를 위한 일련의 추모 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특정의 주재자 또는 집단적인 추모와 모종의 의식들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이의 사후를 기원하는 신념으로 연결할 수 있다. 비록 무형의 경계이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임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옥장이 성

립하기 위해서는 ①죽은이의 흔적이나 정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무덤에서 인골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덤으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덤의 형태가 갖는 전통성 및 피장자의 위치와 부장유물이 무덤임을 말해주듯 가옥장 역시 같은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재 주거지에서 거론되는 가옥장이 ‘葬’에 집중해야지 ‘粧’이 우선할 수는 없다. 또 ②설비와 기물의 출토 상태를 통해 의식(儀式)의 정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질병과 죽음을 꺼려서 집을 버리는 것과 죽은이를 집에 매장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질병과 죽음이 서려 있는 주검을 아무리 꺼린다 하여도 옛집에 매장했다면 고고학적으로 많은 사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고고학적 근거 제시의 체계성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2) 설비와 기물 관점의 의례

① 환구(環溝)

환구는 원형이나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도랑을 파서 일정한 공간을 구획한 것으로, 장소(공간)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릉의 정상부에 설치된 대형 무대와 같은 설비의 개념도 강하다. 특히 환구 내부에는 주민들의 가옥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에워싸는 대규모의 환호와 큰 차이가 있다. 이때의 환호는 공간이나 장소의 속성이 강하다. 환호와 환구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주거군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규모로써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환호보다 작은 경향성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환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청동기시대 주요 환구 유적 현황

| 연번 | 유적명 | 입지 | 중앙 공터 규모 | 특징 |
|----|--------|--------|-----------|--|
| 1 | 구리 토평동 | 평지 | 지름 30m 내외 | 전기, 원형, 개구부 |
| 2 | 화성 쌍송리 | 구릉 정상부 | 지름 30m 내외 | 전기, 원형, 개구부, 내부에 주공多 |
| 3 | 평택 용이동 | 구릉 정상부 | 지름 30m 내외 | 전기, 원형, 개구부, 내부에 주공多 |
| 4 | 완주 구암리 | 구릉 정상부 | 20m 내외 | 전기, 방형, 개구부, 중앙에 수혈유구 |
| 5 | 울산 연암동 | 구릉 정상부 | 76~93m(內) | 전기/중기, 원형, 개구부, 중앙에 장방형 수혈, 2중환구(外 126~105m) |
| 6 | 부천 고강동 | 구릉 정상부 | 지름 30m 내외 | 후기, 원형, 개구부, 중앙에 방형 적석부 |
| 7 | 화성 정문리 | 구릉 정상부 | 지름 40m 내외 | 후기, 원형, 다중환구(3중) |
| 8 | 안성 반제리 | 구릉 정상부 | 지름 30m 내외 | 후기, 원형 |

청동기시대 환구는 이성주, 이상길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의례영역 또는 제사영역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찰한 김권구(2012)는 산 정상부나 구릉 정상부에서 조사되는 환호유구·환구·주구·주구형 유구 등에 주목하여 환호보다는 작고, 주구보다는 큰 유구들을 편의상 환구(環溝)로 통칭하였다. 그리고 입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환구는 제장(祭場)으로서 청동기시대 지신의

례(地神儀禮) 또는 지식묘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조상숭배의례에서 천신의례(天神儀禮) 또는 신성한 성격이 부여된 추상적 조상숭배의례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천신의례 및 그와 결합된 다양한 의례가 행해졌던 곳으로 해석하였다. 결국 청동기시대에는 지신(地神)이나 조상신과 관련되는 의례의 장(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장으로서의 환구는 청동기시대에 나타나지만 초기철기시대에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와 차별화된 새로운 의례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천신의례 또는 신성한 추상적 조상숭배의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동기가 제의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구 유적 고찰에서도 농경의례와 천신의례의 가능성(이형원 2018a)에 무게를 두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환구 유적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①대부분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②일반적으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며, ③환구 내부에는 주거군이 조성되지 않거나 별도의 공간에 축조되어 환구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④평면형태는 원형을 이루며 개구부가 있다. 구릉 정상부라는 입지적 특성도 고려되었겠지만, 둥근 원(圓)이 갖는 상징성(예를 들면, 태양·해무리·금환일식 등 자연현상과 관련한 신성함)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④환구로 구획된 중앙 공터는 지름이 대략 30~40m 정도로 환호와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울산 연암동과 같이 100m 내외로 구획되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규모가 큰 환구는 다각도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⑤환구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설비의 흔적이 확인된다. 아무런 시설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모종의 설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둥 구멍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공터의 중앙부에서 수혈유구나 적석유구 등도 확인되기 때문에 모종의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설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환구 내부 또는 주변에서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토기편들이 출토되기 때문에 당시 다양한 기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⑥1열의 단일 환구가 일반적이지만 2중, 3중의 다중환구가 조성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조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기부터 이러한 장식적 특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해도 되는 환구에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여한 것은 무대설비의 장식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의례의 과정과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모색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② 입대목 제의(立大木 祭儀)

입대목 제의는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한전(韓傳)>에 기록된 「立大木縣鈴鼓」에 기반하여 설정된 집체적 성격의 의례로서 취락의 특정 공간에 세워진 대목(大木)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제의의 총체로 정의된다(이종철 2015b: 38). 본디 입대목은 한(韓)의 여러 나라[諸國]에 있는 별읍(別邑), 즉 소도(蘇塗)에 세워진 의례목이다. 입대목현령고의 전통이 韓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韓은 한국식동검문화 및 점토대토기문화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계

에도 송국리형문화의 기층세력이 잔존하면서 복합문화를 이루게 되므로 원초적인 입대목 제의가 송국리형문화 단계부터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이종철 2018c: 12-13).

유형(물질)으로서의 입대목 제의는 대목+수혈로 이루어지는 설비와 대목에 매달았거나 의례용으로 사용했을 기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목과 기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고고학적 근거는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수혈과 대목흔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입목수혈(立木豎穴)의 성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①공간적 연계성, ②공간의 면적성, ③입목수혈의 독립성, ④입목수혈의 특수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종철 2018c: 14-15).

입목수혈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입대목 제의는 민족지자료에 의거하여 그 존재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중국 귀주성의 랑덕상채(郎德上寨)와 천호묘채(千戶苗寨)의 동고축제[鼓藏祝祭 Guzang Festival], 중국 운남성 문산 장족묘족자치주의 화산절(花山節) 화간(花杆)이었다. 郎德上寨의 입대목은 광장+수혈·바닥장식+입대목+동고 매달기[縣鼓]+다채로운 의식(춤·연주·행렬 등)+구성원(주제자·연주자·주민·외부인 등)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묘족의 바람과 기원이 표출된다. 千戶苗寨도 유사한 구성을 이룬다. 운남성의 화간은 직경 40m 정도의 수혈식 원형 광장+수혈+입대목/장간(長竿)+돼지머리·상금 등[縣物]+다채로운 의식(기름칠·오색끈 달기·옷 벗기·춤·화간 오르기 등)+구성원(주제자·참가자·군중 등)으로 이루어지며, 우승자에게는 상품과 한 해 동안 만사형통의 기운이 제공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집단의 대동단결을 도모하게 된다(이종철 2015b: 50-52).

다채로운 의식과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을 입대목 제의는 중국 묘족의 사례를 통해 풍성한 유·무형적 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입대목 제의는 아직까지 많은 유적에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원형점토대토기문화 단계까지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최근에 제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청동기시대 입대목 제의 유적 현황(이종철 2021)

| 구분 | 진안 여의곡 | 김해 율하리 | 고흥 한천리 | 전주 대정IV |
|-------|------------------------|---|------------|-----------------------|
| 굴착 방식 | 2단 수혈 | 2단 수혈 | 수직형 | 3단 수혈 |
| 입목 직경 | 30~40cm 사이 | 30~40cm 사이 | 40~50cm 사이 | 20~40cm 사이 |
| 고정 방식 | 중·상단부 돌+흙 하단부 직경 일치 | 상단부 돌레석+흙 중단부 흙 충전 하단부 돌레석 하단부 직경 일치 | 다량 할석 충전 | 전체 흙 충전 하단부 직경 일치 |
| 설치 위치 | 매장영역·생산영역에 인접한 공터 | 주거영역·매장영역에 인접한 공터 | 매장영역 가장자리 | 주거영역 내 광장 |
| 제의 주체 | 송국리형문화 집단 | 송국리형문화 집단 | 지석묘문화 집단 | 송국리형문화+점토대 토기문화 집단 |

청동기시대의 입대목 제의는 광장과 같은 넓은 공터를 기반으로 입목수혈이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묘족의 동고축제와 상통한다. 유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입대목 제의의 공간적 환경을 도출하면 두 가지로 정리된다(이종철 2021: 44). 하나는 중앙집중형 환경의 입대목 제의이다. 광장 중앙에 대목을 설치함으로써 사방에서 군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형태이다. 중국 郎德上寨의 동고축제와 운남성 화산절 축제가 대표적이며, 김해 율하리 유적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편향집중형 환경의 입대목 제의이다. 무대가 있는 연극이나 극장과 같이 대목의 설치가 공터의 한쪽에 치우쳐 조성됨으로써 군중의 시선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형태이다. 진안 여의곡, 고흥 한천리, 전주 대정Ⅳ 유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입대목 제의는 대목과 수혈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①공터나 광장과 같은 공간성[장소], ②대목+입목수혈+제의용품과 같은 설비와 기물, ③입대목을 세우고 의식을 거행하는 여러 절차적 콘텐츠, ④의례/제사를 수행했을 주재자·참여자·군중과 같은 취락 구성원, ⑤집체적 성격의 의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와 신념은 유형과 무형의 복합체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郎德上寨의 동고축제와 운남성 화산절 축제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③ 송국리 선상열주(Songgukri Alig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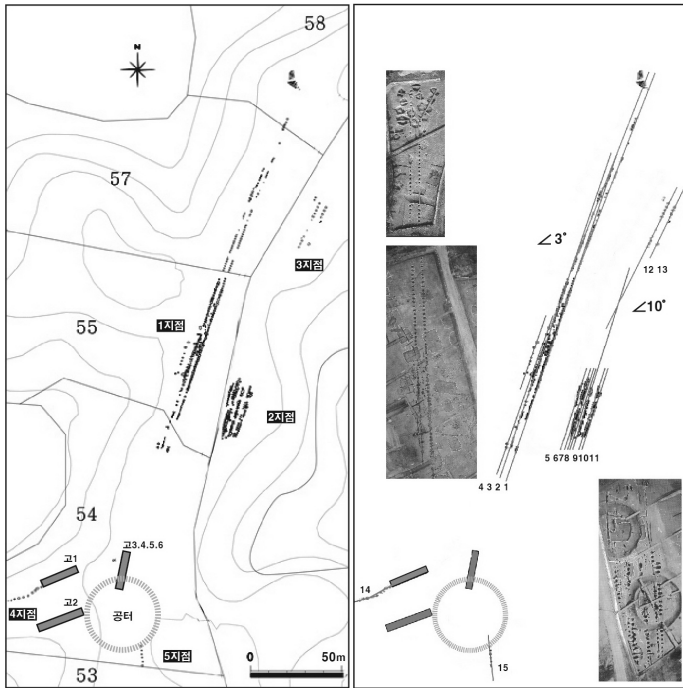
송국리 선상열주(線狀列柱)는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조사된 대규모 목주열을 말한다. 송국리에서는 5지점에서 15건 정도의 목주열이 조사되었다(표 5, 그림 2). 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목주열은 방형계 주거군이 밀집해 있는 54지구를 정통으로 가로지르는 1~4호이다. 직경 50~100cm의 기둥구멍이 100~200cm 거리를 유지하면서 1호는 170m, 2호는 150m, 3호는

〈표 5〉 부여 송국리 유적 목주열 현황(cm)

| 목주열 | 길이 | 주열 거리 | 대칭거리 | 직경 | 깊이 |
|-----|--------|---------|------|--------|-------|
| 1 | 17,000 | 120~150 | 300 | 60~80 | 40~50 |
| 2 | 15,000 | 120~150 | | 40~100 | 30~60 |
| 3 | 3,700 | 100~120 | 400 | 60~90 | 30~50 |
| 4 | 6,000 | 200~230 | | 50~100 | 10~40 |
| 5 | 1,140 | 120~130 | | 60~80 | 40~70 |
| 6 | 2,350 | 110~130 | | 40~70 | 35~60 |
| 7 | 3,000 | 120~130 | | 60~160 | 30~85 |
| 8 | 3,300 | 120~130 | | 70~100 | 10~85 |
| 9 | 2,800 | 120~130 | | 50~120 | 25~85 |
| 10 | 2,960 | 120 | | 25~125 | 20~70 |
| 11 | 2,600 | 120 | | 50~90 | 25~85 |
| 12 | 2,760 | 90~160 | 400 | 60~80 | 20~60 |
| 13 | 2,740 | 200 | | 80~120 | 20~40 |
| 14 | 2,000 | 200~250 | | 75~125 | - |
| 15 | 1,150 | 200~225 | | 50~75 | - |

37m, 4호는 60m의 긴 열을 이룬다. 각 목주열은 300~400cm의 대칭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행을 이룬다. 이러한 목주열의 특성에 주목하여 선상열주라는 명칭이 제안되었다(이종철 2018a).

15건의 목주열은 형태상 일부는 지상건물지 또는 고상가옥과 같은 건물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는 선상열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14호와 15호는 1열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열주(列柱)의 속성을 보여준다. 5~13호는 중첩관계가 복잡하거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건



〈그림 2〉 송국리 유적의 선상열주와 목주열(이종철 2018a)

물일 가능성과 열주일 가능성 모두 고려될 수 있겠다. 1~4호 목주열은 선상열주일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로 보는 주장도 있다. 건물로 보는 견해는 곡식 등을 보관하던 창고(김미경 2017)나 북미 원주민 사회의 통하우스(long house) 등과 같은 가옥(김경택 등 2017)으로 나뉜다. 선상열주는 제의적 성격의 건조물로 보는 견해(정치영 2012, 이종철 2018a, 이형원 2018b)가 있으나 나무기둥만 세웠을 것으로 보는 견해와 기둥 위에 지붕을 씌웠을 것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발표자(2018a: 44-47)는 이러한 목주열이 ①방형계 주거와 송국리형주거

가 공존하던 시기에 존재, ②울책이 설치된 고상가옥 1호와 2호의 사용 시기와 공존, ③방형계 주거군의 대대적인 폐기→대규모 목주열 공사→목주열 일부 또는 대대적인 폐기→방형계 주거군 재조성이라는 변천 과정, ④54지구에서 엄청난 자연자원과 노동 에너지의 집중 및 소멸, ⑤방형계 주거 집단과 송국리형주거 집단과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직선적이고 과감한 기획적 성격, ㉡방형계 주거군의 피해와 불가피한 공사, ㉢2열 이상의 다선(多線) 구조, ㉣초반의 불규칙성과 형태의 다양성, ㉤고상가옥(1·2호)과 공터쪽으로의 방향성 등에 의거하여 집단의 집체적 상징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취락의례의 기념물로 상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통해 대단위 노동력을 집결시키고, 자연자원을 집중화시키며, 부의 재분배를 실현시키면서 사회적인 압박전략으로 활용됨으로써 당시 유력자(권력자)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을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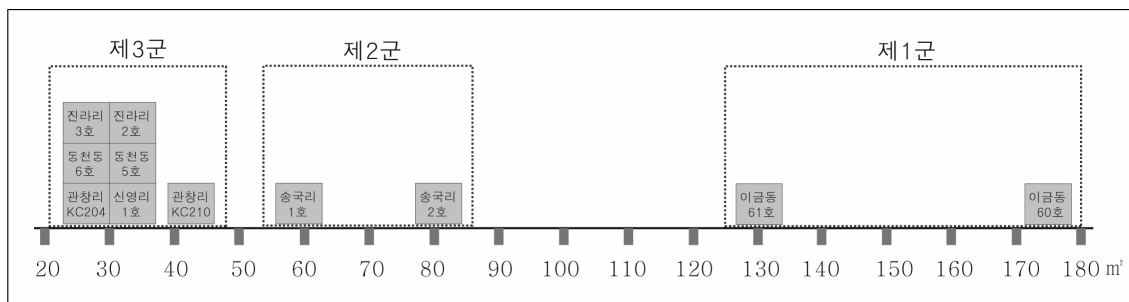
고상가옥, 광장(54지구 24호 주거지 남쪽 공터 : 직경 40m) 등과 상호 연계된 집체적·제의적 성격의 선상열주는 송국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것이다. 광장이 의례 주재자와 참여자 및 취락 구성원들과 함께 의례를 거행했던 공간이었다면, 선상열주는 고상가옥이 가지는 상징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인 열망이나 신념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출시킨 취락의례의 기념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송국리 사회를 이끌어 갔던 유력자(권력자)의 지도력과 사회 발전 양상은 최상의 위계를 보이는 동검묘의 존재, 신전/제전의 축조, 대규모 선상열주의 조성, 원형·방형계 주거로 이원화된 대규모 취락 등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송국리형문화의 취락 체계는 그 어떤 유적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송국리만의 특징으로 삼을 만하다.

④ 고상가옥(高床家屋)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중·대규모 취락에서는 굴립주건물(지), 지상건물(지), 고상가옥 등으로 불리는 기둥열이 조사된다. 주거생활면과 상부구조를 떠받치는 하부구조의 흔적으로서, 곡물창고·공공집회소·신전/제전 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의 건물은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공주 신영리, 익산 영등동, 영암 장천리, 대구 동천동, 청동 진라리, 사천 이금동 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굴립주건물(掘立柱建物)

| 유적명 | 유구명 | 축조방식 | 규모cm | 면적㎡ | 도면 |
|--------|-------|--------|-----------|-----|----|
| 보령 관창리 | KC204 | 4칸×2칸 | 1,020×260 | 27 | |
| | KC210 | 7각형 | 800×770 | 43 | |
| 부여 송국리 | 1호 | 11칸×1칸 | 1,900×310 | 59 | |
| | 2호 | 11칸×1칸 | 2,400×340 | 82 | |
| 대구 동천동 | 5호 | 10칸×2칸 | 1,416×210 | 30 | |
| | 6호 | 7칸×2칸 | 900×262 | 24 | |
| 청도 진라리 | 2호 | 11칸×2칸 | 1,440×200 | 29 | |
| | 3호 | 9칸×1칸 | 1,232×210 | 26 | |
| 사천 이금동 | 60호 | □칸×2칸 | 2,900×600 | 174 | |
| | 61호 | 19칸×2칸 | 2,600×500 | 130 | |



<그림 3> 굴립주건물의 면적 분포(이종철 2014b)

굴립주건물은 규모에 따라 크게 3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1군은 사천 이금동에 해당하며, 초대형으로 일반적인 굴립주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자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물이다. 이와 같은 건물은 의례 전용 건물일 가능성(안재호 2009)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군은 부여 송국리에 해당하며, 대형에 속한다. 송국리 유적에서 가장 큰 주거지의 면적이 54지구 23호(장방형계)의 80㎡인 것을 감안하면 가장 큰 형태의 고상가옥을 옆두에 두었던 것은 분명하다. 3군은 50㎡ 이하의 건물로서 당시 일반 주거의 면적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1·2군과 3군은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는 전자를 고상가옥으로, 후자를 굴립주건물로 부르고 있다(이종철 2014b).

부여 송국리의 고상가옥은 다른 고상가옥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설(울책)로 외부와의 차단을 계획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취락 내 특수한 기능(정치영 2009)을 수행했던 건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건물이 여러 채 조사되는 것을 보면, ①당시 송국리 사회는 매우 집체적인 목적성이 장기적으로 존재했고, ②사회적인 조직 체계 뿐만 아니라 유력자(권력자)의 지도력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잘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③고상가옥—광장—선상열주의 관계성은 중요한 제의적 설비로 작동되었을 것인 바, 고상가옥은 신전/제전으로서의 상징성, 광장은 고상가옥과 선상열주를 매개로 모든 제의적 에너지가 집중되었던 의례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국리와 이금동의 고상가옥은 신전/제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에게 바쳐졌을 다양한 공헌물을 보관하였을 것이고, 취락의례와 대규모 공사 시 재분배됨으로써 잉여생산물의 순환적 기능으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⑤ 환상수혈(環狀竪穴)



<그림 4> 광주 지석동 유적의 환상수혈

최근 광주 지석동 유적에서 조사된 고고학 자료로, 이와 같은 수혈유구는 처음 보고된 사례다. 유적은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송국리형취락이며, 환상수혈은 조사 범위의 한쪽 구석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었다.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 능선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모두 9개의 수혈로 구성되어 있다. 방형 수혈로 둘러싸인 중앙에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굴착된 폭이 좁은 구상유구가 존재한다 <그림 4>. 방형 수혈의 토층에서는

불을 피웠던 흔적이 정연하게 나타나 있으며, 벼·조·팥 등의 곡물을 비롯하여 벼 규소체가 확인됨으로써 벧짚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다. 조사자는 환상수혈이 곡물을 저장하는 저장공으로서 본디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 내부에 환상열로 방형 수혈을 설치한 것이었으나 지층의 삭토로 말미암아 방형 수혈만 남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전남문화재연구원 2021).

이 환상수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송국리형주거일 수 없으며, 특수한 기능을 위해 조성했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거지의 삭평으로 볼 수 없다. 구릉 정상부에 자리하는 주거지들도 깊이가 10~30cm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삭평 가능성은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3호, 21호, 27호, 32호 주거지 등 경사면에 자리하는 대부분의 주거지들에서 일정 부분의 바닥면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층 삭평으로 볼 수 없다. 주변과 동일한 밭으로 경작되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거지 윤곽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바닥면보다 더 깊이 굴착되는 타원형구덩이나 기둥구멍 역시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할 입지인 것이다.

둘째, 환상열을 이루는 타원형은 송국리형주거의 원형 평면으로 보기에 단장비가 너무 크다. 환상수혈의 타원형은 단장비가 1:1.35⁴⁾인데 반해 유적 일원에서 조사된 원형계 주거는 1:1.1~1.23에 집중되어 있어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물론 특수성이나 예외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식동·압촌동·대지동 유적 일원에서 거주했던 송국리형주거민의 원형 평면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셋째, 주거군 일원의 등고선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간격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환상수혈이 자리하는 부분에서만 평탄화된 양상을 보인다. 자연적인 삭평이라면 일대가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도적으로 평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략 14m×12m 범위이며, 정상부 쪽으로 좀 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평탄면이 후대의 삭평이 아니라면, 상단부의 흙을 하단부 쪽으로 밀어 대지 조성을 하면서 정지(整地)했던 결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의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송국리형주거 내부에 방형이나 원형의 저장공을 설치한 사례는 서천 오석리, 익산 부평, 전주 유교리, 광주 지식동 하지석에서 확인되며, 김제 장산리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3~7개 정도의 수혈이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되었다. 이러한 주거 내 수혈은 저장이나 보관을 위한 용도로 해석되지만 송국리형문화 단계에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옥내시설은 아니다.

환상수혈은 송국리형주거의 흔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환상수혈 중앙부는 의례/의식의 중심이었거나 핵심적인 무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장축이 약 7m, 단축이 약 4m, 면적이 약 22㎡인데, 모종의 설치물이 존재했거나 1~2명 내외의 동선이 가능한 공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방형 수혈 조성 시 굴착한 흙을 중앙부에 쌓아 올려 정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단축과 장축의 길이가 2m 이상 차이가 난다.

둘째, 방형 수혈을 조성한 후 어느 시점에 불을 피웠고, 매몰하였다. 토층상에는 얇은 재층이 띠를 이루고 목탄과 재 등이 혼토되어 일부 매몰층을 이루거나 토층 중간 중간에 목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화재 주거지와 같은 정황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화재의 흔적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수혈의 자연적인 매몰 정황으로도 볼 수 없다. 불과 관련된 모종의 의식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추정된다. 불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수혈의 한쪽에 호형토기 등 여러 개체의 토기(1-8호), 토제구슬 1점과 토기편(1-4호), 석착 1점(1-7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조사자는 자연폐기된 것으로 보았지만, 토층 양상으로 볼 때 저장·보관의 성격보다는 의례/의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형 수혈의 환상열은 일시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타원형이라는 본연의 구획을 염두에 두고 수혈을 조성했을 수 있다. 일정한 간격과 분포 양상은 중앙부를 의식했음이 분명하다. 특히 구릉의 능선과 같은 남-북 방향에 개구부와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⁵⁾, 서편은 5기로 가득 찼고, 동편은 2개 정도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완전한 1열의 환상열을 고려한다면 모두 12개(1-3호 제외)의 수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환상열이 완성되기 전에 의식이 중단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추론에 비추어 볼 때 지식동 환상수혈은 의례/의식을 위한 설비로서 취락의례로 수차례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는 주거군이, 앞에는 드넓은 평지와 하천(대촌천)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취락 내에서 농경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해볼 만하다. 특히 수혈에서 벼, 조, 콩, 팥 등과 벼 규소체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제구슬, 석착편, 작은 호형토기 등이 출토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만약 환상수혈이 농경의례를 위한 제의적 성격의 유구라면, 청동기시대에 수혈을 매개로 새롭게 체계화된 의례/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취락 내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되는 방형/원형 수혈 중 목탄+소토+토기편+석기 등의 조합을 이루는 수혈이 좀 더 체계적이고 집체적으로 발전하여 구현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축적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가 논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수혈 내부의 정황이 저장공이 아닌 모종의 의식이 이루어졌다는 무게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②일련의 방형 수혈들이 어떤 식으로 조성되면서 최종적인 체계(타원형)를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③수혈에서 출토된 벼, 조, 콩, 팥 등의 재배종 곡물이 저장용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례용으로 사용될 만큼의 양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분별 있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④구릉 정상부에 굴립주건물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크기도 작고 공간도 한정된 수혈을 별도의 장소에 조성한 것이 저장이나 보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를 위한 것

5) 이곳이 개구부라면 중앙부 안쪽에 설치된 1개의 작은 수혈(1-3호)이 빗겨서 조성된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혈들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는데, 이는 환상수혈 중앙부의 공간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부득이 조성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송국리형문화 단계에는 저장공을 별도의 장소에 집단적으로 조성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과 공통점을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⑥ 적색마연토기

유적 조사에서 용도 미상의 유물이 출토될 경우 대부분 종교적이거나 의례적인 물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적색마연토기 역시 붉은 색상에서 풍기는 상서로움 때문에 그러한 범주에 포함되어 왔다. 그 성격이 어쨌든 간에 매우 특별한 기능이나 성격이 내재되어 있어 무덤에 부장되는 대표적인 유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노혁진 1987, 하인수 1989, 이상길 1994 등).

적색마연토기는 원저호, 플라스크형호(또는 병), 완, 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용도 분화와 지역적 다양성이 발견된다. 특히 청동기시대 중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플라스크형은 금강 중하류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만경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제작기술의 전통을 배경으로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중기에 걸쳐 적색마연토기의 부장은 금강 상류를 중심으로 한 차령 이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반면, 중기 취락의 점유가 활발하고 적색마연토기가 빈번하게 제작된 금강 중하류역에서는 부장되는 예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이정은 2019). 전남이나 영남 지역에서 적색마연토기가 지석묘와 석관묘 등 무덤에 적극적으로 부장되는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부장품에 대한 관념의 변화(손준호 2009)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최근 무덤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출토되는 적색마연토기의 성격을 제사적·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한 배진성(2020)의 연구는 눈에 띈다. 그에 의하면, 적색마연토기 단 한 점을 무덤의 특정 위치에 의도적으로 놓음으로써 공헌(供獻)의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이 적색마연토기가 망자의 영혼을 담았다는 해석이다. 즉 적색마연토기는 공헌호(供獻壺)로서 피장자의 영혼을 담아 저세상으로 보내는데 사용되었고, 죽은이의 영혼이 무사히 저세상으로 가서 조상신이 되어 이세상의 자손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농경사회적 관념을 담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적색마연토기의 기종 구분, 형식학적 분석, 계통 추적, 기능이나 성격 등 다양한 연구들에 비하면 매우 신선하고 획기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해석은 스스로 던진 의문에서처럼 ①온전한 형태의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무덤과 그렇지 않은 무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힌다. 또 ②한 무덤 안에 주검과 영혼을 분리하는 영혼관/내세관을 고고학적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맥락을 기록이나 민족지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중국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혼(魂)과 백(魄)으로 구분되어 있고, 혼·백·육체가 분리되면 죽는다고 믿었다. 혼은 정신적인 경험과 지적인 활력을, 백은 육체의 각 부분에

힘과 운동을 붙여 넣는 역할로 인식되었다(마이클 로이(이성규 譯) 1987: 42).

혼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좌전(左傳)』으로 소공(昭公) 7년(기원전 535년) 정(鄭)나라 자산(子產)의 말에서다. 그는 ‘사람이 생겨나면 처음에 백(魄)이 작용하고, 이후에 양기(陽氣)인 혼(魂)이 작용한다...(중략)...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 다른 사람의 몸에 붙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중략)...이렇게 횡사하였으니 귀신이 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자산의 이 말은 중국에서 영혼이나 귀신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해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시대~한나라에 이르는 여러 전적에서는 ‘혼기(魂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 거나 ‘하늘의 기운이 혼(魂)이고 땅의 기운이 백(魄)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 중국의 전통적인 죽음관으로 고착되었다(박지현 2002: 34-36).

『설문해자』에는 ‘혼은 양기(陽氣), 백은 음신(陰神)’ 이라 했고, 『성리대전』에는 ‘혼기(魂氣)는 신(神)이 되고, 체백(體魄)은 귀(鬼)가 된다’ 고 하여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육신을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육신과 함께하는 땅속으로 돌아감으로써 혼백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김윤희 2019: 37).

중국 은허(殷墟)의 갑골문에 이미 복사(卜辭)가 존재하고, 춘추시대에 이미 혼백의 분리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에도 망자의 영혼을 어떤 식으로든 적색마연토기에 담았을 것이라는 가설은 무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증은 어렵겠지만) 호/병에 영혼을 담은 의식이 청동기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동시에 영혼을 담은 호/병이 주검과 함께 매장되는 습속이 보편화되었거나 특정 지역에서 유행했다는 것을 분포와 밀도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주검으로부터 혼백의 분리를 가정하고 적색마연토기에 영혼을 담았다면, ①그 주체는 맥락상 혼(魂)이나 백(魄)이어야 한다. 그리고 ②죽은 시점에서 매장 전까지 주검으로부터 혼이나 백을 분리해서 담은 의식이 진행되어야 한다⁶⁾. 이후에 비로소 무덤 내부에 주검과 혼 또는 백이 담긴 적색마연토기를 안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혼을 담았다면, 백은 주검과 함께 매장되어 사라질 것이고, 백을 담았다면 혼이 남게 된다. 분리된 혼을 일정 기간 동안 모시는 습속이 있었다면, (혼이 사라지거나 돌려 보낸?) 어느 시점에 본래의 무덤에 빈 영혼호(靈魂壺)를 다시 묻었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2점의 적색마연토기가 위치를 달리하여 출토될 것이다. 그러한 습속이 없었다면 백이 흙으로 사라지듯 일정 시기 후에 자연/하늘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배진성(2020, 2021)이 제시한 매장주체부 안쪽의 적색마연토기는 백(魄)을 위한 안식처, 바깥쪽 특정 위치의 적색마연토기는 혼(魂)을 위한 안식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주자가례』 「상례」 <題主>조에는 혼백상(魂帛箱: 혼을 담은 상자)이 기록되어 있다. 매장이 끝나고 묘소에서 신주(神主: 위패)를 쓴 후에 “○○이 ○○에게 아뢰입니다. 형체는 무덤 속으로 가셨지만 신령은 집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옆드려 바라건대 신령께서는 옛 것을 버리고 새것을 좇아 여기에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하면서 주검과 혼을 분리시킨다. 이후 혼백상을 품고 있다가 신주와 함께 영거(靈車)에 태워 무덤을 떠나 살던 집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③주검과 혼백을 분리하는 별도의 의식 없이 그대로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혼백을 위해 평온하게 존재하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내밀한 공간, 즉 적색마연토기를 주검과 함께 놓아줌으로써 혼백이 토기 안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무덤 내부 특정 위치에 부장된 ‘구멍 있는 토기’ 등도 바로 이러한 혼백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뚜껑의 유무는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매장주체부 바깥쪽 특정 위치에서만 확인된다면, 이것은 분리된 혼의 안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해석은 적색마연토기 안에 아무것도 출토되지 않아야 하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적색마연토기 안에 곡식(종자)과 같은 모종의 유기물을 넣어 무덤 안에 부장했다는 주장(송영진 2006: 35)도 매력적인 해석임에 분명하다. 이 경우에는 부장(副葬)과 공헌(供獻) 모두 가능한 해석이다. 부장된 곡물의 존재는 적색마연토기가 갖는 붉은 색의 상징성과 함께 망자를 위한 공헌물로서 제격이다. 곡물은 농경사회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고, 저세상으로 가는 망자를 위한 먹거리 또는 내세의 삶을 위한 종자(種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의 상장례 때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시대가 많이 달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무리이나 농경사회에서 곡물의 중요성은 내세에도 중시되었기 때문에 ‘무덤과 곡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자가례』 「권4 상례」 <치장>조에는 ‘오곡(五穀: 쌀·보리·콩·조·기장)을 5개의 대나무 용기(筩) 또는 작은 용기(甕)에 각각 담고, 3개의 자기에 술, 포, 육장을 담아서 편방에 넣는다’는 내용이 있다. 또 ‘오곡은 물에 담가 끓인 것을 담는데, 신(神)이 식도(食道)를 쓰지 않으니 공경(敬)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경의 의미가 담긴 공헌물은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소산으로서 과거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색마연토기와 곡물의 관계는 위 ③항과 동일한 조건이자 고고학적 정황으로, 해석만 다를 뿐이다. 적색마연토기 안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토 빈도에 비해 곡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이다. 적정 수준의 출토 사례가 축적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해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 절차적 콘텐츠 관점의 의례

지금까지 논의된 의례 연구에서 최종적인 성격이나 목적/목표 외에 방법론이나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 적은 거의 없었다. ‘A는 이러 저러 해서 B일 것 같다’는 단순 해석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종교적·신앙적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에 부딪힌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발표자가 언급한 대부분의 의례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상길(2000: 117-123)의 연구를 계기로 의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중국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의례」의 관점과 같이 절차와 의식이라는 과정이 성립된 것이다.

그의 의례 연구 중 지석묘를 대상으로 한 장송의례(葬送儀禮)는 대표적이다<표 7>. 그는 지석묘의 축조 과정을 의례의 단계로 상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의례의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비단 죽은이를 저승으로 보내는 절차적 과정인 ‘장례(葬禮)’ 또는 ‘장례식(葬禮式)’ 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길 이후 지석묘의 장송의례는 윤호필(2012: 377-393)에 의해 더욱 세분화된다. 지석묘 축조 과정과 연동되는 거의 대부분의 과정과 환경을 의례와 연결시킴으로써 풍성한 절차적 콘텐츠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표 8>. 그러나 세분된 단계 설정이 당시에 유의미한 절차로 인정되어 의례/의식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표 7> 지석묘의 단계별 장송의례(이상길 2000)

| 단계 | 의례명칭 | 콘텐츠 | 비고 |
|-----|-----------|---------------------------------------|-----------------|
| I | 정지의례 整地儀禮 | • 무덤 자리 정비 • 수혈+석부 또는 청동기 | 금릉 송죽리, 칠곡 복성리 |
| II | 축조의례 築造儀禮 | • 땅을 파고 무덤 조성 • 벽석 사이, 충전토 사이에 유물 | |
| III | 매장의례 埋葬儀禮 | • 시신 안치, 장송의례의 핵심 • 유물 부장/매납, 희생의례 | *안치의례(安置儀禮)-발표자 |
| IV | 매장의례 埋葬儀禮 | • 시신 매장/매물 • 매장, 개석-지석-상석-묘역 마감 | |
| V | 제사의례 祭祀儀禮 | • 사후 제사 | |

<표 8> 지석묘 축조 과정과 단계별 의례(윤호필 2012)

| 축조단계 | | 축조과정 | 단계별 의례 |
|-------|-----|--------------------------|------------|
| I 단계 | ① | 묘지 선정 | 산천의례 |
| | ② | 묘구 조성 | 지신의례 |
| | ③ | 묘역 선정 및 정지 | 정지의례 |
| | ④ | 채석 | 채석의례 |
| | ⑤ | 석재 운반(상석, 벽석, 바닥석 등) | 운반의례 |
| II 단계 | 개석식 | ① 묘광 파기 | 천광의례 |
| | | ② 바닥석 및 벽석(4벽) 설치 | 축조의례 |
| | | ③ 시신 안치 및 유물 부장 | 매장의례, 매납의례 |
| | | ④ 매장주체부 내부 채우기 | 밀봉의례 |
| | | ⑤ 개석 덮기 | 밀봉의례 |
| | | ⑥ 개석 상부 채우기 | 밀봉의례 |
| | | ⑦ 지석 및 상석 놓기 | 상석의례 |
| | | ⑧ 묘역시설 설치 | 묘역의례 |
| | 탁자식 | ① 바닥석 및 벽석(3벽) 설치 | 축조의례 |
| | | ② 상석 놓기 | 상석의례 |
| | | ③ 시신 안치 및 유물 부장 | 매장의례, 매납의례 |
| | | ④ 마구리돌 설치 | 밀봉의례 |
| | | ⑤ 묘역시설 설치 | 묘역의례 |
| | | ⑥ 묘구(묘역)관리·보수(벌초 및 보수작업) | 제사의례 |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거나 세부 절차 및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세세하게 의식/의례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차의 세분화와는 차이가 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정선의 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경계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고민은 순자의 예(禮)에 대한 정의가 도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구성원 관점의 의례

청동기시대 의례에서 구성원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주재자, 의식을 보좌하는 참여자, 군중 정도로 대별할 수 있을 뿐이다. 좀 더 나아가간다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 의례에 참여할 수 있거나 취락 구성원 일부만 제한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다. 또 공식적인 의례와 비공식적인 의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례 수행에 있어 구성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볼 만한 것이 매납의례가 아닐까 한다. 매납의례는 종교적·의례적인 목적으로 특정 기물을 땅속에 묻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의 청동기 매납이 대표적이다(이상길 2000: 171). 우리나라는 청도 예전동과 개풍 해평리에서와 같이 산비탈의 돌무지(너덜경) 속에 청동유물을 매납 또는 은장(隱藏)한 것을 제사(祭祀) 또는 퇴장(退藏) 유적으로 본(이건무 1992a: 126-127) 이래 마산 가포동 등 많은 유적에서 조사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神庭荒神谷 유적과 같은 매납유적으로 볼 때 매납의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다량의 특정 기물, ②매납을 위한 특정 장소, ③의례를 수행하는 구성원, ④의례를 구성하는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⑤의례의 최종 목적이나 목표[신념]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 가운데 구성원을 좀 더 세분화해 본다면 <표 9>와 같다.

<표 9> 매납의례의 구성원

| 관련성 | 구성원 | 비고 |
|-------|---------------|------------------|
| 기물+설비 | 기물 제작자/집단 | |
| | 기물 운반자/집단 | |
| | 매납 구덩이 굴착자/집단 | |
| | 매납 수행자/집단 | 또는 의식 수행자/집단(?) |
| 장소 | 매납 장소 기획자 | =주재자(?), 마을회의(?) |
| 콘텐츠 | 주재자 | |
| | 의식 수행자/집단 | |
| | 취락 구성원 | =군중 |

매납의례에서 구성원은 주재자, 수행자 및 조력자, 군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군중을 제외한다면 기물 제작자나 운반자 같은 조력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력자의 역할을 의식 수행집단에서 전문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

한 세분화는 매납행위가 비공개로 내밀하게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길(2000:194)은 우리나라의 매납의례가 청동기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청동의기보다는 무구(武具)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매납이 종교직능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층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신앙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집단 대표자인 수장이 범공동체적 차원에서 수행한 의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매납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청동기의 매납이 발견되는 요령식동검기부터 기원후까지 일관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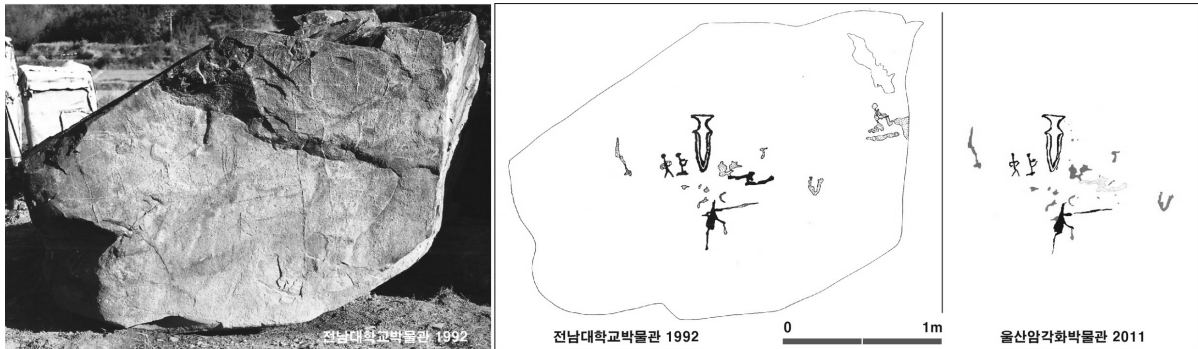
이와 달리 조현중(2014: 11-12)은 매납을 단순한 은닉이나 폐기와는 다른 것으로, 제사와 같은 신앙의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청동기가 대부분이지만, 토기와 석기도 확인된다고 하면서 ①토기 매납은 제사용으로 제작된 것과 일상생활의 것을 전용한 예가 있는데, 제사후 매납으로 보이는 흑도(영암 엄길리 지석묘)를, ②석기 매납은 독립적인 작은 석관에 석검 1점을(안동 지례동) 매납한 것과 석부 3점을 매납한 수혈유구(순천 쌍암)를 제시하였다. 특히 청동기의 매납은 단순한 마을 범위를 초월하여 지역집단의 제사에 사용됨으로써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번영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매납이 그 자체로 제사행위인지 제사 후 매납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분명하지 않음을 전제하였다.

제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의/의례는 당시의 목적성을 가지고 (다양한) 신에게 공헌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물로 사용되는 기물들과 음식들은 신을 위한 무대에서 융성하게 빛을 발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음식은 음복이나 재분배를 통해, 제사 전용 기물들 또는 특정한 기물은 기원과 함께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땅에 묻음으로써 오롯이 신만을 위한 퇴장(退藏)으로 역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의식이 기물과 함께 담겨졌을 것이므로 좀 더 치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5) 신념(상징, 신) 관점의 의례

신념은 신(神), 상징뿐만 아니라 기원의 대상에 대한 믿음에 이르는 범주까지 해당한다. 따라서 의례/제의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신봉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는 대상은 신(조상신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정점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에는 고고학적으로 신상(神像)이 발견되지 않아 유형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록 암각화에서 패형신상(牌形神像)이나 인면상(人面像)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 대상물이 신(神)인지, 제사장인지, 가면(假面)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 끊임없이 접근해가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또 선사시대에는 조상신이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지만, 애니미즘(animism)이나 토테미즘(totemism)에 기반한 신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청동기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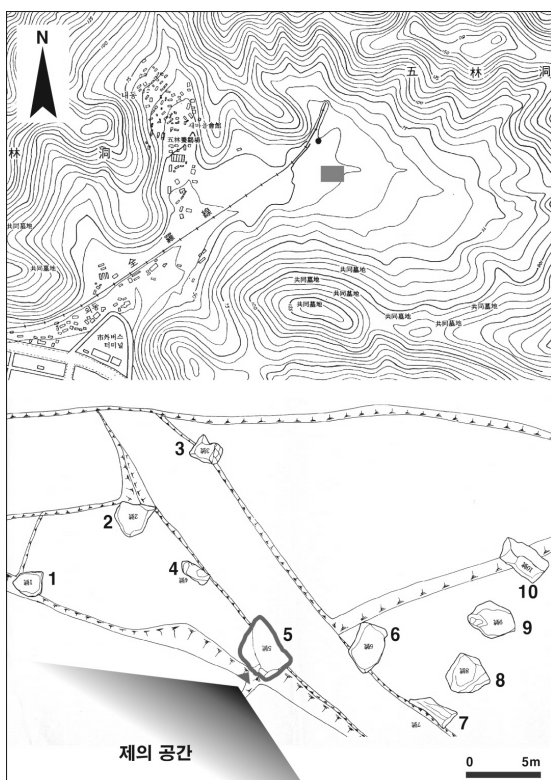
〈그림 5〉 여수 오림동 지석묘 암각화(5호 지석묘)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 오림동의 암각화는 신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형과 무형 요소가 복합된 사례라고 생각된다(그림 5). 이 암각화에는 신성한 마제석검, 마제석검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원하는 사람과 서서 합장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릎을 꿇은 몇몇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석검은 암각화에서 중심을 이루는 소재로서 조사자는 생전에 자신을 지켜주고 권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상징적인 검은 피장자뿐만 아니라 무덤(지석묘) 자체도 보호해줄 수 있는 조상과 동일시되는 존재였을 것으로 해석하였다(전남대박물관 1992: 86).

이와는 달리 오림동 암각화는 전사 의례(戰士儀禮)의 사례로서 마제석검을 통해 청동기시대 전사(戰士)의 상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분화로 가는 권력자의 상징물로

보는데 동의(이성주 2012: 90)하는 견해도 있다.

암각화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소적 개념이 강하지만, 지석묘군 가운데 특정 상석에 표현됨으로써 장소라는 불변의 환경적 요소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제석검은 물질적 성격의 석검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숭배하는 상징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마제석검=권위/신격화된 존재=신성(神聖)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사로서의 용맹함과 지도력이 튼튼한 기반을 형성해준다. 이러한 관계는 비단 「엑스칼리버(Excalibur)=위대한 아서왕=신성」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도 암각화가 묘사된 5호 지석묘는 가장 큰 상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지석묘군의 중앙에 위치한다(그림 6). 일견 나머지 지석묘들을 좌우에 거느린 것



〈그림 6〉 여수 오림동 지석묘군의 제의공간

같은 형국으로, 남서-북동 방향의 열상분포 또는 북서-남동 방향의 열상분포로 기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무덤들의 열상분포와 신성함으로 거듭난 암각화를 배경으로 5호 지석묘의 남서쪽 또는 남쪽 공간은 제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림동 암각화는 석검, 영웅적 전사, 권력자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러한 경계를 넘어선 존재, 즉 신성·위대한 조상신·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존재로 고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연의 형상으로서의 도상(圖像)과 신적 존재로서의 신상(神像)의 상징이 응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림동 청동기시대인들의 신념이 담겨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

Ⅲ. 의례 연구의 방향성

1. 체계적인 유형화(類型化)의 필요성

고고학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해석되는 의례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신앙적·제의적 성격 정도로만 제시되고 있다. 결과보고 및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밀도 있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증거 확보나 정황 설명에서 자료의 부족 때문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이다.

무형으로서의 행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의례의 확인과 그러한 행위의 목적 및 대상, 나아가 행위 주관자와 참여자들의 공간적 범위(취락 내, 특정 위치 등)에 대한 유추는 어느 정도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김두철 2000: 48) 발표자는 의례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복합적 연계를 모색해보았다.

의례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유형화(類型化)라고 생각한다. 신석기시대~삼국시대의 제사를 검토한 조현중(2014: 18-19)은 ①제사유물과 제사유적에 대해 구체적인 유물의 형태, 재질 특징, 출토 사례, 밀집도, 분포 정황 등이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하고, ②제사 자료의 개념과 종류를 더욱 구체화시켜야 하며, ③전사·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심성이나 관념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무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발표자의 글이 사실은 유형화를 위한 작업이어야 했다. 그러나 유형화 이전에 세부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의례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의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의례는 신격(神格), 장소, 목적, 시기, 행위 등 시각에 따라 그 명칭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없는 의례/제사는 어떤 한 기준에 의해 명제화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사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오영 2018: 311-3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발표자(2018b: 72)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 한

계에도 불구하고 장소, 신앙/대상, 목적, 시기, 형태/행위(儀式), 제사의 주체 등의 관점에서 의례/제사를 정의하거나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수변의례/제사를 예로 들면, 이것은 물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의례/제사라는 뜻이지 특정한 신격이나 숭배의 대상을 알 수도 없거니와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의식의 정체 역시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같은 맥락에서 암벽에 새겨진 암각화를 산천의례, 농경의례, 수렵의례, 기물(器物)의례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의례 분류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특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또 포괄적 개념이나 정의 같으면서도 서로 중복되고 애매한 경계를 이룬다. 의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관점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주요 제사/의례 분류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청동기시대 의례/제사의 분류 사례

| 연구자 | 분류 | 내용 | 관점/기준 |
|-----------|------|---------------------------|--------------------------------------|
| 이상길(2000) | 생활의례 | 주거 공간 | 공간이 기준 같지만 목적, 행위(의식)가 내포되어 있음 |
| | 농경의례 | 경작지 | |
| | 수변의례 | 하천 | |
| | 장송의례 | 분묘 공간 | |
| | 매납 | 외진 곳, 정치 지도자, 집단 전체의 이익 | |
| 조현중(2014) | 생활제사 | 집락의 내/외부, 자연(산, 하천, 해안 등) | 공간이 기준 같지만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 |
| | 생산제사 | 논밭, 생산시설(철, 토기 등) | |
| | 분묘제사 | 무덤 | |

의례/제사에 대한 유형화가 대부분 장소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한 가지 관점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 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가 주거영역 일원의 광장(공터)에서 이루어졌다면 농경의례인가? 생활의례인가?
- ② 관개수로를 정비하거나 수전(水田)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는 농경의례인가? 수변의례인가?
- ③ 매납은 메인(main) 의례에 수반되는 하나의 의식이나 행위 또는 자체적인 독립된 의례일 수 있는데, 대분류로 사용 가능한가? 생산의례(청동기 제작에서 안전과 최상품 기원)의 일환, 승리 기원 의례, 전쟁의례의 일환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은가?
- ④ 결사(結社)를 형성하거나, 성인식 또는 결혼을 할 때의 의례는 생활의례에 해당하는가? 또 생활의 범위와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의례의 체계성을 수립하는데 있을 것이다.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거의 동일한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 작동되

고 있는 만큼 그 구조는 변화무쌍이라기보다는 유한(有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표자(2018b: 72-73)의 제안은 각양각색의 의례/제사를 단순히 ○○의례, ○○제사로 명제화하기보다는 유형화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사적 제541호)의 유형화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 성격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해양제사로 분류되는데, 유적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명칭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제[장소], 해신제[대상], 풍어·항해제[목적], 파쇄의식제[행위]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당시에 대량의 토기를 파쇄하는 행위가 드라마틱하게 연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파쇄의식’ 또는 ‘파쇄의례’로 기억되고, 풍어나 항해를 기원하기 위한 정도로 회자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장소]는 해안·산천·절벽·수변·평지·계단 등 다양하다. [대상]은 신격에 해당하는데, 천신·해신·귀신·조상신·농경신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 [목적]은 풍요·풍어·안전·계시 등 다양한 욕구의 설정이 예상될 수 있다. [시기]는 계절·주기적·일회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형태]는 파쇄행위, 매납, 상차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주체]는 국가·집단·개인(개별) 성격 등으로, [규모]는 대·중·소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항목 분류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을 때 의례의 유형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선사시대의 의례/제사를 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의례/제사에 대한 명명을 객관적으로 시도해보자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례를 유형화한다면, 먼저 ①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②독립적일 수 있는 세부 의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③신격(神格)은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는다면 제외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사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청동기시대 중기 진입을 전후하여 복합사회 및 계층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사회로의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전체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거점취락이나 대규모 취락에서 사회체계가 구조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나 모든 중·소규모 취락까지 동일한 체계의 계층사회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브래들리(R. Bradley)는 취락사회에서 의례의 수행과 과정은 이중적인 면을 가진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형식화된 규칙·관념·구조·이념들이 의례를 통해 실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례에 의해 이러한 체계들이 구조화되었을 것이라고 본 바 있다(이성주 1999: 428). 이러

한 관점에서 의례의 연구는 취락의 성격과 함께 복합적으로 구명되어야 하고, 조사되는 의례 흔적도 사회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청동기시대 취락사회에서 의례의 과정과 의식의 형태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 가치는 사회발전 양상과 더불어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다. 송국리형문화를 전후하여 계층 사회적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력자-의례-사회체계 간 상호관계에 접근해볼 수 있는 것이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대규모 마을 유적으로서 이원화된 주거 집단 체계, 대규모 대지조성, 제전, 광장(공터), 선상열주, 동검묘의 존재 등 일련의 취락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진주 대평리 유적은 송국리보다 더 큰 취락을 형성했음에도 송국리와 같은 의례 체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이와는 달리 사천 이금동은 취락의 규모는 송국리와 대평리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전을 축조하였고, 취락설계적 관점에서 의례 체계도 발달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취락의 발달 수준 정도는 의례 체계의 수준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의 정도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 물론 특정 취락에서 더욱 발전된 의례 체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대규모 취락이라고 해서 발전된 체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관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무덤, 주거, 유물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현상의 실마리를 추출하고 있는 것처럼 의례를 통해 특정한 사회현상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선상열주는 취락민들의 공감대, 집체적인 노동력 운용, 근·원거리 지역연계망, 자연자원의 집중화, 부의 재분배, 유력자의 리더십, 취락의례의 연출 효과 등 주요 사회현상(이종철 2019)을 추출해낼 수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송국리 복합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다.

의례와 사회현상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의례의 흔적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물음과 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① 왜 의례의 흔적인가?
- ② 의례는 누구에 의해(구성원), 무엇을 가지고(설비+기물), 어떤 형태나 행위로(콘텐츠), 어디에서(장소), 무엇을 위해(신념) 존재했는가?
- ③ 의례는 취락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성격으로 존립했을 것인가?
- ④ 의례는 모두를 위한 것이겠지만, 취락 내 특정 개인 또는 유력자의 독점적 정황도 추출할 수 있는가?
- ⑤ 의례는 특정 취락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가? 다른 지역과의 영향관계는 없는가?
- ⑥ 동일한 성격·형태를 가지는 의례의 분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례를 통해 이러한 사회현상의 축적이 가능해진다면, 취락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의례고고학(祭祀/儀禮考古學)

분야이다. 갈 길은 멀지만, 발굴조사자와 연구자들의 냉철한 시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더욱 해상도 높은 의식(儀式)들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

IV. 맺음말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는 이번 학술대회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학문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상길의 의례 연구는 전환점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드라마틱하게 잘 드러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 덕분에 의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냉철해지고 발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학계에 길이 남겨질 것이라는 점에 위안을 삼는다.

이러한 전환적 사고가 앞으로의 의례 연구에서 다시 등장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나 종교적·신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례가 있는 반면, 절차적·의식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관점의 조화를 통해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례를 독점하거나 의례를 매개로 사회적 위계를 공고히 하려는 종교적·정치적 의례권의 설정과 사회체계에 대한 연구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례/제사의 유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구성요소의 정확한 파악과 객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의례가 갖는 무형적 특징 때문에 명제화 및 유형화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단지 객관적 관점에서 의례/제사에 접근해보자는 것이므로 강박보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자의 예론은 의례/제사 연구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예(禮)는 너무 긴 것은 자르고 너무 짧은 것은 이어주며,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 주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보태 주어 사랑과 존경의 형식적인 수식을 다해 의로움을 행하여 기르고 완성케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정의를 통해 의식/제사는 조화로운 예(禮)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오영, 2018, 「의례」, 『마한 고고학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0, 진인진.
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環溝)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第76號.
김권중·박경신·황대일·공봉석, 2019, 『수혈 주거지 조사 방법』, 백두문화재연구원.
김두철, 2000, 「祭祀考古學의 研究成果와 課題」, 『고고학의 새로운 지향』, 제4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

표대회, 부산북천박물관.

- 김미경, 2017,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의 구조와 변천」, 『부여 송국리』,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도록.
- 金元龍, 1963, 「春川校洞穴居遺蹟과 出土遺物」, 『歷史學報』 20.
- _____, 1986(三版),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 _____, 1986(三版), 「藝術과 信仰」, 『韓國史論』 13, 國史編纂委員會.
- 김윤희, 2019, 「조선시대 국장으로 본 혼백의 수호신 방상시(方相氏)의 기능 고찰」, 『서울민속학』 제6호.
- 金載元·尹武炳, 1967,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 김학주 譯, 2001, 『순자』, (주)을유문화사.
- 盧赫眞, 1987, 「紅陶」, 『韓國史論』 17, 國史編纂委員會.
- 마이클 로이(이성규 譯), 1987,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지식산업사.
- 文明大, 1973, 「蔚山の 先史時代 岩壁刻畫」, 『文化財』 7, 文化財管理局.
- 박지현, 2002, 「중국의 영혼 관념과 혼백설」, 『중국문학』 38.
- 배진성, 2020, 「망자의 壺, 영혼의 壺」, 『한국고고학보』 116.
- _____, 2021, 「묘광 外 공헌 적색마연호 小考」, 『韓國青銅器學報』 29.
- 孫峻鎬, 2009, 「湖西地域 磨製石劍의 變化相」, 『湖西考古學』 20.
- 宋永鎭, 2006, 「韓半島 南部地域의 赤色磨研土器 研究」, 『嶺南考古學』 38.
- 安在皓, 2009, 「青銅器時代 泗川 梨琴洞聚落의 變遷」, 『嶺南考古學』 51.
- _____, 2020, 「青銅器時代 智佐里聚落의 形成過程과 社會相」, 『韓國青銅器學報』 26.
- 유병록, 2002, 「Ⅳ. 고찰」, 『大邱 東川洞聚落遺蹟』(財)嶺南文化財研究院.
- 윤호필, 2011, 「한국 선사시대의 수변의례」, 『고대 동북아시아의 수리와 제사』, 학연문화사.
- _____, 2012, 「경기도지역 지식묘의 장송의례」, 『인문논총』 제30집,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4,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분묘의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李健茂, 1992a, 「韓國의 遼寧式銅劍文化」, 『韓國의 青銅器文化』, 汎友社.
- _____, 1992b, 「韓國 青銅儀器의 研究-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28.
- 李相吉, 1994, 「支石墓의 葬送儀禮」, 『古文化』 45.
- _____,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성주, 1999, 「지석묘: 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고인돌) 유적 종합조사연구(Ⅰ)-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 _____, 2012, 「儀禮, 記念物, 그리고 個人墓의 발전」, 『湖西考古學』 26.
- 李殷昌, 1971, 「高靈良田洞岩畫調查略報」, 『考古美術』 112.
- 이정은, 2020, 「청동기시대 중기 적색마연토기 연구-충청·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철, 2014a,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聚落儀禮에 대한 토론」,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4b, 「韓國 祭祀遺蹟 事例-青銅器時代 農耕聚落을 中心으로-」, 『稻作農耕社會의 祭祀와 儀禮』, 光州 新昌洞遺蹟 國際學術 심포지엄Ⅳ, 국립광주박물관.
- _____, 2015a,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5b, 「청동기시대 立大木 祭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국고고학보』 96.
- _____, 2018a, 「부여 송국리 유적의 고고학적 의의와 과제」, 『부여 송국리 유적의 의미와 활용』,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부여 송국리> 연계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요지.

- _____, 2018b, 「한국의 고대 신앙과 제사유적」, 『부안 죽막동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 방안』, 전라북도 부안군·(재)호남문화재연구원.
- _____, 2018c, 「立大木·숫대 祭儀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試論」, 『한국고고학보』 106.
- _____, 2019, 「부여 송국리 線狀列柱의 성격과 시간성」, 『호남고고학보』 61.
- _____, 2021, 「청동기시대 후기 立大木 祭儀 존재와 의의에 대한 試論」, 『호남고고학보』 69.
- 李亨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8a, 「삼한 소도의 공간 구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중부지역의 환구 유적을 중심으로-」, 『百濟學報』 제24호.
- _____, 2018b, 「청동기시대 중심취락의 지역적 양상-송국리유형 시기의 대규모 기념물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송국리 유적, 왜 중요한가?』, 서울대학교박물관·중부고고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鄭治泳, 2009, 「송국리취락 ‘특수공간’의 구조와 성격-대형 굴립주건물을 중심으로-」, 『韓國靑銅器學報』 第4號.
- 정치영, 2012, 「부여 송국리 유적-삶과 죽음의 공간이 공존한 청동기시대의 마을 구조-」, 『한국고고학저널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현중, 2014, 「祭祀考古學-선사·고대의 祭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 朱熹(임민혁 譯), 2011, 『주자가례』, 예문서원.
- 青木保, 1994, 『社會學事典』(見田宗介 外編), 弘文堂.
- 최광식, 1995, 「大伽耶의 信仰과 祭儀」, 『伽耶史研究』, 慶尙北道.
- 崔鍾圭, 2005, 「所土里遺蹟에서 본 松菊里文化의 一斷面」,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 集落』, (社)慶南考古學研究所.
- 콜린 렌프류·폴 반, 2004(이희준 譯, 2006), 『현대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對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韓炳三, 1971, 「先史時代 農耕文靑銅器에 대하여」, 『考古美術』 112.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春川 舉頭2地區 遺蹟』.
- 全南大學校博物館, 1992, 『麗水 五林洞 支石墓』.
- 全南文化財研究院, 2021, 『光州 大支洞 上村·鴨村洞 大村·支石洞 大村遺蹟』 III.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제4발표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정대봉 울산문화재연구원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Pradigm Shift)

정대봉(蔚山文化財研究院)

I. 머리말

‘패러다임(paradigm)’이란, 미국의 사회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통용된 개념이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패러다임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 틀로 인식되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과학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운 그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거친다.¹⁾

새로운 고고자료가 속출하고 그러한 고고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취하는 고고학 연구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개념은 보다 명약화·구체화되고 대체와 변화의 시간적 경계가 뚜렷하다. 즉, 고고학은 新자료의 출현이 예측 불가능 특성상 어느 분야보다 패러다임의 수명이 짧고 유연하며 검증과 대체 과정이 연속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사전적 의미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의 성과가 누적되어 기존 패러다임이 부정되고 경쟁적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혁명을 거치며 기존 패러다임은 부정되거나 사라지고 경쟁관계에 있던 패러다임이 새롭게 대체되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고고학에서는 연구방법이 변하거나 新자료의 출현에 의해 새로운 성과가 누적되지만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정하여 새롭게 대체되는 과정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성과는 거시적으로 ‘고고자료를 통한 총체적 사회복원’이라는 고고학의 궁극적 목표에 수렴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新자료의 출현, 연구방법의 변화 등의 요소에 의해 검증·재고되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즉, 고고학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과거 인식과 성과의 매몰이라기보다는 누적된 성과위에 연구방법의 변화(또는 진화)나 新자료 출현에 따른 학계의 요구에 의한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전통고고학에서 탈피하여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제창되었던 ‘新고고학’의 등장과 쇠퇴, 그리고 1980년대 등장한 ‘후기과정고고학’과 같은 일련의 변화 등은 연구방법의 진화와 인식의 변화에 의한 산물로 여겨지지만, 기존 성과 일체를 부정하는 의미에서의 전환

1) 홍성욱, 2013,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이 아니라 -누적의 성과 위에서- 고고학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고고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연구방법의 변화에 기인한 산물만은 아니다. 그 절대적 동인은 바로 新고고자료의 등장이다. 많은 자료가 예고 없이 등장하는 학문의 특성상, 때때로 新자료의 등장은 모든 연구방법과 성과를 압도할 만큼 학계에 파장을 야기하기도 한다. 요컨대, 지난 반세기 동안 청동기시대 고고학(유물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한 요체는 꾸준한 新자료 출현과 그에 대응하는 연구방법의 변화로 파악된다.

II.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의 과거와 현재

한국 청동기시대연구의 태동은 해방직후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하여 60~70년대 서구에서 도입된 체계·방법론을 기초로 70~80년대 걸쳐 본격적인 연구의 틀이 완성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명문화된 문화재관리법과 국토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의 성과로 폭발적인 고고자료가 축적되는 획기를 마련했고 현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를 축적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고자료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연구방향에 기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1990년대 전후로 획기를 나눌 수 있다.

요컨대, 지난 반세기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Willey와 Jeremy(1980)가 주창한 고고학의 발달 단계²⁾ 중 ‘사변의 단계(해방 직후~1960년대)’, ‘분류·서술의 단계(1960~1970년대)’, ‘분류·역사의 단계(1980년대 이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여 과거 사회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년대별로 나타난 연구사조와 대표적 논문을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I기 (해방 전후~1970年代)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조사·연구는 시대여건 상 우리 연구자에 의한 주체적 연구가 아닌 일본 연구자에 의해 시대를 명확히 하는 -주로 고분이나 패총- 유적조사에 국한되었다. 이후 한국고고학이 태동하는 무렵인 해방직후의 연구는 주로 新발견 유적이거나 그에 따른 일괄유물을 소개하는 논문, 아니면 어느 한 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을 개관하고 그 계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주류였다.³⁾ 이 시기는 한국고고학의 여명기인 만큼 새로운 자료가 등장하면 그것이 곧 학설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시대라 할 것이다. 이 시기 남한 청동기시대(선사시대) 연구

2) Willey, G. R. and Sabloff, J. A., 1980,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3) 李盛周, 2017, 「70~80년대의 한국고고학」, 『韓國上古史學報』 제97호.

는 특히 미진하여 유적의 조사방법이나 유물의 서술 등의 측면에서 북한 한계의 연구 사조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해방직후 이미 금탄리유적, 석교리유적, 태성리유적, 지탑리유적, 신흥동유적, 침촌리유적, 오동유적, 호곡유적, 공귀리유적, 심귀리유적 등 청동기시대 주요 유적의 발굴조사를 爲始하여 이를 토대로 한 연구가 기초를 다졌다. 이 외에도 해방전에 발굴조사된 중국 동북지역 발굴조사 자료를 소개한 한·중 합작 논문이나 일본학자의 논문도 눈에 띈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당시 사회제도상 국가주도의 연구에 천착된 결과물이지만, 조사방법이나 유물의 기술, 고찰 등 보고방법은 매우 세밀하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 발표된 ‘조선서북지방 원시토기의 연구(황기덕 1958)’는 각형토기의 소개, 분류, 기원, 공반유물 등을 분석함은 물론 이전 시기와의 관계 및 주변국가의 분포까지 고찰⁴⁾하여 당시 남한 학계에 비하면 이미 매우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60~70년대까지 북한고고학은 더욱 더 체계를 갖추어 유물 분류, 계통, 편년, 사회경제 등에 집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축적하기에 이른다. <표 1>

<표 1> 해방이후 북한고고학의 주요 업적(『북한의 선사고고학(1992)』 발췌)

| 연번 | 문헌 | 저자(연대) | 연구분야 |
|----|---------------------------------------|---------------|------|
| 1 | 조선거석문화연구 | 도유호(1959) | 개관 |
| 2 |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 청동기시대 문화와 그 주민 | 리병선(1966) | |
| 3 |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 김용간·황기덕(1967) | |
| 4 |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 | 황기덕(1970) | |
| 5 | 부계씨족공동체사회 | 력사연구소(1977) | |
| 6 | 조선에서 발견된 초기금속유물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과 그에 대한 검토 | 정백운(1957) | 연대 |
| 7 | 강계시 공귀리 원시유적 편년에 대하여 | 김용간(1959) | |
| 8 |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김용간(1964) | |
| 9 | 서부지방 팽이그릇유적의 년대에 대하여 | 황기덕(1966) | |
| 10 | 기원전 2천년기 문화의 특징과 시기구분 | 고고학연구소(1977) | |
| 11 | 부계씨족사회의 유적들과 그 년대 | 력사연구소(1979) | |
| 12 | 압록강류역 빗살무늬 그릇 유적들의 계승성에 대한 약간의 고찰 | 리병선(1965) | 계통 |
| 13 | 청동기시대의 유물에 보이는 계승관계 | 고고학연구소(1969) | |
| 14 | 라진·초도 원시유적 출토인골 감정보고 | 최명학(1955) | 주민 |
| 15 | 초도유적의 주인공에 대하여 | 도유호(1960) | |
| 16 | 우리 나라 동북지방의 청동기시대 주민과 남녘의 주민과의 관계 | 황기덕(1964) | |
| 17 | 무산 범의구석 원시유적에서 나온 인골에 대하여 | 백기하(1965) | |
| 18 | 웅기 서포항 원시유적에서 나온 인골 | 백기하(1966) | |
| 19 | 우리 나라 원시시대 주민들의 인류학적 특징 | 백기하·장우진(1973) | |
| 20 | 승리산유적에서 나온 청동기시대 사람뼈 | 고고학연구소(1978) | |

4) 황기덕, 1958, 『문화유산』58-4, pp.79~83.

| 연번 | 문헌 | 저자(연대) | 연구 분야 |
|----|--|-------------------|----------|
| 21 |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류역 청동기시대 주민의 경제생활 | 리병선(1966) | 사회 경제 |
| 22 | 청동기시대 짐승사냥 | 김신규(1970) | |
| 23 | 원시시대의 집짐승 | 김신규(1970) | |
| 24 | 승리산유적의 짐승상에 나타난 청동기시대 집짐승치기와 사냥 | 고고학연구소(1978) | |
| 25 | 남경유적에서 나온 낱알을 통하여 본 팽이그릇주민의 농업 | 김용간·석광준(1984) | |
| 26 | 고인돌 변천과정을 통하여 본 청동기시대 사회관계 | 석광준(1979) | |
| 27 |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에 대하여(1)·(2) | 황기덕(1987) | |
| 28 | 청동기시대 집자리를 통하여 본 집채임새의 변천 | 김용남·김용간·황기덕(1975) | 주거지 |
| 29 | 팽이그릇집자리들의 유형별 집채임새와 그 변천 | 리기련(1980) | |
| 30 | 남경유적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의 연대 | 김용간·석광준(1984) | |
| 31 | 청동기시대 및 고대 살림집의 구조형식과 건축기술의 발전 | 황기덕(1984) | |
| 32 | 북창유적의 돌상자무덤과 고인돌에 대하여 | 석광준(1973) | 무덤 |
| 33 | 고인돌채임새의 기본특징과 오덕고인돌에 대한 편년 | 석광준(1974) | |
| 34 | 고인돌과 돌상자무덤의 관계 | 석광준 | |
| 35 | 목방리고인돌에 관한 몇가지 고찰 | 리정남(1985) | |
| 36 | 돌관무덤에 대하여 | 김동일(1988) | |
| 37 | 조선 서북지방 원시토기의 연구 | 황기덕(1958) | |
| 38 | 압록강 류역의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들과 그 분포 정형 | 리병선(1963) | 유물 |
| 39 | 우리 나라 활축의 형태와 그 변천 | 박진욱(1967) | |
| 40 | 함경남도, 량강도 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청동기시대 유물에 대한 고찰 | 김용간·안영준(1986) | |
| 41 | 청동기시대의 피리, 팽이그릇, 반달칼, 돌상자무덤, 미송리형단지, 돌돈, 비파형단검 | 민속학연구소 | |

<표 1>과 같이 해방 이후 북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는 ‘新자료 발견 - 고찰 (분류·편년·계통연구) - 사회구조 연구’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업적의 기저에는 해방전후 축적한 다수의 고고자료와 주변국의 영향을 받은 방법론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남한의 청동기시대연구는 해방 직후 이렇다할 성과 없이 19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여명을 맞이한다. 김원룡(1968)은 무문토기에 대해 ‘광복 전 무문토기라 한 것은 빗살무늬토기 및 金海式 打捺무늬토기와 구분될 뿐 아니라, 홍도와 흑도 등의 마연토기와도 구분이 되는 적갈색 조질무문토기를 일컫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었다. 광복 후 조사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金海式 打捺무늬토기는 철기시대, 무문토기는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등의 시대적 선후관계가 분명해지고, 한편으로 마연토기와 공반이 확인되면서 무문토기는 마연토기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라고 정의하였다.⁵⁾ 즉, 해방 전후는 무문토기의 존재에 대해 어림없이 인지를 하면서도 시대적 위치나 유물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은 전무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기초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5) 金元龍, 1968, 「韓國無文土器地域分類試論」, 『考古學』1.

청동기시대 연구가 新자료 발견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론을 도입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는 북한 및 주변국 자료 등을 통해 입수한 선사시대 유물(주로 토기, 석기)에 대한 인지를 시작한 것에 기초해서 남한에도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 유적 조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1960년대 초 남양주 수석리유적(서울대학교 1961)을 필두로 서울 가락동유적(고려대박물관 1963), 서울 역삼동유적(숭실대박물관 1966) 등 청동기시대 주요 유적이 소개되고 바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무렵 청동기시대 유물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무문토기⁶⁾(金元龍 1968), 반달돌칼⁷⁾(崔淑卿 1960)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이 새로운 자료(유물)에 대한 紹介나 觀察 등이 주를 이루고 나아가 큰 틀에서 초보 단계의 편년(시기설정) 등이 시도되는 성과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이른바 ‘사변의 단계’에 머문 것으로 철저하게 전통고고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다.

요컨대,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전통고고학의 시각에서 新자료 출현에 따른 연구가 당시의 思潮였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의 첫 번째 의제전환(paradigm shift) 움직임은 1970년대에 감지된다. 이 시기는 이론, 방법, 실천 등에 대한 관점의 심화 및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여주 혼암리유적(서울대박물관 1972~1977), 부여 송국리유적(국립중앙박물관 1975) 등 향후 청동기시대 연구에 주요 과제가 되는 유적의 조사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점차 연구의 방향과 체제를 잡기 시작한다.

1974년 마을주민의 신고로 시작된 부여 송국리유적은 석곽묘 1기에서 요령식동검, 관옥, 곡옥, 마제석기 등 획기적인 유물이 출토되어 각종 언론에 ‘한국 선사고고학계의 최대 발견’ 등으로 보도⁸⁾되고 이러한 조사성과는 당시 학계에 유례없는 파장을 가져 왔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요령식동검은 한반도에서 출토지가 확실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시간적 위치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는 획기가 되었다. 이후 송국리유적은 2017년까지 약 43년 동안 총 4개 기관이 22차례의 정식발굴조사를 통해 수많은 학설을 양산해 내며 이른바 ‘송국리문화’의 개념을 정립한 유적이다. 송국리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여러 방법적 시도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는 비로소 ‘사변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전통고고학에서 벗어나 新고고학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여 고고자료를 통한 사회구조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동향이 감지된다. 이러한 사조는 1950년대 전통고고학이 득세하다가 1960년대 新고고학의 관점으로 들어서는 서구학계의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와 궤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해방직후 고고학적 저변이 미미하였던 우리나라의 경

6) 金元龍, 1968, 前掲文.

7) 崔淑卿, 1960, 「韓國 摘穗石刀의 研究」, 『歷史學報』 13.

8) 경향신문(1974년 10월 8일), 동아일보(1974년 10월 8일), 조선일보(1974년 10월 9일), 중앙일보(1974년 10월 8일) 등.

우는 이러한 의제 전환이 한 발 늦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부터 나타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新고고학의 관점에서 사회구조나 복원을 시도함과 동시에 유물관찰의 기술이 더욱 심화되어 양자를 병행하는 二元的 연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물의 관찰에 있어서 외형·모양뿐 아니라 표면처리·정면기법 등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분류체계를 마련한 연구(尹武炳 1975)와 같은 試論이 등장하고⁹⁾ 유물을 분류·정의하고 간단한 편년과 함께 공간적 분석에 대한 고찰까지 해석한 논문(李白圭 1974)도 선을 보인다.¹⁰⁾

상기 연구 중 이백규(1974)는 동북지역에서 남하한 역삼동식토기와 황해-평안지방의 각형토기 문화권에서 남하한 가락동식토기의 한강유역 융합을 근거로 이른바 ‘혼암리식토기說’을 주창하여 前期 무문토기시대¹¹⁾ 연구의 서막을 알렸다. 이는 결과적으로 훗날 많은 지지와 再考를 받아온 대표적 연구로서 단일 유물(군)을 통해 간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고학적 정보를 그간의 연구와 결합하여 계통, 집단 및 공간을 추적한 연구의 嚆矢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토기에 반영된 문양요소와 외형을 통해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특정 장소에서 융합하여 전개했다는 결론의 도출은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형식학적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토기의 제작 집단 및 계통연구의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학계에 매우 긍정적 반향을 야기했다.

요컨대, 1960년대의 청동기시대 연구가 新자료 출현에 따른 ‘사변적 단계’에 머물렀다면, 1970년대는 유물을 보다 면밀히 관찰·분석하고 기초적 분류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제작 집단·계통적 연구의 발판을 다진 ‘분류·서술의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북한학계가 기초적 편년은 물론 압록강·대동강·두만강유역과 같은 광역적 단위의 분류를 인정한 반면, 남한은 여전히 단일문화권으로 보는 시각에 머물렀지만, 1970년대 후반 송국리식토기문화를 필두로 남한지역을 단일 문화권으로 이해하기에는 곤란한 자료가 속출함에 따라 학계에는 광역단위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이러한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 연구 동향과 軌를 같이 한다.

2. II기 (1980~1990年代)

1980년대는 모든 면에서 청동기시대 연구의 큰 틀이 본격적으로 다져진 시기이다. 이전의 연구가 初出 자료의 단편적·개관적 소개 및 초보적 편년·분류에 머물렀다면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편년·지역성·유형 등 보다 복합적이고 입체적 연구가 시도되었다. 또한 유물에

9) 尹武炳, 1975b, 「無文土器型式分類試攷」, 『震檀學報』 39.

10) 李白圭, 1974,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 3.

11) 李白圭, 1974, 前掲文.

대한 과학적 분석이 최초로 시도되는 획기를 이룬 시기이다. 유물연구의 대표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백규(1986)는 한강유역의 토기와 석기를 분석하여 이전 연구에 더해 지역성과 편년을 연구한 성과를 제시했다.¹²⁾ 그는 충주댐 수몰지구유적 발굴조사의 성과 등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한강유역 전반기 민무늬토기 유적을 크게 네 群으로 나누고 편년(I~IV기)과 비교적 좁은 범위의 지역성을 연구하였다. 각 유적별 토기와 석기의 공반관계를 통해 유물군을 설정하고 무문토기시대 전 시기를 편년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토기와 석기의 조합을 통해 편년을 시도하고 이러한 유물의 속성이나 형식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지역성을 도출해낸 점은 향후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1980년대 가장 획기적인 연구로 이청규(1988)의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70년대까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연구가 단일문화권¹³⁾¹⁴⁾(역삼동식·가락동식·수석리-괴정동식) 시각에 매몰된 점에 착안하여 세밀한 유물의 속성 분석을 통해 토기와 석기를 중심으로 한 여섯가지 ‘토기복합군’ (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송국리식·수석리식·군곡리식)을 설정하고 이를 ‘~式’ 토기군으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무문토기군이 특정 지역에서 전개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각각의 ‘~類型’으로 정의하였다.¹⁵⁾ 그리고 각 유형의 토기와 석기 등 유물 갖춤새의 정형 변화 및 방사성탄소연대까지 더해 편년¹⁶⁾을 제시하는 종합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類型論’의 탄생이다.

이 연구는 이전 시기와 같이 토기, 석기와 같은 개별 유물 관찰에 천착하지 않고 (1) ‘토기복합군(式)’을 설정한 점, (2) 토기복합군을 지역과 결부하여 ‘토기문화’로서의 개념(類型)으로 인식한 점, (3) 탄소연대를 부여한 시기구분을 시도한 점, (4) 한반도 무문토기시대의 특수성을 미리 인지한 점 등에서 고고자료가 비교적 부족했던 당시를 고려하면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유형론’은 수많은 연구가 거듭된 현재까지도 그 기본적인 열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지역성 연구에 新지평을 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송국리식외반구연호, 플라스크형 마연토기, 삼각형 석도 등의 조합상을 인지하여 ‘송국리유형’으로 정의하고 초보적 단계의 (상대)편년 등은 반향을 일으키며 향후 시기구분 연구에 있어서 중기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큰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한에서는 최초로 충주댐 수몰지구 조사(堤原 黃石里 B地區유적)에서 돌대문토기가 報告된다.¹⁷⁾ 최초의 보고에서는 서북·동북지역 전환기토기와 의 관련성을 생각하여 무문토기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파악하였지만, 이홍중(1988)은 황석리와 미사리의 돌대

12) 李白圭, 1986, 「漢江流域 前半期 민무늬토기의 編年에 대하여」, 『嶺南考古學』第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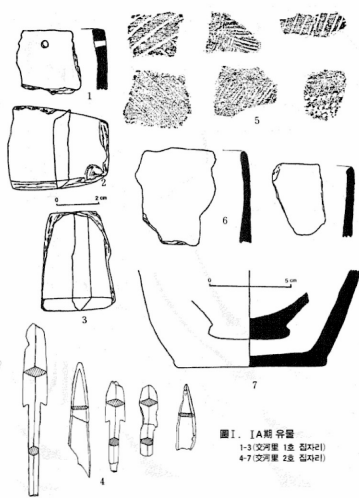
13) 林炳泰, 1969, 「漢江流域의 無文土器時代」,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論叢』.

14) 後藤直, 1973, 「南朝鮮의 無文土器-その變遷について」, 『考古學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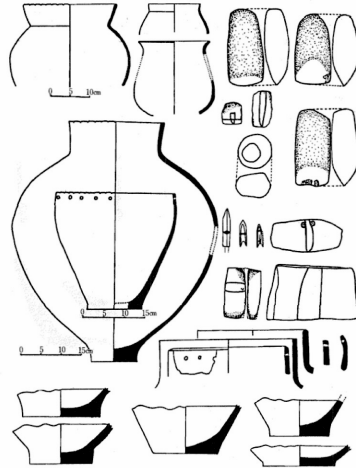
15)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的 展開와 孔列土器文化的 位置」, 『韓國上古史學報』1.

16) 李清圭, 1988, 前掲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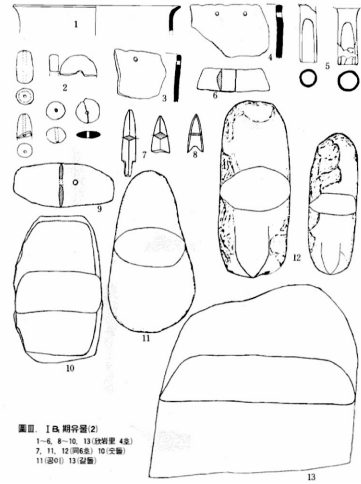
17) 忠北大學校博物館, 1984, 「堤原黃石里B地區遺蹟 發掘調査報告」, 『忠州댐水沒地區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圖I. 【A期 片器】
1-3(交河東 1區 磁片碎)
4-7(交河東 2區 磁片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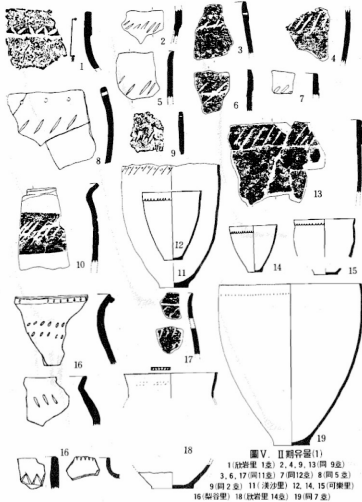


圖II. 【B期 片器(1)】
解三河 磁片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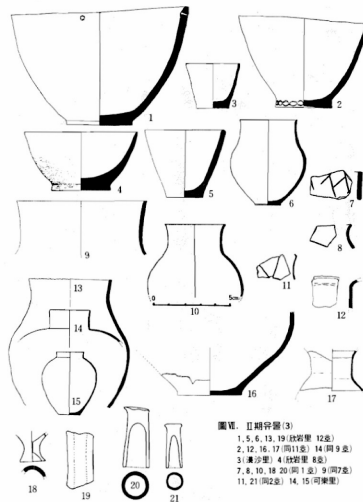


圖III. 【B期 片器(2)】
1-6, 8-10, 13(吐魯東 4區)
7, 11, 12(洞6區) 10(交河)
11(洞9區) 13(交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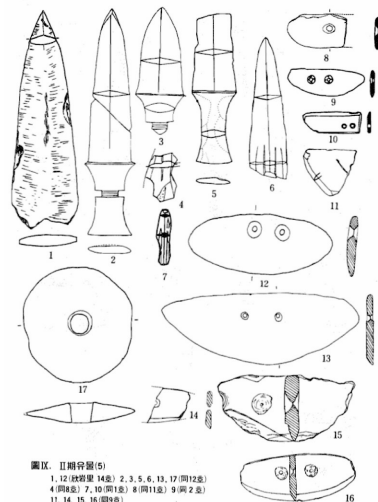
I기



圖IV. 【B期 片器(1)】
1(吐魯東 1區) 2, 4, 9, 13(洞9區)
3, 6, 17(洞1區) 7(洞12區) 8(洞5區)
9(洞2區) 11(洞8區) 12, 14, 15(洞東區)
16(洞西區) 18(吐魯東 14區) 19(洞7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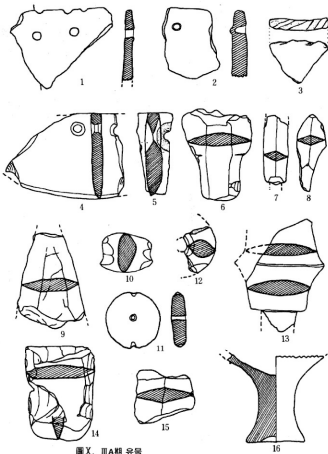


圖V. 【B期 片器(3)】
1, 5, 6, 13, 19(吐魯東 12區)
2, 12, 16, 17(洞11區) 14(洞9區)
3(洞沙區) 4(吐魯東 8區)
7, 8, 10, 18, 20(洞1區) 9(洞7區)
11, 21(洞2區) 14, 15(洞東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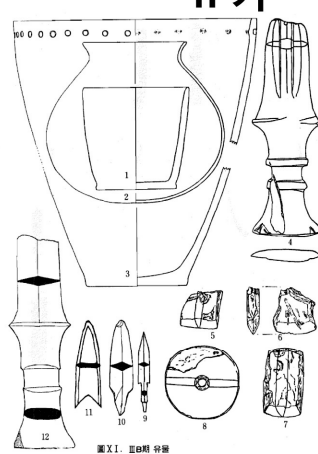


圖VI. 【B期 片器(5)】
1, 12(吐魯東 14區) 2, 3, 5, 6, 13, 17(洞12區)
4(洞西區) 7, 10(洞1區) 8(洞11區) 9(洞2區)
11, 14, 15, 16(洞西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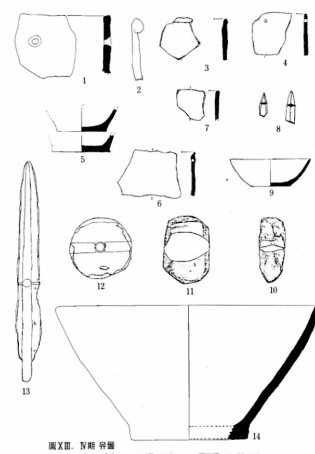
II기



圖VII. 【A期 片器】
3, 5(洞西區 3區 3區) 1, 2, 4, 6, 7-9, 11, 12, 14, 15(洞東區 A지구)
磁片碎) 10, 13, 16(洞西區 A지구 磁片碎)



圖VIII. 【B期 片器】
1-3, 10(洞東區 A지구 磁片碎) 4-9(洞西區 磁片碎) 11, 12(洞西區 磁片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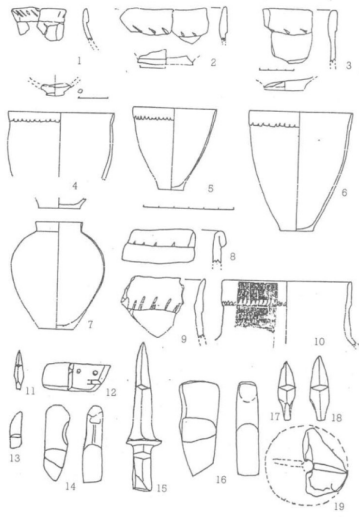


圖IX. 【B期 片器】
1, 12, 14(洞西區 2區 3區) 3-11(洞東區 1區 磁片碎)
12, 13(洞西區 1區 3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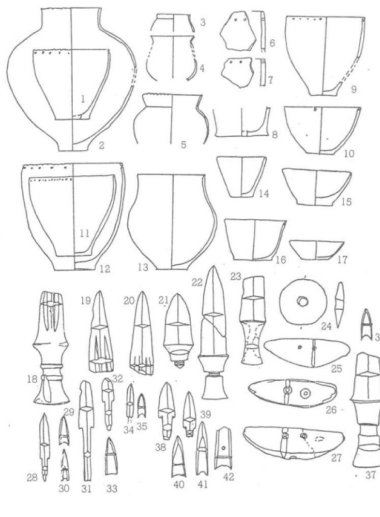
III기

IV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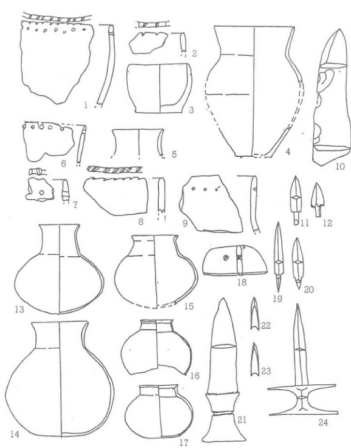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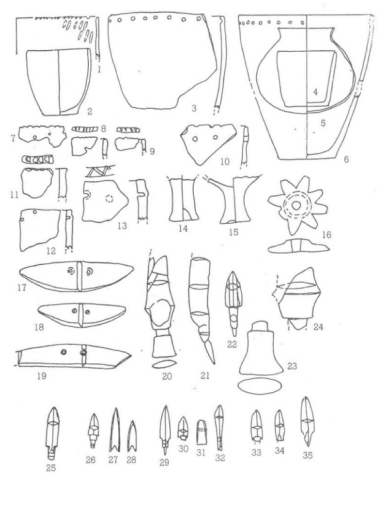
<그림 1> 한강유역 전반기 민무늬토기의 편년(李白圭, 1986, 『嶺南考古學報』 第1號,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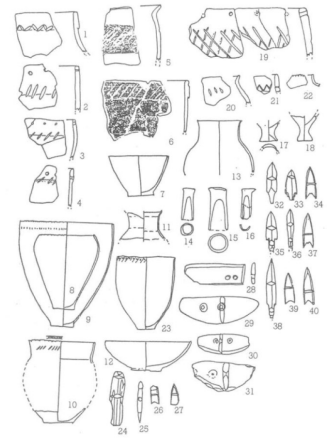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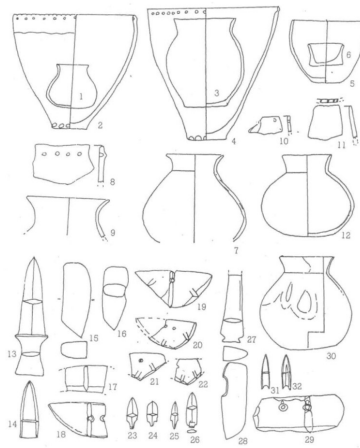
가락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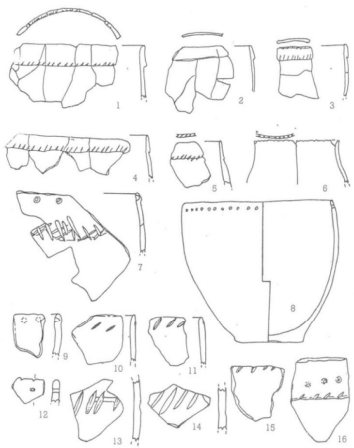
역삼동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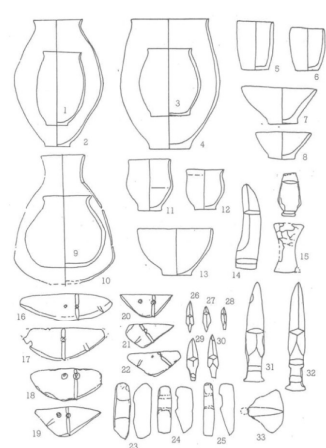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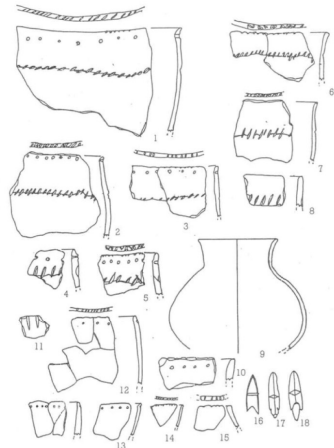
역삼동유형(2)



훈암리유형(1)



훈암리유형(2)



송국리유형

<그림 2> 類型論(李清圭, 1988, 『韓國上古史學報』 第1號, 편집)

문토기를 서일본 쇼몬 만기의 덧띠새김무늬토기(각목돌대문토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무문토기 中期로 편년한 바 있다.¹⁸⁾ 후술하듯 돌대문토기가 시기구분의 주축으로서 자리 잡은 계기는 2000년대 들어서지만(안재호 2000), 최초에 황석리B지구유적(1884)이나 그 이전 춘천 내평유적(1974)에서 보고된 새로운 유물군에 대해 이미 有文土器시대 말기로 인지하고 있었고 한영희(1983)는 내평유적의 유문토기와 용대문토기를 금탄리II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해안으로¹⁹⁾ 다가올 돌대문토기 연구의 序幕을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유물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몽룡·신숙정(1988)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토기에 대한 과학분석의 원리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분석의 목적을 기술발달과정 확인과 원산지 추정으로 정의하였다.²⁰⁾

이상 1980년대 유물 연구는 이전 시기에서 보인 단편적·개관적 연구에서 벗어나 토기와 석기 등의 조합을 유물복합체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편년을 시도함과 동시에 지역 간 교류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에서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1990년대 들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 조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였고 이와 동반해 유물연구에 있어서 토기·석기 등 유물복합체가 제공하는 편년이나 지역성, 계통 등 문화사적 의미 탐구에 힘을 실어 2000년대 취락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천안 백석동유적(공주대학교박물관 1998)과 같은 대규모 취락유적 등이 보고되어 유물의 관찰과 분석, 대략적 편년에 국한되던 연구의 동향이 세부편년에 따른 종합적 취락연구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안재호(1991, 1992)는 초보적 편년단계에 그쳤던 이전 연구를 토대로 유물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전기 무문토기 및 석기를 세부적으로 편년²¹⁾하는 것에 나아가 전기 무문토기의 공열토기문화와 송국리유형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선송국리유형단계(승주대곡리 도룡유적 I기)’이라는 중간과정을 상정하고 지역별 전개과정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해하였다.²²⁾ 주지하듯 이 연구는 당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남한 前期 무문토기를 세밀하게 편년하고 공반 석기의 편년을 더해 시간성을 담보한 다음 송국리유형과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시·공간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연구이다. 90년대 초 등장한 이 연구는 유물의 분석과 정밀 편년을 통해 간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정보를 최대한 도출한 대표적인 귀납적 연구방법으로서 90년대 말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와 부연 연구를 통해 立論을 더해 간다. 이 연구는 이후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지만, 유물연구에 있어서 편년작업이 우선 시되는 유행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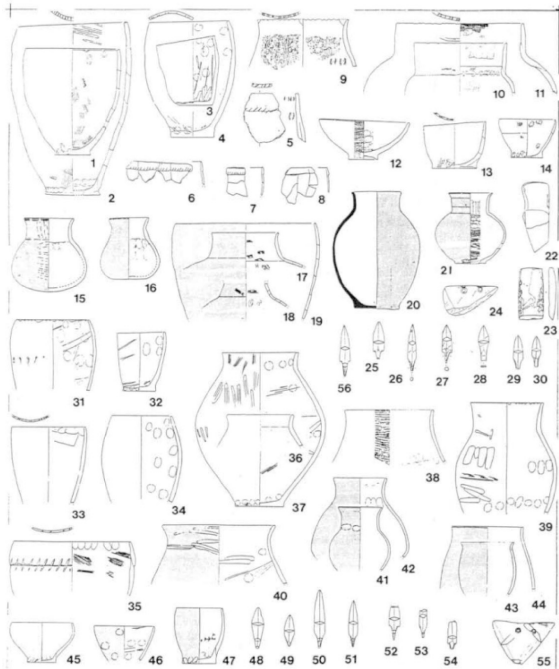
18) 李弘種, 1988, 「日本 初期水田農耕期の 덧띠새김무늬토기」, 『史叢』33.

19) 韓永熙, 1983,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14·15합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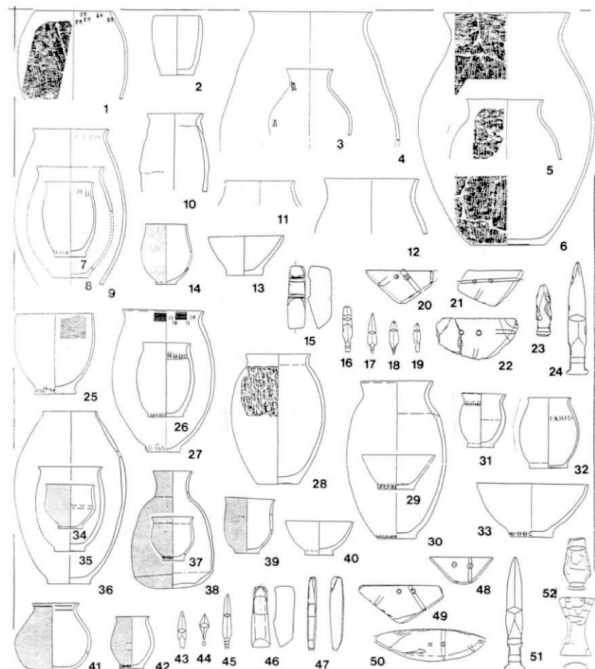
20) 崔夢龍·申叔靜, 1988, 「韓國 考古學에 있어서 土器의 科學分析에 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第1號.

21)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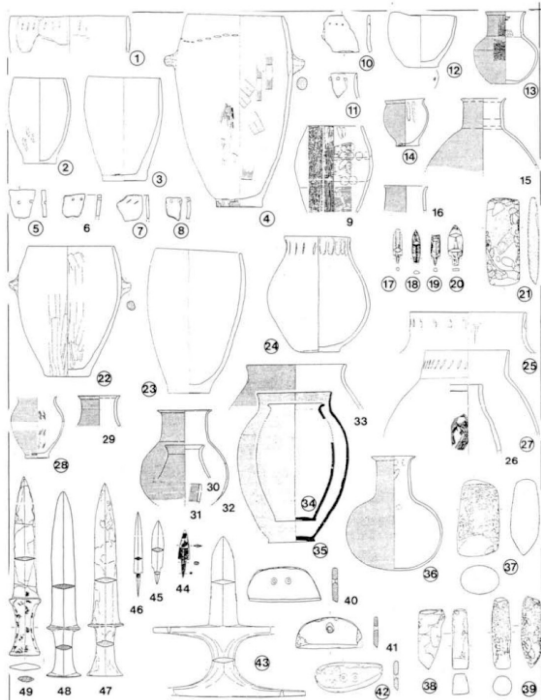
22)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報』第11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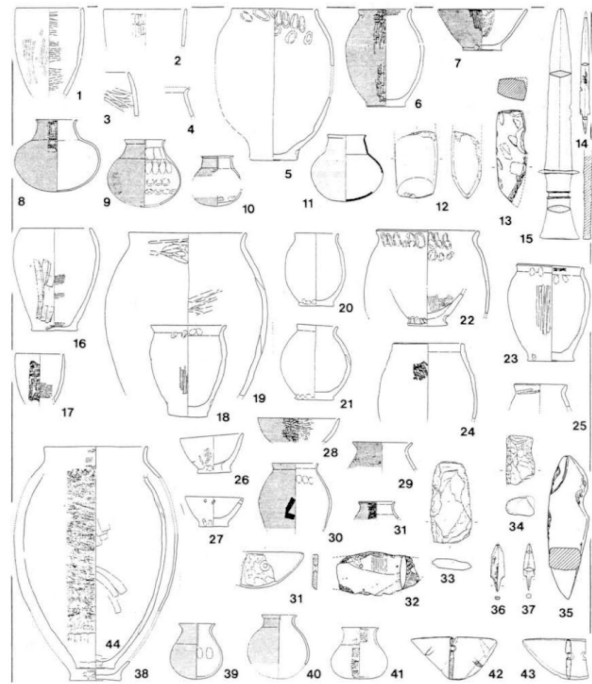
서남지역 편년 I기



서남지역 편년 II기



동남지역편년



동남내륙지역편년

<그림 3> 한반도 남부지역 권역별 편년(安在皓, 1992, 『嶺南考古學報』 第11號, 편집)

송만영(1995)은 중기 무문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송국리문화의 중심(서남한지방)과 주변(중서부지방)으로 인식하고 세부 편년 및 성격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는 심발형토기에 부가되는 문양의 조합여부와 공반유물을 분석하고 편년하여 각 단계를 설정한 다음, 문화사적 의미를 더하여 공열문토기문화와 송국리문화의 관계를 파악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취락유적 간 상대편년을 시도하여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을 시·공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전 시기 한강유역의 유적과 유물에 국한되었던 시각이 송국리유형이 발표되면서 연구의 대상이 한반도 중서부 또는 서남부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이 시기 연구의 공간적 한계라 볼 수 있는데 ‘강원영동지역 출토 민무늬토기 연구(崔熙圭 1995)’와 같이 한반도 동부지역의 토기문화를 살핀 연구도 눈에 띈다.²³⁾

이상과 같이 유형의 정의 속에서 지역별로 일괄 유물의 세부 편년이 주를 이루며 취락연구의 초보적 단계가 이 시기 유물연구의 큰 틀을 이룬 가운데 90년대 일제히 보고된 河南 미사리유적(1994), 金陵 송죽리유적(1994), 晉州 대평 어은1지구·상촌리D·소남리유적(1999), 齊州 상모리(1990)유적 등의 등장은 종래 유물연구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롭게 등장한 일련의 유물복합체는 기존 편년에 대입하기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고 이는 유물이 제공하는 고고학적 의미에 있어 편년을 넘어 계통과 연관시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성립에 대한 의문으로서 향후 전환기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최종택(1994)이 미사리유적의 돌대각목문토기가 역삼동식토기에 선행할 가능성을 제시하고²⁴⁾ 한영희(1994, 1996)는 돌대문토기에 대해 대동강유역의 금탄리Ⅱ기와 팽이형토기문화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며 여기에는 서북지방 토기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²⁵⁾ 諸의 견은 1990년대 후반 전기 무문토기에 대한 계통성에 대한 재고(大貫靜夫 1996; 朴淳發 1999)로 이어지며 기존의 편년·지역성 연구와는 별개로 초기 무문토기의 성립, 즉 우리나라 전환기 연구의 서막을 알렸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말 진주 어은1지구유적(1999)이 조사되면서 초창기 무문토기의 실체가 구체화되고 이상길(1999)은 어은1지구유적에서 즐문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가 공반되는 주거지를 즐문토기에서 무문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인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²⁶⁾

요컨대, 1990년대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思潮는 다음과 같다. (1)토기와 석기의 조합상을 토대로 유물군의 세부편년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해 교차편년 등의 방법을 통한 지역성을 구

23) 崔熙圭, 1995, 「강원영동지역 출토 민무늬토기 연구」, 『韓國上古史學報』第18號.

24) 최종택, 1994, 「羨沙里遺蹟의 住居樣相과 變遷」,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25) 韓永熙, 1994, 「中·西部地方의 櫛目文土器」, 『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韓永熙, 1996, 「新石器時代 中·西部地方 土器文化의 再認識」, 『韓國의 農耕文化』제5집.

26) 李相吉, 1999, 「晉州 大坪 漁隱1地區 發掘調査 概要」, 『南江선사문화세미나요지』, 동아대학교박물관.

체화하고 나아가 지역성 전개에서 나타난 문화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방식은 편년작업이라는 시간성의 담보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초기 취락연구의 열개를 마련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2)미사리유적·어은1지구유적과 같은 새로운 자료가 등장하면서 종래 편년에 대입할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의 유물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당장은 계통 연구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고 2000년대에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문화의 성립에 대한 단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기편년의 근거로 작용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상과 같이 대규모 취락유적의 등장으로 인한 편년·지역성 연구와 미사리·어은1지구유적 등 기존 편년에서 벗어난 新자료의 출현으로 인한 계통연구는 다가올 2000년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했다.

한편, 유물연구에 있어서 토기군 혹은 석기와의 조합상에 따른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개별 석기의 연구(이영문 1997)도 꾸준히 이어졌다.²⁷⁾ 석기의 연구는 유물의 특성상 제작기법, 분포, 기능 등에 의존하였지만 결국 종합 편년을 위해서는 토기와의 공반상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법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유물의 과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도 이전 시기보다 더욱 진척되었는데 최신 방법²⁸⁾으로 무문토기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태도, 소성온도, 광물조성 등을 통해 산지나 지역성을 추정하는 연구(崔夢龍 외 3)도 등장했다.²⁹⁾ 이러한 개별 유물의 과학적 분석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해 고고학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3. III기 (2000年代 이후~현재)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이전 시기에서 구축된 편년·지역성연구를 토대로 더욱 복잡·심화된 연구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시기구분·계통·취락연구·학제 간 교류 등 다방면의 주제에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2000년대 초는 상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등장한 미사리유적(1994)이나 남강유역 어은1지구유적(1999)에서 등장한 새로운 유물 복합체와 이를 대변할 물질문화를 기왕의 편년에 대입하여 새로운 편년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그 先鋒은 안재호(2000)에 의해서였다. 대평유적은 공열문토기가 공반되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유문토기시대’로 귀속시키고, 평저의 돌대문토기와 유문토기가 공반하는 미사리유적과 어은1지구유적의 주거지는 대체로 압록강유역 또는 요동반도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이 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지계의 유문토기문화와 외래계의 돌대문토기문화가 융

27) 李榮文, 1997, 「全南地方 出土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第24號.

28) XRD, XRF, TG-DTA, TMA, SEM 등.

29) 崔夢龍·李榮文·鄭昌柱·姜景仁, 1993, 「全南 昇州·麗川地域 無文土器의 科學的 分析」, 『韓國上古史學報』第14號.

합된 시기를 ‘早期’로 설정하여 새로운 시기구분의 틀로서 재편했다.³⁰⁾ 이는 무문토기의 종류와 성격을 비파형동검문화에 비추어 인식했던 70년대 전·후기의 2분법, 송국리유형의 등장으로 인한 80년대 전·중·후기의 3분법에 이어 각목돌대문토기를 조기 편년의 근거로 한 조·전·중·후기의 4분법 시기구분법으로 劃期를 이룬 성과이다.³¹⁾ 특히 토기의 문양에 따른 편년에 국한하지 않고 제작기법의 관찰, 석기와와의 조합상, 반출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구분을 넘어 문화사적 의미까지 부여한 결과로서 유물연구가 가지는 궁극적 의미에 대해 살폈다. 그러한 底邊에는 이상길(1999)과 같이 새로운 유물군(돌대문토기 등)에 대해 당초에 전환기 자료로 인식한 慧眼이 영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강유역 어은 1지구의 방사성탄소연대가 $2850 \pm 60BP$ 인 점은 수가리Ⅲ층의 연대가 $3130 \pm 80BP$ 인 점과 비교해 시간적 공백까지 메워지는 계기관계를 형성하고 한동안 많은 지지를 받았다.³²⁾ 이후 早期는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의 한 축으로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어 광역별 세부편년이 활성화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른다.³³⁾

이후 박순발(2003)의 미사리유형 설정과 김재운(2004), 천선행(2005) 등 각목돌대문토기 세부 연구가 잇따르고 관련 고고자료가 증가해 조기설정론은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설로 고착화된다.³⁴⁾ 그리고 돌대문토기를 위시한 석기, 이를 반출하는 주거지 등 제 요소는 기원지를 찾는 연구로 심화되었고 이는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의 개시, 나아가 농경문화의 시작을 탐구하는 주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강원영서·영동, 서울·경기, 충청북서·남동, 영남내륙, 남강유역, 동남해안지역, 전라도 지역까지 시기구분에 조기가 추가되어 공식화되고 돌대문토기를 위시한 석기·주거지 등 물질문화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기를 대변할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³⁵⁾ 여기서 중요한 점은 前期(가락동·역삼동·혼암리), 中期(송국리)의 상대편년이 확고해진 가운데 새롭게 설정된 早期의 시기구분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성립에 대한 의문과 ‘계통의 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곧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전환기 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학계는 여전히 유물의 관찰과 형식학적 편년에 의존한 바, 결국 조기부정론이 발생하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조기와 같이 외래계 물질문화의 유입과 이러한 유형이 기존 유형과의 상대편년이 대략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의 유물연구는 해당 토기뿐 아니라 공반유물상을 통해 기원지(계통), 재지계 물질문화와의 시·공간적 관계에 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획기를 마련한다. 이는 청동기시대 전환기 연구를 넘어 전개과정을 통해 각 시기별 지역성 연구와도 연동되는

30)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第43輯.

31) 4분기법은 한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왔지만 현재는 수차례 재편을 거듭하여 연구자마다 다른 시기구분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강원 영서지방을 위시한 여러 지역에서 3000BP를 넘어서는 자료가 속출하였다.

33) 한국청동기학회, 2007,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제1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34) 조기설정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합리적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 이는 ‘논쟁’부분에 후술하도록 한다.

35) 한국청동기학회, 2012,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_____, 2013,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데 여기에서 나타난 지역별 시·공간적 공백은 매우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또 하나의 계통연구로서 비교적 기원지가 명확한 미사리유형에 비해 송국리유형에서 보다 열띤 논쟁을 야기했다. 90년대 초 안재호(1992)의 ‘松菊里類型의 檢討’ 이후 해당 유형의 계통과 확산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 김장석(2003, 2006)의 논의³⁶⁾가 이어져 선송국리유형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보편화된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는 기원 논쟁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의 정점에도 역시 유물연구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이 키를 쥐고 있다. 최초 재지 발생설을 주장했던 안재호(1992)는 전기 무문토기문화와 송국리문화를 계기적 변천관계로 파악하고 양자 사이에 선송국리유형을 설정함으로써 전기와 중기를 연결하는 편년의 도구로 삼았다. 이후 이형원(2009)과 같이 주거형태의 변화에 착안하여 송국리유형의 계통을 설명한 연구자도 있었지만 김장석(2003, 2006)은 충청지역으로 공간을 한정해서 선송국리유형을 검토하면서 유물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구연부가 내만 또는 직립하는 토기가 송국리식 외반 구연호에 선행하는 것을 근거로 선송국리식유형이 전기 무문토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전기무문토기 사회의 변화관계를 모색한 점도 눈에 띈다.

반대로 외래기원설을 주장한 연구자(김정기 1996; 우정연 2002; 이진민 2004; 이홍중 2002 등)도 적지 않았는데 결국 유물(토기)의 문양을 통해 해석한 경우다. 이종철(2015)은 선송국리유형으로 말미암아 고고학적 해석이 굴절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문화접변적 관점에서 선송국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이 혼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송국리식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반구연호는 전국에 분포하지만 대부분 변화형에 가깝고 이는 중심지에서의 이탈이자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변화, 즉 문화변동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면서 송국리유형의 형성지를 금강하류역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그 기원으로 중국 남방문화 내지 동남아시아 일원 지역의 농경문화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³⁷⁾ 이와 같이 형식학적 편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점과 문화사적 의미에서 문화접변의 시각으로 바라 본 고고자료의 해석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이상 미사리유형의 조기설정과 송국리유형의 발생의 논쟁에서 유물연구에 있어 또 한 가지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취할 수 있다. 2000년대는 이른바 ‘再考과 檢證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전 시기 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쇄도한 것이다.³⁸⁾ 이러한 비판적 연구 사조는 그간 빈약하고 단절된 고고자료의 한계 속에서 설정된 종래의 학설에 대한 합리적 비판으로서 그간 축적된 자료의 증가나 방법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36)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51輯.

_____, 2006, 「충청지역 선송국리 물질문화와 송국리유형」, 『韓國上古史學報』第52號.

37)李宗哲, 2015,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8) 조기설정의 문제 외에도 ‘혼암리유형의 재고(김장석, 2001)’ 등과 같은 유형에 대한 비판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장석(2002, 2003, 2008, 2011, 2014, 2018)의 연구와 비판은 학계 큰 파장을 야기했다. 그는 한국고고학(특히 청동기시대)에서 형식학에 근거한 편년과 시기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기설정 무용론’을 강조했다. 그의 핵심은 돌대문토기집단이 외부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이라는 전제는 동일하지만 형식학에 의한 토기의 구연부 처리방식이나 편년은 시간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결국 조기는 문화사적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황재훈(2014, 2015), 황재훈·양해민(2015) 등이 제시한 절대연대에서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문토기가 그 상한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뒷받침되고 있어 양자의 논쟁은 뜨거워진다. 김장석(2018)은 안재호(2016)가 가장 최근 주장한 조기설정의 세 가지 조건³⁹⁾ 또한 이른 시기 토기문양들이 절대연대의 상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문제는 결국 김장석(2018)의 주장이 향하는 궁극적 결론은 청동기시대의 성립에 대한 시각에 있다는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를 근거로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는 그 시작점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분포상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배타적 양상이 아니라 는 의견을 들어 이른 시기(전기) 청동기시대 편년에서 문양을 통해 시기를 파악하고 계통, 기원, 나아가 집단을 설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가 지향하는 연구의 목적은 유물군이나 주거가 아닌 ‘사회현상’에 있다. 동일 주거 내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토기의 문양은 청동기시대 성립 당시 폭발한 인구(2800BP시점까지)의 이합집산과 사회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선택사항’으로 보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시각은 돌대문토기를 위시한 제 물질문화를 조기로 인식하고 각 권역마다 조기 문화를 찾아 편년을 완성하려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노력과 정면으로背馳되는 생각으로서 단순히 토기양식의 선후관계나 계통의 문제를 넘어 그간의 연구 사조와 지향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전환기를 바라본 그의 방법론적 도구는 인구의 증감과 방사성탄소연대치이다. 그가 던진 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가 학계에 던진 편년과 시기구분에 대한 방법론적 지적은 그간 편년과 시기구분에 매몰되어 연역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고수했던 유물연구 사조에 큰 의미를 던졌다 할 것이다.

이렇듯 정형화·고착화된 편년의 틀에서 새로운 유물군의 등장은 청동기시대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 관여하는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점⁴¹⁾을 감안하여 모든 연구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신중히 대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2000년대에 유물연구의 또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는 대부분의 유물연구가 그간의 편년과 계통을 기반으로 ‘聚落研究’의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취락연구는 현재 대부분

39) 안재호·이형원, 2016,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 편년』, 서경문화사.

40) 김장석, 2018, 「한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과 조기청동기시대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第109輯.

41) 말하자면, 김장석(2009)이 주장한 호서·호남지역 ‘경질무문토기 단순기 부재론’도 전환기 공백문제에 대한 논쟁이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들로 하여금 과거문화의 복원이라는 청동기시대 연구의 완성이자 일종의 지향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기저에는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고고자료, 기왕의 유물연구에 대한 편년 및 탄소연대 축적에 따른 동시기성 담보, 경관고고학, 지리정보체계(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의 발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대부분의 연구의 종착이 취락연구로 일제히 수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안재호(2006)의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등장 이래 최근 취락연구의 동향을 보면 권역별 대규모 취락유적들을 세부편년을 완성하고 동시기성을 담보하여 취락 간 관계망(social network) 형성을 탐구하고 모델화함으로써 이른바 ‘거점취락’의 등장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 각 과정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변화는 윌리(G.R.Willey)가 주창한 인간행위와 연관된 취락유형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로서 ‘공간고고학’과 같은 구조적 개념은 아니고 취락 내 편년을 통한 동시기성 확보를 기본으로 한 다음 취락 간 편년, 위계, 유형, 사회구조, 관계망 등 전 분야를 탐구하는 총체적 산물인 셈이다. 이런 동향은 고전적 관점에서 유물의 편년이나 기능, 계통에 기반을 둔 지역성 연구 등에서 벗어나 과거 사회복원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요컨대,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기왕의 유물연구가 편년, 계통과 같은 일차적 정보를 주는 매개였다면 앞으로의 유물연구 방향은 청동기시대 사회의 총체적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취락연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조는 -연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960년대 미국고고학을 중심으로 등장한 新고고학(과정고고학)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연구에 있어서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물이 제공하는 고고학적 정보 외 과학적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에 고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과학발달의 정도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듭될수록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초기의 방법은 X선회절분석, 화학조성, 열분석, 현미경관찰 등과 같은 기초과학적 방법으로 태토의 성질, 광물조성, 소성온도 등을 통한 산지추정 등에 국한되었다.⁴³⁾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적 분석은 실험고고학 분야와 결부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고배울 현미경을 통한 반월형석도의 사용분석(손준호 외 2006)⁴⁴⁾’, ‘복제법(replica)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토기 압흔 분석(손준호 외 2010)⁴⁵⁾’,

42)李宗哲, 2015, 前掲書.

李秀鴻, 2015, 『檢丹里類型的 研究』, 畝春苑.

박영구, 2015,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43) 崔夢龍·李榮文·鄭昌柱·姜景仁, 1993, 前掲書.

44) 손준호·조진형, 2006,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한 반월형석도의 사용분석」, 『야외고고학』장간호.

45) 손준호·中村大介·百原新, 2008, 「복제(replica)법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토기 압흔 분석」, 『야외고고학』8호.

‘실험고고학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마연토기의 제작복원(신경숙 외 2010)⁴⁶⁾’ 등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무문토기의 용량을 복원하여 사회경제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김범철(2007, 2013)의 시도는 대단히 신선하다.⁴⁷⁾ 이러한 과학적 분석과 그에 따른 실증적 방법론의 모색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기보다 과학기술에 의한 연동결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고고학을 중심으로 학제 간 교류를 통한 고고학적 결론 도출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0년대는 이전 시기에서 확보된 안정적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기구분(편년), 검증과 재고, 계통, 취락연구, 과학분석 등에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함과 동시에 향후 유물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Ⅲ. 유물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상으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패러다임 변화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고 새로운 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 본다.

1. 쟁점과 몇 가지 문제

(1) ‘類型論’은 유효한가?

당초에 유형론을 주창한 이청규(1988)는 당시까지 무문토기문화 연구에 압록강유역, 두만강유역, 대동강유역 등과 함께 남한지방은 이에 대응하는 ‘단일문화권’ 수준으로 다루어 진점을 지적하고, 1970년대 송국리식 토기문화를 필두로 남한지역의 토기문화를 더 이상 단일문화권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유형론’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한 주장에는 남한 지역 주민의 구성과 변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박순발(1999)의 견해⁴⁸⁾와 같이 일정한 토기군 혹은 토기문화의 유형이 곧 일정한 주민집단이라는 등식을 전제하고 했다. 같은 의미에서 유물복합체로서 토기群을 ‘~式’, 토기文化를 ‘~型’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후 학계에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유형이 양산된 느낌은 지울 수 없고 각 유형은 고고학적 의미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다. 즉 ‘유형론’이 유물연구에 있

46) 신경숙·오민미, 2008, 「실험고고학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마연토기의 제작복원」, 『야외고고학』8호.

47) 김범철·안형기·송한경, 2007, 「무문토기의 용량분석 시론」, 『야외고고학』2호.

金範哲, 2013, 「靑銅器時代 土器容量復原 試論-湖西地域 취락출토자료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第80號.

48)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1, 박순발은 유형을 ‘동질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고학적 동시간대로 포괄될 수 있는 제작사용집단에 의해 제작 사용된 일련의 유물 및 유물군’으로 정의하고 ‘일정한 공간범위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고고학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고고학적 문화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어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표 2>는 유형론 발표 당시 이청규(1988)의 대략적 시기구분안이다. 물론 미사리유형의 부재와 누적 탄소연대치가 빈약했던 당시 案이고 현재의 시기구분과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지만 2000년대 이후 논문들을 보면 아직도 큰 틀에서 그 열개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각 유형들이 상징하고 있는 고고학적 정보 혹은 한반도 남부지역을 광역으로 묶는 ‘단위’로서 그 실체가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단지 공통적 분모만을 추출한 인위적 방편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표 2> 이청규(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 시기구분 | 초기 | 전기 | 중기 | 후기 | 말기 |
|------|-----------------------------|---------------------------------|--|--|---------------------|
| 내용 |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상존하는 단계 | 혼암리유형 형성 역삼동·가락동 보급 송국리형성 | 가락동유형 소멸 혼암리·역삼동· 송국리유형이 남부로 확산 | 수석리유형 형성 및 확산 역삼동·송국리· 혼암리 잔존 | 군곡리·늑도유형형 성 및 확산 |
| 절대연대 | B.C. 10~8C | B.C. 8~6C | B.C. 6~4C | B.C. 4~2C | B.C. 1C~A.D. 1C |

당초 ‘유형’ 이 제시한 고고학적 단위는 북한지역의 광역 문화권에 대응한 시·공간적 복합개념이었다. 가령, 최초 ‘가락동유형’ 이라 함은 공간적으로는 한강유역에서 형성되어 금강유역의 중부지방을 거쳐 그 以南인 호서지역 및 경북 내륙 지방까지를 涵養하며 시간적으로는 초·전기에 귀속되는 단위로서 일종의 ‘土器文化’로서의 개념인 것이다.⁴⁹⁾ 하지만 수많은 자료가 축적된 지금은 유적 분포상 공간적 개념이 다소 희미해졌다. 시간적 개념 또한 상·하한이 광폭으로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자료가 늘어날수록 전기 무문토기 물질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뒤섞이며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특징을 目睹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동남해안지역에서 典型 가락동유형이 나타나는가?’ 와 같은 상징적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시·공간적 절대 개념이 사라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유형론에 천착했던 이유는 연구자간 ‘특정 토기문화를 대변하는 類型이 곧 집단’ 이라는 등식이 오랫동안 작용했고 그러한 집단은 곧 그들이 향유한 물질문화에 정체성(identity)을 투영한다는 당위적 사고에 매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혼암리유형’ 에 대한 재고론⁵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동북지역에서 남하한 역삼동식 토기와 서북지역 각형토기 문화권에서 남하한 가락동식 토기가 한강유역에서 융합한 결과라는 이백규(1974)의 주장은 형식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주장이었으며 자료가 빈약했던 당시라면 당연하고 합당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1990년대 말부터 大貫靜夫(1996), 박순발(1999) 등에 의해 혼암리식토기 발생에 대한 견해차가 등장하면서 2000년대 초, 김장석(2001)

49) 李靑圭, 1988, 前掲文, 이러한 개념은 삼국시대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樣式’의 개념과는 다르다.

50) 金壯錫, 2001, 「혼암리 유형 재고: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28號.

에 의해 재고론이 급부상하였다.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의 융합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혼암리식토기의 연대가 전자와 차이가 없고 혼암리식토기의 하한이 가락동식토기의 하한보다 늦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 문화적 실체를 부정하였다. ‘한강유역 융합론’ 이후 연역적 입장에서 그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한 과정에서 오는 오류로 규정한 것이다. 대안으로 지역별 전개과정에 있어 가락동식토기 집단을 청천강-대동강유역의 각형토기집단 이주에 의한 결과로 매듭지었다. 이러한 재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그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고 前期 각 유형의 상대편년에서 혼암리유형의 시간적 위치에 대해 한동안 혼란을 겪기도 했다.

선송국리유형과 송국리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도 현상학적으로 상기 논쟁과 본질이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눈앞에 나타난 고고학적 현상을 어떠한 방법과 시각으로 해석하고 현상과 의도를 顛倒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면에는 한국고고학 특유의 형식학 주도적 사고에 대한 오류를 탄소연대나 새로운 시각으로 재고하고자 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담겨있다. 고고학에서 형식학의 중요성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결국 형식학 자체가 야기하는 모순을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는 탄소연대법이나 교차편년에 의해 항상 검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른바 ‘類型化’의 남발이다.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 물질문화가 급작스럽게 발생, 확산, 변이되는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학계에는 특정 지역에서 간취되는 일련의 물질문화에 대해 종래의 유형에서 벗어난다면 쉽게 유형화하여 특정지역 고유의 문화로 설정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고고학적 ‘현상’을 연구자가 주관적 ‘해석’으로 유형화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당초 立論한 유형의 의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후술할 조기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청동기시대는 현재 前期 각 유형으로 대별되는 물질문화와 中期 송국리·검단리문화로 양분된다. 그리고 후자의 상한이 거듭 올라간 상황에서 前期 각 유형은 생각보다 매우 급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전개 양상에 따라 지역마다 空白이 발생하거나 상·하한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은 빈번하게 확인된다. 이 모든 변이나 조합에 의미를 부여하여 유형화 한다면 유형의 시·공간적 의미보다 현상에 천착될 위험이 높다.

생각컨대, 유형론이 발생한 배경은 시·공간적 정보를 제공할 광역단위의 상대편년 도구가 요구되었던 당시 학계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는 유형론이 주는 연역적 사고의 매물과 오류에서 벗어나 다시 각 물질문화가 내포한 개개 요소의 조합이 주는 문화사적 의미를 탄소연대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早期’ 설정의 문제

조기 설정은 안재호(2000)가 주창한 이래 많은 연구자⁵¹⁾의 지지를 받아 정설로 고착된 반

면, 김장석(2008)을 筆頭로 적지 않은 연구자⁵²⁾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논쟁은 200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시기구분상 획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구분이 야기하는 형식학적 편년, 계통, 탄소연대 등 유물연구에 있어서 총체적 담론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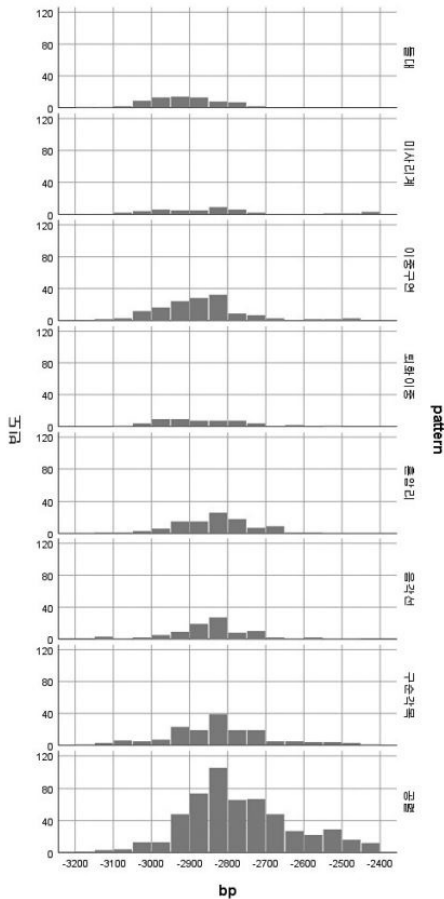
최초 논쟁의 핵심은 간단했다. 돌대문토기 단독기 혹은 재지계 이중구연토기를 포함한 돌대문토기 시기를 시간적으로 가장 앞에 두고 여기에 전환기라는 문화사적 의미를 더하여 시기구분상 초기로 설정한 것에 대해 각 문양들의 주거지 내 공반관계, 이를 반출하는 유구의 방사성탄소연대 비교를 통해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및 그 변종들, 그리고 공열문토기의 상한에서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이다.

현상을 보면 간단한 문제이고 한국청동기시대 개시 및 성립이 기원지가 명확한 이주민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전제에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면에 편년과 방사성탄소연대 등 방법론적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현재는 양론의 출발점과 결과도출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김장석(2018)은 한국고고학이 편년과 시기구분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으며 양자가 성립되는 순서 또한 顛倒된 것으로 간주했다. 즉, 시기구분의 결과가 곧 편년이 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짐작컨대, 당초에 초기가 설정된 후, 특정 시기구분 내에서 물질문화적 요소를 전·후시기와 대비하여 조열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이러한 사조를 연역적 사고에 의한 오류로 인식한 것 같다. 대표적으로 초기설정 이후 나타난 구연부처리방식에 의한 편년 등을 들면서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 토기 문양이 선후관계를 가진다는 점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이 그의 논조이다. 그 외 많은 논거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결국 이른 시기 물질문화(토기)에서 나타난 문양적 요소는 시간성을 반영하지 않고 인구가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선택적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⁵³⁾

황재훈(2015)도 같은 입장인데 과도한 형식조열(혹은 순서배열)을 통해 양산되는 시기구분과 같은 편년결과나 교차편년이 도구적 역할을 하는 방법론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결국 형태 간 유사의 연속이 계기적 시간성과 계통적 연결을 동시에 담보할 것이라는 전제는 막

51) 김재윤, 2004, 「한반도 각목돌대문토기의 편년과 계보」, 『韓國上古史學報』第46號.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輯.
 _____, 2007, 「무문토기시대의 초기설정과 시간적 범위」, 『韓國靑銅器學報』장간호.
 _____, 2015, 「청동기시대 초기설정 재고」, 『湖南考古學』第51號.
 배진성, 2009, 「압록강-청천강유역 무문토기편년과 남한」, 『韓國上古史學報』第69號.
 _____, 2012, 「가락동식토기의 초현과 계통」, 『考古廣場』第11號.
 이형원, 2010, 「청동기시대 초기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考古學』9-2.
 _____,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안재호·이형원 편, 서경문화사.
 鄭大鳳, 2013, 「東南海岸地域 轉換期 無文土器의 系統과 特性」, 『韓國上古史學報』第80號.
 52) 이기성, 2012, 「문화사적 시기구분으로서의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第76號.
 황재훈, 2014, 「중서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시간성 재고」, 『韓國考古學報』92輯.
 _____,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연구 검토-형식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考古學』14-1.
 53) 김장석, 2018, 前掲文.



〈그림 4〉 주거지 출토 각 구연문양의 방사성탄소연대 분포(황재훈 2014에서 김장석 2018이 수정 및 자료추가)

재지 수렵채집민이 공존하였을 것이 예상되지만, 그 양상에 대해 불명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단언하고 있다. 필자는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석기말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정황에 대한 인식만을 거론할 뿐, 정작 토기와 석기 같은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주지하듯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 말기 상황은 남해안지역과 중서부지역이 매우 상이하며 물질문화의 재지적 전통의 強弱 또한 다르다.(천선행 2011 外)⁵⁴⁾ 그런 입장의 차이는 농경 이주민이 유입되었을 때 각기 다른 대응과 그에 따른 흔적을 남겼을 것이며 그것을 간취하는 것은 고고학 연구자의 책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창한 修辭를 부언하지 않더라도 최근 다수의 유적의 안정적 층위에서 양 시기 토기가 공반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⁵⁵⁾ 또한 김장석(2002a;

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논지를 더했다. 拙稿⁵⁴⁾를 통해 반대의 입장에 섰던 필자도 이러한 방법론적 지적이 매우 합리적이고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기를 주장했던 연구자들도 제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기설정에 대한 지난한 논쟁에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고자 최대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석기시대 말기의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김장석(2018)은 스스로 신석기시대 말기 수렵채집민의 상황과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이 無主空山에 등장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왜 수렵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다른 시대의 시기변화에 비해 단절적인가 自問하며 신석기시대 말기의 상황을 설명한다. 주거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인구의 감소(임상택 2008)⁵⁵⁾로 생각하기도 하고 非주거유적의 양이 증가한 점을 들어 ‘이동성의 증가’로 연결하기도 한다. 또한 이주 농경민과

54) 정대봉, 2013, 前掲文.

_____, 2016, 「청동기시대 초기 移住와 定着의 고고학적 현상과 의미」, 『考古廣場』第18號.

_____, 2018, 「영남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기에 대한 小考」, 『韓國青銅器學報』第23號.

55) 임상택,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56) 千羨幸, 2011, 「신석기시대 후말기 二重口緣土器의 지역적 전개양상」, 『韓國上古史學報』第72號.

Kim 2003)의 말대로 재지수렵민이 고고학적으로 간취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농경민화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간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는 탄소연대로도 증명 불가하다. 오로지 물질자료에 투영된 고고학적 요소를 통해서만 설명 가능한 부분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동시기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재지 수렵채집민 입장에서 토기의 문양이나 제작방법 등 인적 교류의 흔적없이 일거에 폐기하고 농경사회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예컨대, 김장석(2001)의 논리를 빌어온다면 -편년이나 시기구분 같은 개념을 차치하더라도- ‘혼암리유형의 재고’에서처럼 가락동식토기 집단(외래)과 역삼동식토기집단(재지)의 접촉이 다양한 고고학적 산물을 남긴 사례처럼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둘째, 방사성탄소연대치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단발성이 아닌 집적된 탄소연대의 수치는 당연히 고고학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연구자의 책무이자 권한임은 지당하다. 다만, 조기 부정의 근거가 된 각목돌대문토기, (古式)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의 시작시점이 탄소연대상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방법론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 탄소연대만으로는 初出자료의 확보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조기 긍정, 부정론 모두 이주 농경민과 수렵채집 재지민이라는 고고학적 정황에 대해 일부 합의된 만큼 初出 자료에 대한 고고학적 중요성은 양론 모두 인정하는 것 같다. 향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연구자가 인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김장석(2018)의 말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반대의 입장에서 신뢰 불가능한 빈도로 도출된 동시기론을 받아들이는 쉽지 않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초출자료의 수가 증가하고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탄소연대도 인정된다면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믿는다.

한 지역에서 여러 요소가 뒤엉킨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縱的인 시간의 개념을 한 지점에서 잘라 橫的 단면을 본다면, 그 시점에서 모든 요소는 당연히 동시기가 되는 것은 자명하고 그 해석은 자칫 오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각 요소가 병존하기 전후의 상황을 추정하고 가장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탄소연대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탄소연대치에 의해 각 요소의 上限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당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보다 初出 자료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전환기에서 방사성탄소연대치 자체는 빈도수의 측면에서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제 요소가 동일한 시점에서 전개된다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

또한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탄소연대치의 집적 수량은 그 연대치를 생산·보고하는 현장에서 비용·여건 등에 의한 조사자의 의지와 객관성이 담보된 과학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多者 측정기관에서 도출되어 집적되는 현행상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오류에 부정적 결과를 외면할 수 없다.

57) 김장석(2018)도 이주민과 재지민과의 접촉을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신빙성 있게 간취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은 많은 문장에서 나타난다.

2. 유물연구의 새로운 방향

청동기시대 연구에 있어서 유물연구는 편년과 시기구분의 핵심으로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현재의 자료라면, 더 이상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만한 자료가 출현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거니와 출현한다 하더라도 전후시기의 사정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고학분야에서 자료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편년작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주관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틀이 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현재는 방대한 자료들로 인해 일정 수준의 상대·절대편년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임도 대부분의 연구자가 인정할 것이다. 유물연구에 있어 지난 반세기의 여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형식학적 편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열된 편년의 결과물을 연구자마다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석을 더해 문화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시·공적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준비가 향후 유물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라 생각한다.

최성락(2019)은 최근 고고학에서 공백과 단절이 나타나는 이유가 연구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⁵⁸⁾ 고고학에서 공백과 단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형식분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편년법 문제, 분기법, 탄소연대법, 시대구분, 고고자료의 해석 등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위해 편년법과 탄소연대법의 올바른 활용법을 강조하였다. 상대연대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식학적 방법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고고학에서 분기법(시기구분)을 여전히 단계구분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절대연대가 편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틀림이 없지만 절대연대만으로 편년이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통시기적으로 적용가능하며 특히 선사시대라면 상대연대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 시기의 연대에 절대연대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선형적 차원에서의 강조이다.

결정적으로 시간축을 해석할 때에는 新진화론을, 공간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과론이나 이주론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앞서 언급한 유형론, 조기설정의 문제 등 현재 유물연구가 봉착한 여러 문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해법일지 모른다. 각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서 언급한 유형론은 시간축과 공간축이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조기설정의 문제는 시간축을 해석하는 방법론적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셈이다.

현재의 연구가 과거 문화 복원이라는 新고고학적 목적하에 진행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고고학적 방법론의 오류를 경계하기 위해 과학분야, 인류학, 공간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학제간 교류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58) 최성락, 2019, 「고고학에 있어서 공백과 단절의 문제」, 『한국상고사학보』제106호.

IV. 맺음말

이상으로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쉬프트’에 대해 주로 연구사적 입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주제는 필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심오한 주제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담론 수준에 그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지난 반세기 동안 유물연구가 변화해 온 과정을 살피고 그 안에서 나타난 패러다임 변화를 나름 간취하였던 점 자체에 의의를 두고 싶다.

유물연구는 패러다임은 과거 직관적 관찰에 의한 서술단계서 시작하여 편년, 계통, 지역성 연구, 취락연구, 과학적 분석 등 기술발전 및 방법론적 연구사조와 연동하면서 꾸준히 변화해 왔다.

일련의 과정에서 (1)형식학에 매몰된 편년의 문제, (2)탄소연대의 부적절한 맹신과 해석에 관한 문제 등은 시·공간적 공백과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심지어 동일 현상에 대해 연구자간 방법론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원론적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보편적 가치를 지닌 방법론을 모색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한편, 현재 전환기와 같이 특별히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반도 남부지역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시간축에 대한 편년은 안정적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예측 불가능한 新자료의 출현을 두려워할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전체적인 편년의 틀은 확고하다는 뜻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 물질문화가 급격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공간적 공백이나 오류는 연구자가 보편·타당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방편으로 최성락(2019)의 선형적 견해를 소개하며 시간축의 변화는 新진화론으로 공간축의 변화는 전과론·이주론 등으로 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양자를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탄소연대는 그 자체가 가지는 현상적 의미보다 고고학적 立論을 검증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參考文獻>

*보고서 생략

金範哲, 2013, 「靑銅器時代 土器容量復原 試論-湖西地域 취락출토자료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80號.

김범철·안형기·송한경, 2007, 「무문토기의 용량분석 시론」, 『야외고고학』 제2호.

金元龍, 1968, 「韓國無文土器地域分類試論」, 『考古學』 1.

金壯錫, 2001, 「혼암리 유형 재고: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 28號.

_____, 2002a, 「남한지역 후기신석기시대-전기청동기시대 전환: 자료의 재검토를 통한 가설의 제시」, 『韓國考古學報』 48輯.

- _____, 2002b, 「이주와 전파의 고고학적 구분: 실험적 모델의 제시」, 『韓國上古史學報』 第38號.
- _____,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51輯.
- _____, 2006, 「충청지역 선송국리 물질문화와 송국리유형」, 『韓國上古史學報』 第52號.
- _____,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韓國考古學報』 69輯.
- _____, 2014, 「한국고고학의 편년과 형태변이에 대한 인식」, 『韓國上古史學報』 第83號.
- _____, 2018, 「한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과 초기청동기시대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第109輯.
- 김재윤, 2004, 「한반도 각목돌대문토기의 편년과 계보」, 『韓國上古史學報』 第46號.
-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 『湖西考古學』 第1號.
- 박영구, 2015,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경문화사.
- 배진성, 2009, 「압록강-청천강유역 무문토기편년과 남한」, 『韓國上古史學報』 第69號.
- _____, 2012, 「가락동식토기의 초현과 계통」, 『考古廣場』 第11號.
- 손준호·조진형, 2006,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한 반월형석도의 사용분석」, 『야외고고학』 창간호.
- 손준호·中村大介·百原新, 2008, 「복제(replica)법을 이용한 청동기시대 토기 압흔 분석」, 『야외고고학』 8호.
- 신경숙·오민미, 2008, 「실험고고학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마연토기의 제작복원」, 『야외고고학』 8호.
-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碩士學位論文.
- _____, 1992,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報』 第11號.
- _____,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第43輯.
- _____, 2016,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청동기시대고고학2:편년』 서경문화사.
- 尹武炳, 1975, 「無文土器型式分類試攷」, 『震檀學報』 39.
- 이기성, 2012, 「문화사적 시기구분으로서의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第76號.
- 李白圭, 1974,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 『考古學』 3.
- _____, 1986, 「漢江流域 前半期 民무너토기의 編年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第2號.
- 李相吉, 1999, 「晉州 大坪 漁隱1地區 發掘調査 概要」, 『南江선사문화세미나요지』, 동아대학교박물관.
- 李盛周, 2017, 「70~80년대의 한국고고학」, 『韓國上古史學報』 제97호.
- 李秀鴻, 2015, 『檢丹里類型的 研究』, 舍春苑.
- 李榮文, 1997, 「全南地方 出土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第24號.
- 李宗哲, 2015, 『松菊里型文化的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的 展開와 孔列土器文化的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第1號.
- 李弘種, 1988, 「日本 初期水田農耕期の 덧띠새김무너토기」, 『史叢』 33.
- 이형원, 2010, 「청동기시대 초기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考古學』 9-2.
- _____,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경문화사.
- 林炳泰, 1969, 「漢江流域의 無文土器時代」,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論叢』.
- 임상택,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너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 鄭大鳳, 2013, 「東南海岸地域 轉換期 無文土器의 系統과 特性」, 『韓國上古史學報』 第80號.
- _____, 2016, 「청동기시대 초기 移住와 定着의 고고학적 현상과 의미」, 『考古廣場』 第18號.
- _____, 2018, 「영남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기에 대한 小考」, 『韓國青銅器學報』 第23號.
-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57輯.
- _____, 2007, 「무문토기시대의 초기설정과 시간적 범위」, 『韓國青銅器學報』 창간호.
- _____, 2011, 「신석기시대 후말기 二重口緣土器의 지역적 전개양상」, 『韓國上古史學報』 第72號.
- _____, 2015, 「청동기시대 초기설정 재고」, 『湖南考古學』 第51號.
- 崔夢龍·申叔靜, 1988, 「韓國 考古學에 있어서 土器의 科學分析에 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第1號.

- 崔夢龍·李榮文·鄭昌柱·姜景仁, 1993, 「全南 昇州·麗川地域 無文土器의 科學的 分析」, 『韓國上古史學報』 第14號.
- 최성탁, 2019, 「고고학에 있어서 공백과 단절의 문제」, 『한국상고사학보』 제106호.
- 崔淑卿, 1960, 「韓國 摘穗石刀의 研究」, 『歷史學報』 13.
- 최종택, 1994, 「羨沙里遺蹟의 住居樣相과 變遷」,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 崔熙圭, 1995, 「강원영동지역 출토 민무늬토기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第18號.
- 韓永熙, 1983,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 14·15합본.
- _____, 1994, 「中·西部地方의 櫛目文土器」, 『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 _____, 1996, 「新石器時代 中·西部地方 土器文化의 再認識」, 『韓國의 農耕文化』 제5집.
- 홍성욱, 2013,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 황기덕, 1958, 『문화유산』 58-4.
- 황재훈, 2014, 「중서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시간성 재고」, 『韓國考古學報』 92輯.
- _____,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연구 검토-형식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考古學』 14-1.
- Willey, G. R. and Sabloff, J. A., 1980,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이상길교수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종합토론

『청동기시대 취락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토론문

송영진(경상국립대박물관)

발표자께서는 취락연구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동안의 취락연구의 흐름 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찾아 밝혔고, 그 속에서 취락연구의 문제점과 논쟁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의 특성상 발표내용이 연구사 평가와 향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 논의해야 할 점은 발표문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발표요지를 따라가면서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한다.

1. 먼저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취락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살펴주셨다. 시기별로의 전체적인 연구흐름을 되짚고, 취락구조론에서 네트워크 연구로의 흐름, 생산과 소비, 인구변동, 경관고고학 등 주요한 연구흐름을 살피고 있다. 궁금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취락연구에서 그동안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그러한 전환은 어떤 계기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다소 분명하지 않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이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시간 흐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락 연구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을 짚어 주시고, 그러한 전환이 일어난 계기가 무엇인지도 정리해주시길 바란다.
2. 발표자께서는 취락의 공간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일상적인 라이프 사이클의 범위’로 좁혀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유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면 이해가 쉽겠다. 그리고 이렇게 좁게 취락범위를 보아야 하는 이유나 유용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며, 이 경우 범위 밖에 위치하면서도 분명하게 고고학적으로 간취되는 분묘군이나 산천의 제의장소 등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3. 취락 내 주거지의 동시기성에 대한 문제이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취락의 형태는 여러 시간대의 주거지들의 겹쳐져 있는 모습일 것이고, 그렇다면 동시기에 존재한 주거들끼리 구분해야 취락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발표자의 견해처럼 단일단계의 취락이라면, 동시기를 밝히는 것은 중복관계 외에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동시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의 저변에는 ‘개별주거지의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주거지 한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나의 주거지는 하나의 시기에 대응하는가? 이 질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지금의 시점에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4. 정주취락의 중요 개념인 장기지속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동일지역 내에서의 근거리 이동’에 대한 것이다. 이는 ‘취락의 확장’, ‘분촌’, ‘반복점유’와는 또 다른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근거리 내 마을 이동의 경우는 장기지속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5. 취락의 개념과 기준,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다. 먼저 ‘가구, 세대’, ‘중심취락과 거점취락’의 개념에 대해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개념인지, 통일해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인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발표자는 중심취락의 기준이 송국리단계에 맞추어져 있어서 시기별로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취락의 계층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취락의 출현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마다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한다면 오히려 해석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오늘 학술대회의 의미를 살피, 이상길 교수가 제기했던 청동기시대 ‘도시문제’, ‘주거지폐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청동기시대 ‘도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지도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락연구자로서 볼 때 지금의 시점에서 청동기시대 ‘도시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하나는 발표자가 언급한 취락의 폐기 중에서도 이상길 교수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대평리의 송국리단계에 보이는 ‘주거지폐기 패턴(특히 의례)’이다. 토론자는 이러한 의례를 동반한 주거지 폐기를 ‘주거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떠나는 모습’으로 이해하면서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마을 해체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락의 해체과정과 관련해서 주거지 ‘폐기의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7. 마지막 질문이다. 앞으로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의 발굴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또 대규모 발굴이 진행된다고 해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신자료에서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발굴현장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결국 목적성을 가진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락연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발굴현장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은 없는지 질문 드린다.

‘무덤’ 과 ‘의례’ 에 대한 토론문

배진성(부산대학교)

이번 학술대회에서 본 토론자가 맡은 무덤과 의례이다. 이 부분은故이상길 교수의 연구 가운데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서, 우리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청동기시대 무덤의 조사성과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지석묘의 개념, 의례의 구체화 등)은 관련 연구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왔다. 발표문 역시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면서 현 상황에서의 여러 성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문 역시 새로운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특정 문제에 대한 공방보다는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과 그를 통한 연구의 고취가故이상길 교수를 추모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와도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 에 대한 토의

1. 지석묘를 나타내는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라고 하면, 상석, 묘역, 분구 등일 것이다. 발표문에는 분구형의 묘역시설에 대한 분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진동리 A-1호묘와 같은 이른바 좁석식의 분구는 주요한 시각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주구묘에도 일정 높이의 분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덕천리 1호묘에도 赤土의 봉분이 확인된 점 등을 보면, 상석은 물론이고 분구의 묘역, 분구가 없는 묘역, 봉분 등은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것이 무덤임을 나타내는 가장 주요한 속성일 것이다. 그런데 발표문의 분류에는 매장주체부의 위치를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지하와 지상의 차이는 무덤의 축조, 관련 의례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할 것이다. 축조 및 매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장주체부의 위치에 중점을 둘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취락 속에서 무문토기인들이 무덤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외형적인 속성에 더 중시될 수도 있다.
2. 지석묘의 기원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설은 없는 것 같다. 발표문에서는 남방기원설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많은 편인데, 동남아시아 일대를 기원지로 보는 입장인가?

-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 8가지를 들고 있다. 그 가운데 분류와 편년은 이제는 다소 진부한 느낌조차 든다. 물론 고고학이 해야 할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을 수는 없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당시인들의 認知, 觀念, 思想에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진전되었으면 한다. 이를 어떻게 모색하고 전개시켜 가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언급해 주었으면 한다. 마침 발표자도 장송의례를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儀禮 패러다임과 연구 방향성”에 대한 토의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의례 연구의 주요한 성과들을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며, 이는 발표자의 그간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입대목 제의’, ‘길에 대한 인식’ 등은 토론자에게도 많은 흥미와 자극을 주었다. 이번 발표문은 특정 사례에 대한 논고라기보다는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어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의례를 ‘장소’, ‘설비와 기물’, ‘절차적 콘텐츠’, ‘구성원’, ‘신념(상징)’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기존의 성과들을 조망해 본 점도 특징적이었다. 몇 가지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소’의 경우, 암각화에서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祭場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도 암각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새겨진 그림에 대한 해석이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심원의 경우, 태양신의 상징이라는 초창기의 견해가 지금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기하학적 문양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하학적 문양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과 방향성이 필요한가?
- ‘설비와 기물’에서는 토론자가 제안한 ‘영혼의 호’로서의 적색마연호를 언급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魂魄의 구분까지도 논하고 있다. 혼백은 옛 문헌에도 나오고 있어 무문토기인의 마음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고고자료에 표현되는가, 표현되어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발표문에서는 토론자의 연구를 인용하여 매장주체부 안쪽의 적색마연호는 魄, 바깥쪽의 것은 魂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연구에 그러한 주장은 없다. 토론자

誤讀인가, 아니면 발표자의 주장인가? 발표문의 문장으로는 誤認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구멍이 있는 토기도 혼백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사례에 대한 제시가 없다. 매장주체부 내에 천공토기의 존재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를 말하는 것인가?

3. 의례의 유형화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발표문에서의 지적대로 <표 1>과 같은 대분류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세하게 유형화하는 것 역시 의례의 대상이나 당시인의 인지체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남겨진 고고자료만으로 인식하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대분류든 소분류든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발표문에서 주장하는 좀 더 세부적인 유형화라는 방향성은 어쨌든 의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모색임은 분명한 것 같다. 이 역시 지금까지의 의례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구해가야 할 하나의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해당 절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한 세 가지, 즉 의례의 ‘대표성’, ‘포괄성’, 神格의 ‘객관성’을 고고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잘 가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4. 지금까지의 의례 연구는 주로 개별 유구나 유물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의례 관련 자료는 한 취락 내에서 공존하기도 할 것인데, 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취락에서의 전체 儀禮相의 복원, 개별 의례 간의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통해 해당 취락의 의례문화나 정신문화를 검토하려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며, 또 그 속에서 개별 의례를 바라볼 때 기존과는 다른 추론도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III장 2절 ‘사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부분과도 관련될 수 있다.

5. 문헌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며, 여기에 고고학적 이론 분야와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암각화 연구가 원류, 지역 간 비교, 제작기법, 편년, 성격, 신앙, 제의적 측면 등에 중점이 두어졌던데 대해, 앞으로는 암각화를 조성하였던 개인이나 집단의 상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족지 사례 및 認知考古學에 대한 관심은 의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고학에서 정신적 측면을 다룰 때는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가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두려워 시도에 소극적이라면 의례고고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족지 자료를 비롯하여 민속학 등 인접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활용하려는 과감한 시도들이 축적되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Pradigm Shift)』에 대한 토론문

송영진(경상국립대박물관)

발표자께서는 지금까지의 유물연구의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유물연구의 방법론상 문제점과 그 해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크게 III기(해방전후~1970년대, 1980년~1990년대, 2000년~현재)로 나누고, 각 기마다의 연구사조와 대표논문을 분석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내용과 계기를 살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추출하고, 결론적으로 새로운 유물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대한 유물연구의 흐름을 스토리 있게 정리하고 있어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성과를 보였다. 발표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하며, 발표 주제의 특성상 반론보다는 토론자가 잘 모르거나 평소 발표자에게 궁금했던 점을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다.

1.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발표자는 그 동안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누적된 성과 위에 연구방법의 변화, 新자료 출현”을 계기로 일어나고, 특히 유물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은 ‘新고고자료의 등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당면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의 인식과 연구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 패러다임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가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 성과들 중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할 만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자료 출현’ 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유물연구의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주제가 유물연구지만, 발표문에서 다룬 유물연구의 흐름은 거의 생활유구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한 편년과 시기구분, 유형, 기원과 계통 등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유물연구가 토기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유물이나 주제의 연구흐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의 유물연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방법론에 대하여

발표자가 제기하고 있는 유물연구에서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한다. 먼저 유형론의 문제다. 발표자는 ‘유물연구에서의 유형론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즉 기존의 ‘가락동, 역삼동, 혼암리, 송국리, 수석리’ 유형들의 실체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는 ‘유형의 개념에 맞지 않는 유형의 남발’을 지적하고 있다. 발표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시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유형’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기왕의 ‘유형’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에서 고고자료를 통해 ‘집단’을 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능하다면 예시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편년에 대해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표자가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어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현재 청동기시대 유물연구에서 ‘상대, 절대 편년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분류와 세부편년 연구는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며, 현재 누적되고 있는 탄소연대가 기왕의 편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탄소연대의 활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4.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의 다양성 문제

끝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더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께서는 ‘유물연구는 편년과 시기구분의 핵심’으로서 다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가 편년 중심의 연구에 집중되었던 것은 그만큼 편년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편년연구의 상황은 ‘어느 정도 연구가 심화되면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연구가 경직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를 느낀다. 편년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연구 분위기가 경직된다면, 일반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주제의 연구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편년 이외의 주제들에 대한 유물연구 성과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속성 있는 연구흐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